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45-8 대한방직B/D 3층 902호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6월 17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78 호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여보, 내게 아들딸이 34명이 있다고 말하니까 사무실 사람들이 놀란 토끼눈이 되서 쳐다보더라구. 그 표정들이 어찌나 우습던지…."

"당연하죠. 결혼한지 1년 반밖에 안됐는데."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 일찍 일어난 새내기 주부 양윤덕씨(29)는 자신과 남편 오현수씨(30)의 점심 도시락을 싸다 말고 어젯밤 남편의 얘기가 떠올라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도시락 싸기. 여느 남편 같으면 귀찮다고 투리 칠만도 하지만 굶주리고 있는 북녘 어린이들을 위해 묵묵히 도시락을 들고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든든하기만 하다.

양씨 부부는 한국 JTS(Join Together Society)가 펼치고 있는 '나진·선봉 탁아소·유치원 자매결연 사업'의 후원자다. 올 2월부터 선봉지역 '신회분 장탁아소'와 결연, 그곳 34명의 어린이에게 영양식비용 17만원을 매달 후원하고 있다. 양씨 부부가 이 결연사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정토포교원 '청년정토' 회원인 양씨가 남편에게 권유를



결혼한 1년만 자녀 34명

하면서 부터다. 지난해 3월부터 북녘동포돕기 운동의 후원 회원으로 있던 양씨가 결혼 후, 함께 후원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하자 남편 오씨가 흔쾌히 동의를 해 준 것.

"처음에는 맞벌이를 하니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후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IMF 체제의 영향도 있고,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도시락을 갖고 다니기로 결정했지요."

양씨 부부는 두 사람의 한 달 점심 식사비용을 모아 3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남편은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가끔 외식 한 번 하자고 하면 오히려 안된다고 해요"라며 양씨는 수줍게 웃는다.

매주 수요일 홍제동 정토포교원 법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양씨 부부의 바램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꼭 한번 보는 것.

"빨리 통일이 돼서 그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전혀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개신교인 더 많다' 잘못

통계청 전수조사 '불교우위' 밝혀
갤럽도 표본 수치 부정확성 인정

표본조사에 대한 오해가 '개신교도 20% 최다' '우리나라 최대종교는 개신교' '개신교도 한국서 최다 분포'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았다.

8일과 9일 주요 일간지들은 갤럽조사연구소의 '제3차 한국인의 종교실태와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종교인 수에서 개신교인이 불교인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갤럽은 '한국인의 종교실태' 보도자료에서 '97년 9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민18세 이상 성인 중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스스로 종교를 믿고 있다고 응답한 기준)은 46.9%였으며, 종교별로는 개신교 20.3%, 불교 18.3%, 천주교 7.4%, 기타 0.9% 순으로,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교인은 89년에는 20.9%였으나, 97년에 18.3%로 근소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인 수 개신교인이 불교인 앞질러'라는 소제목까지 붙인 갤럽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게 통계학자와 통계조사자들의 지적이다.

동국대 통계학과 열준근 교수는 95년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 나타난 종교인 분포(불교 23.1%, 개신교 19.8%, 천주교 6.7%)와 갤럽의 조사는 큰 차이가 난다며 "전수(全數)조사가 표본조사보다 훨씬 정확하므로 갤럽의 종교인 수는 신뢰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비교할 성질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갤럽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인다해도 불교인구의 한차례 감소를 근거로 감소세를 나타냈다는 것은 무리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인구조사과 정미숙씨도 "통계수치는 전수조사가 가장 정확하다"며 "표본조사로 종교인 수 등 수치를 결과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통계청 조사는 전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번 조사는 18세 미만은 제외됐다는 점도 고려해 갤럽의 표본조사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교연구실 양진수주임은 "갤럽의 조사 결과는 개신교인이 불교인보다 많게나왔지만, 오차범위(+- 2.45) 내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인이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조사결과"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번 조사에 참여한 갤럽조사연구소 나선미연구원은 "종교인 수 통계는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처럼 명백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며 종교분포 표본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자비의 쌀 모읍시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회장 진관·석달)는 11일 조계사문화교육관 본 사무실 앞에서 '실직자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현판식에 이어 금천구 관내 실직자 가정 30세대에 쌀 15가마를 전달했으며 매달 정례화 할 방침이다. 매월 경불련 '아침을 여는 집' 등에 쌀을 전달한다. (문의: 720-7097)

태고종 총무원 선암사 이전 '유감'

조계종 "원상태로 환원해야" 성명

조계종은 9일 전남지역 5개 본사 주지들과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태고종이 조계종 제20교구본사인 선암사로 총무원을 옮기고 승려대회를 개최한 것은 잘못"이라며 "조속한 시간안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 사찰임은 1970년 4월 9일 태고종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 문화공보부에 종단등록을 신청한 서류중 첨부된 각서와 종헌에서도 확인 된다"며 각서와 종헌의 일부를 예시했다. 즉, 당시 태고종의 종단등록시 종헌에 명기된 사찰은 신규사찰인 극락사와 승가암 두곳밖에 없었으므로 선암사등 분규사찰의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 또 당시 종정인 박대륜스님과 총무원장 박갑득스님등 간부스님들이 연명으로 "현재 경향각지의 사찰의 관리권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본 종단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음을 천명하는 바"라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한 것도 분쟁사찰에 대해 태고종의 소유권이 없음을 태고종이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 조계종의 주장이다.

선암사 문제와 관련 조계종과 태고종은 95년 1월17일 '조계·태고 분규사찰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화합차원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나 95년 가을 이후 별다른 진전없이 양종단의 대화가 단절돼왔다. 한편 태고종은 16일 선암사에서 일시종회를 연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미래불교의 주인공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캠프를 엽니다. 사찰과 용인 에버랜드의 자연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는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는 새싹불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불자임이 자랑스럽고 함께 있음이 즐거운 어린이 연합캠프에 많은 어린이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용인 에버랜드 · 사찰에서 '2박3일'

◇일 정: 1998년 7월23일(목)~25일(토) (2박3일)
◇장 소: 용주사 신록사 목아박물관 화우정사 경수사 백련사
◇대 상: 초등학교 1~6년 (5백명 선착순)
◇특 장: △불교문화유적 답사 △에버랜드서 숙식 놀이시설·수영장 캐리비안베이시설 이용 아미타전 관람 △불교레크리에이션 · 아침저녁 예불·참선, 불교교리 공부 △T셔츠 기념품 선물 제공
◇참가비: 5만원
◇문 의: 현대불교신문 (02)732-1523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 (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불교문화 체험기행



◇노동당사 전경.

6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과 삼층석탑(보물 제233호)이 있는 도피안사, 지장도량 심원사, 6.25때 치열했던 격전지 '철원 노동당사'와 '땅굴' 등을 찾아갑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6월 '6 · 25 격전지를 찾아'

'도피안사, 심원사, 철원 노동당사, 땅굴'

◇출 발: 6월 21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 · 초등학생 2만5천원(도시락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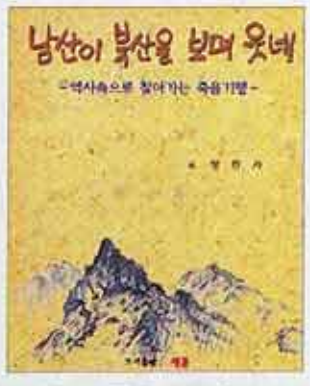
현대불교 기사실명제 - E메일 ID표기

현대불교신문은 교계 신문 최초로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과 전자우편주소(E메일ID)를 표기합니다. 금주 178호부터 기사실명제와 ID표기 실시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기사로 독자와 함께 호흡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사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거나 기자에게 직접 의견을 내고 제보할 일이 있으면 E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역사속으로 떠나는 죽음기행 -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 맹란자 지음 -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신국판/304쪽/정가 7,000원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닮은 꼴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5.5.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 3462-2277 팩스 :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

사 설

주목받는 조계종 임시종회

해산까지 거론됐던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서 있다. 종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으로 올해 11월 15일까지이지만 마무리단계에서 열리는 이번 제132회 임시종회에 종도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개혁종단과 더불어 출범한 제11대 중앙종회는 우리 종도들의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개혁종회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성원미달로 여덟 번이나 유회되고, 급기야는 해산론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 개혁종단 초기의 개혁정신은 실종되었고, 종도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거의 잃어버린듯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래도 조계종이 과연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최대 종단임을 자랑할 수 있을까?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132회 임시종회에서는 정말 기존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연출해서는 안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불자들이 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이월되어 온 중요한 법안의 제·개정등 종단의 시급한 안건들을 이번에 처리해야 할 것이다.

현 종회의원들은 지금까지의 과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참회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대표성을 포기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반성속에서 이번 임시종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이 없이 종단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열리는 임시종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입법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년간 미루어 온 각종 종법의 개정안을 정비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선거법, 교구종회법, 산중총회법, 성보보존법, 교육법, 승려법 등의 개정안을 비롯하여 총림법의 제정안이 꼭 처리되어야 한다.

한편 비판, 감시기능도 보여 주어야 한다. 개혁종단으로서 그동안 종무행정을 엄정히 분석, 평가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포교, 역경, 도제양성이라는 3대 종단사업을 과연 얼마나 개혁적으로 실천했는가? 최근에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조사 분석하여 발표한 우리나라 종교실태를 보고 우리 불자들은 다시한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도의 수를 앞지르고 있고, 조직과 신행행태등에 있어서도 불교가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다. 물론 지난 95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센서스'의 종교인 조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사의 정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쪽의 포교가 불교에 비해 왕성하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한다. 차제에 종단 3대 사업에 대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나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종무행정에서 실책은 없었는가 하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자료를 보면서 포교분야에 있어서 개혁의 좌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고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포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11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임시종회가 될지도 모를 이번 종회에서는 포교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의 종무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차기 종단의 발전과제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의사진행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 종법의 개정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종회의원들 모두가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초기의 개혁정신으로 되돌아가서 효율적이고 사명감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 사부대중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부처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번 종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다시한번 호소한다.

11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4명 '압축'


◇월주스님


◇월탄스님


◇지선스님


◇지은스님

월주·월탄·지선·지은스님 자천타천 출마의사 표명

11월초에 열릴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어떤 스님들이 경합을 벌일까.

일부 스님들이 벌써부터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교계 안팎의 관심이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전선거운동 자제, 과열혼탁선거 지양 등을 골자로 발표된 조계종 중앙선관위의 담화문도 이미 선거가도를 향해 달리는 후보들을 의식한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스님은 현 총무원장인 월주스님과 월탄스님(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백양사주지 지선스님, 前 통도사주지 지은스님 등.

월주스님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연초부터 월주스님의 출마 가능성은 종단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며 주변의 스님들도 "선거 공고가 난 뒤 후보등록일 하루전에 결심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어 출마 가능성을 높게 비추고 있다. 현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미리 출마의사를 밝히는데 따른 정치적 도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뿐 내부적으로는 차근차근 11월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월주스님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시각이다.

이에비해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은 2일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마의사를 공론화 했다. "4년전 이룩했던 종단의 개혁의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는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종단의 개혁과 사회참여를 통한 참된 불자의 길을 걷기 위해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선거일이 많이 남은 관계로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며 '한국불교의 위상 재정립' 등 공약사항들을 내놓기도 했다.

월탄스님의 출마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월탄스님과 주변의 스님들이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출마후보로 거론됐던 설정스님(조계종중앙종회의장)이 최근 "나는 선거에 나설 의향이 없다. 월탄스님이 출마한다면 도와드릴 생각이다"고 밝혀 월탄스님의 출마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비쳤다.

이미 4월초 경남지역 신문을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지은스님은 최근 교계 신문에도 공식적인 출마의사를 밝혔다. 지은스님은 "지난 4월3일 통도사에서 열린 보살계산림에서 증사스님들의 만장일치로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됐음"을 강조하며 "힘있는 종단, 생산적인 종단, 화합하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선거양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스님들이 이미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어 뜻을 둔 스님들의 행보는 갈수록 분주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의 교구본사 주지선거를 지켜본 많은 불자들은 보다 승가다운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조계종

통일법요집 발간

스님-신도용 구분…3년만에 결실

〈통일법요집〉이 편찬작업 3년만에 발간됐다.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종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통일법요집〉을 펴내고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판고불식을 봉행했다.

스님용과 신도용으로 구분해 발간된 〈통일법요집〉은 예경의식과 헌공·재일의식, 특별의식, 찬불가 등 신앙활동에 필요한 의식을 담아 각각 608쪽 596쪽으로 구성됐다. 스님용에는 일용의식과 상용의식, 특별의식, 전문의식 등이 별도로 추가됐다.

포교원은 95년 3월 '불교의식의 체계화, 현대화, 한글화를 통한 불교발전 및 포교활성화를 기한다'는 취지로 편찬사업을 시작, 8차례의 준비 세미나와 집필, 시안(試案)의 현장 검토, 조계종 계단위원 고산스님의 감수 등의 과정을 거쳐 3년여만에 결실을 맺었다.

〈통일법요집〉 편찬작업에는 월운스님이 상임편찬위원장으로, 연구 및 집필위원으로 원명 지홍 법경 인묵 화암스님과 진철승 정부기 이기선씨가 참여했다.

〈통일법요집〉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명절 관련 의례 및 생활의례의 기본적인 전형을 제시하고, 사찰마다 조금씩 다른 각종 의식의 정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법요집은 사찰 또는 단체마다 별도로 제작해 사용해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행자교육원 입방자 조계종 25일 사전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25일 오전 10시~5시까지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제15기 행자교육원 입방 대상자 사전교육'을 갖는다.

남행자 32명 여행자 24명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은 교육부장 향적스님의 특강, 신체검사, 사시불공습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

직할교구 행자 가운데 이번 교육 불참자는 제15기 행자교육원 입방자격을 상실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호남 본말사주지 연수 특강·토론등 활기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이 주최하는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가 10~11일 지리산 프라자호텔에서 1백63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21세기 수행자상과 시대적 역할·IMF시대 불교계 과제와 역할·사찰에서 주지역할과 지도력 제고방안 등에 대한 특강과 토론이 진행됐다.

이은자 기자

인천에 포교거점도량 세운다

조계종-사암련 운영…주월동에 대지 매입

인천지역에 포교 거점도량이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인천지역 사암연합회와 공동으로 포교거점도량을 설립키로 했다. 종단과 지역사암연합회가 공동으로 포교거점 도량을 설립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인천시 남동구 주월동에 2백13평의 대지를 5억여원에 매입키로 하고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거점도량을 인천지역의 불교 교육과 문화포교 등 다양한 포교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사찰 건립과 운영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본사주지 중징계 '설왕설래'

실천승가회등 5개단체 "납득할 수 없다"

조계종 "초심호계위 징계 적법한 절차"

조계종 초심호계위원회가 지난달 4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2명의 중앙종회의원 스님 등에게 제적등의 징계를 결의한 것〈본지 176호 2면참조〉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여의도불교문화센터의 건립 중단사태〈본지 175호 2면참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의장 진관 석담),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동국대석림동문회(회장 혜총)등 5개단체 대표들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청화스님, 진관스님, 법안스님, 도관스님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5개단체는 총무원에 대해 △현시기에 종단의 중진스님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전 종도들에게 해명 △본사주지 스님들에 대한 과도한 징계조치의 전면 재검토 △여의도불교문화센터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공개 등을 요구했다. 중앙종회에 대해서도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 여의도불교문화센터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원)도 9일 총무원에 여의도불교문화센터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개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호법부장 영배스님은 간담회를 통해 "교구본사 주지스님등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징계는 그동안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위해 회부 대기중인 사안이어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불교문화센터와 관련 능관스님은 "7월에 문화센터를 개원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22일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의 징계가 결의된 불국사주지 설조스님도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에 대한 항변'을 밝히고 이를 총무원에 공개 질의했다. 설조스님은 현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호적과 수행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총무원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으므로 이제라도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또다른 세상에선 잠시…

총무원의 징계조치에 대한 교구본사주지모임의 입장

우리 승가 생활의 본질은 화합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도, 종헌종법을 지키는 것도, 청정수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와같은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사찰운영도, 중생제도와 종단개혁도 이루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서 우리 종단은 또다시 각 단위별로 불화와 갈등 구조가 형성되더니 급기야 문중(도)간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있었던 교구본사 주지 등 여러명에 대한 과중한 징계가 그 한 가지 예일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징계 사유가 있으나 그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본사주지를 제적한다거나 오래전에 발생한 성보도난의 책임을 묻는다며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사찰주지에 대해 승려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제적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4~5년 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이번에 취한 징계조치, 그것도 성보를 도난당한 사찰주지들이 더 있는데도 누락시키면서까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계를 한 처사는 이해할 수 없으며 주지의 관리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 성보 전체가 완전히 소실된 과거의 책임을 상기한다면 이같은 사실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건을 두고 우리 교구본사 주지들은 같은 직책의 종무책임자로서 같은 종단의 수행도반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총무원에서 징계조치한 성보 도난 사찰의 본사주지 및 중진 스님들에 대해 4~5년의 세월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중징계한 처사는 옳지 못하다고 사료되니 재고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 이로 인해 또다시 종단과 종도와 문중간에 불화가 심화돼 어려운 국가현실 속에서 불교계의 누추한 모습을 나타내어 국민과 종도들에게 불교계 위상을 실추시키는 모든 책임은 총무원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현 총무원의 4년간의 종무행정상 나타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구본사 주지들은 화합을 위해 인내하고 있음을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년 6월 12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 모임

"신행-포교-교육 자성해야"

갤럽 '종교실태조사'에 나타난 불교현실

경전읽기·정진 등한시…기복 치우쳐
개종 10명중 3명 불자…신도관리 시급

종교인 수에 있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이번에 발표된 갤럽조사연구소의 '한국인의 종교실태와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불교 신행과 포교, 교육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을 알려주는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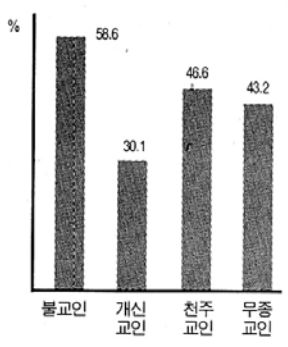
우선 주목되는 조사결과는 기도와 경전을 읽는 빈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불교인에게 기도(정진)는 수행, 자비행과 함께 중요한 신앙행위이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는 물음에 하루 1회 이상이라고 답한 불교인은 16.3%에 머물렀다. 반면 개신교인은 62.6%, 천주교인은 57.1%를 기록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불교인은 33.7%나 되었다.

경전을 읽는 빈도에서도 다른 종교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전혀 경전을 읽지 않는다는 불자는 절반을 넘는 51.3%에 달했다. 1주일에 한번 이상 경전을 읽는 불자는 9.3%에 불과했다. 삼보에 귀의한다면서도 결국은 기복에 치우치는 불교인의 신앙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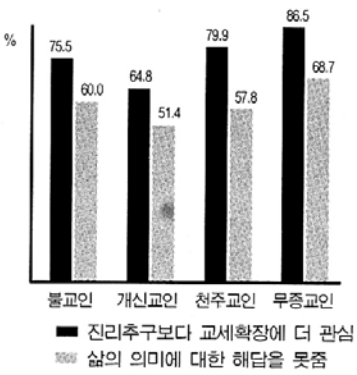
실제 불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작명 궁합 명당 등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더 많이 동의하고 있어 이같은 풀이를 뒷받침한다. '이름과 운명이 상관있다'는 것에 불교인은 58.6%로 개신교 30.1%, 천주교 46.6%보다 훨씬 높았다. 또 '궁합이 나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도 불교인은 개신교 18.8%, 천주교 27.7%보다 많은 55.1%를 나타냈다. 특히 선조의 묘자리와 자손의 번영에 대한 태도에서도 불교인은 72.9%로 개신교인(25.7%), 천주교인(41.0%), 무종교인(53.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종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개종 전에 믿었던 종교가 개신교였다는 사람이 58.4%, 불교 32.8%, 천주교 9.6%라고 응답했다. 개종경험자 가운데 10명중 3명은 불교에서 떠나 다른 종교를 선택한 꼴이다. 신도관리 및 조직화가 여전히 허술하며, 불교가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름과 운명 상관관계 종교인별 태도



◇종교단체에 대한 평가



한편 우리 국민들은 많은 사람이 종교단체가 참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교세확장에 더 관심이 있고(불교인 75.5%, 개신교인 64.8%, 천주교인 79.9%, 무종교인 86.5%),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도 주지 못한다(불교 60.0%, 개신교 51.4%, 천주교 57.8%, 무종교 68.7%)고 답했다.

특히 종교단체에 대해 무종교인들이 종교인들보다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이 주목된다. 이들이 종교에 귀의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주지선거 과열…폐지 여론수렴

조계종 산중총회법 공청회 왜 여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가 이달 안으로 '산중총회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최근 일부 교구본사 주지 선거가 지나친 과열 양상을 보인데 따른 종단 안팎의 비난 여론 때문이다.

교구본사 주지 선거의 폐지 주장은 크게 두가지 요인으로 꼽힌다. 선거로 인해 문중 구성원간의 감정적 골이 깊어진다는 우려가 그 첫번째 요인. 선거를 치른 일부 본사에서는 당선을 위해 본사 7직이나 말사 주지직이 거래되는 등 '줄서기 현상'이 심화돼 문중내 파벌의식이 고조된다는 것이다. 대문에 선거가 끝난 후에도 문중간의 불협화음 기류가 산중에 남아 수행 풍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선거제도가 승가다운 청정성을 보이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 신선하고 진취적인 산중 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부에서 비방과 금품수수등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차라리 선거제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실제 선거가 치러진 일부 본사 인근의 도시에서는 선거기간중 많은 스님들이 호텔을 출입해 지역 불자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

한 중진 스님은 "지역의 고위 공무원이 전화를 해 스님들의 선거 바람이 너무 거센것 아니냐며 자제를 당부해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스님은 "이대로 선거를 몇차례 치르고 나면 산중이 깨질지도 모른다"며 "선거로 인해 승가의 정신이 훼손되고 인간적 신뢰가 깨지는 것은 막을 길도 회복할 길도 없다"고 선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했다. 선거로 인해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란 지적도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산중총회법'대로 산중의 상황에 따라 추대나 경선을 통해 후임 주지를 선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치열한 경선을 예상 했던 불국사가 문중의 합의에 따라 후임 주지를 추대 한 것을 예로 든 한 스님은 "문중의 합의로 후임주지를 추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 이외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첫 시행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씩 선거 관련 법조항을 보완해 나간다면 산중의 선거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며 "추대나 선거 어느쪽이든 문중을 결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문제 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중요한만큼 법적 보완을 통해 선거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데도 많은 스님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중앙종회부의장 법등스님은 "대구 경북지역 본말사주지 합동 연수에서 설문을 해본 결과 1백31명의 응답자 중 76%가 선거제 폐지를 주장했다"며 "앞으로 두 번 더 열릴 지역별 본말사주지 합동연수에서도 설문을 실시, 공청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의 존립과 폐지, 혹은 특별한 대안의 도출. 중앙종회가 공청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종도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해 내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과 종교' 세미나는 종교인의 자성을 통해 위기 극복의 활로를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었다.

"사회문제-소외계층에 관심"

종교인평화회의 '시민의식과 종교' 세미나

기복-성장주의 치중
성숙한 지적훈련 소홀

어려운 시대, '가엾은 중생'과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 종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몽은)가 11~ 12일 이틀동안 서울 프레스센터와 일영 샬롬유스호스텔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과 종교'를 주제로 개최한 종교지도자 세미나는 그동안의 종교 역할에 대한 반성과 종교를 통한 위기극복의 활로를 찾는 진지한 토론의 자리로 평가된다.

11일 개회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난의 현실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감싸안아 사상과 종교의 벽을 넘어 '동체대비' '일시동인'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3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종교지도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종교인들의 자성과 국민정신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의지는 김몽은 신부의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자신의 고유 영역만 고집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해 가는 사회의 흐름을 정화하고 선도하는 저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상근목사는 "국난의 원인은 종교의 상실"이라 전제하고 "기복과 성장주의를 추구하고 물질만능 이기주의에 편승한 우리자신이 반성해야 한다"고 종교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어 김목사는 "아직까지는 '성업중'인 종교가 너와 나를 비롯한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임을 인식하고 원융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종교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종교인의 자세의 강조했다.

정병조(동국대부총장)교수도 '바른 심성과 종교'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종교는 그동안 덩치를 키우는데는 성공했지만 성숙한 지적 훈련을 시키는데는 실패했다"는 자성론과 "바른 심성의 구현을 위한 노력, 대화를 통한 종교간의 유대강화, 환경문제등에 대한 공동대처 등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지향점을 함께 일깨웠다. 특히 정교수는 "현대 종교의 문제점은 수도자의 상실"이라며 일요일 오전에만 기독교인이고 토요일 오후에만 불교인인 이율배반, 미비한 교학적 기반, 독선과 자기도취로부터의 탈피, 내면의 평화 추구 등의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바람직한 종교 교육의 방향'을 발표한 조혜인(서강대) 교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적 윤리 의식의 고취가 종교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물질만능주의의 배격과 각종 사회문제와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역할이 올바른 종교교육의 요인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저녁 일영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된 세미나는 '종교교육의 현실과 미래' '바른심성을 위한 종교적 수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목어 — 읽히는 책

불교출판계에 경사가 났다. 좋은 책 두권이 연달아 출간되면서 일간 신문을 크게 장식했다.

문화일보 5월28일자는 북 리뷰 1면을 거의다 할애할 정도로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를 소개했다.

이 기사는 '20세기의 창조자'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로 불리는 보르헤스 사상의 뿌리가 불교라는 점에 주목했다.

보르헤스는 부처님의 깨달음 장면과 윤회설에 깊은 매력을 느꼈다. "업이란 너무도 정교한 정신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생의 어느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인연의 천을 짜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 모두가 정신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인류의 숭고한 문화자산입니다." 기사는 보르헤스를 통해 본 불교의 핵심을 마치 강의하듯 정리했다. 96년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된 '보르헤스 불교강의'를 책으로 펴내는데 편역자 김홍근씨와 여시아문의 윤제학부장은 1년 이상의 공을 들였다. 문화일보는 그 공을 한눈에 알아 보았다.

문화일보 북 리뷰는 보름간격을 두고 (6월11일) 〈산에는 꽃이 피네〉를 화제의 책 머리에 올렸다. 이 책은 법정스님의 법문, 강연, 사석의 말씀 등을 시인 류시화씨가 정리한 산문집이다.

이 책은 류시화씨가 머리말에서 썼듯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일, 매 순간 자기를 점검하는 구도자적 자세에 주제가 집중되어 있다.

문화일보는 강원도 화전민이 살던 겨울 움막의 사진과 함께 그 움막에서의 스님 모습을 스크린 처럼 그려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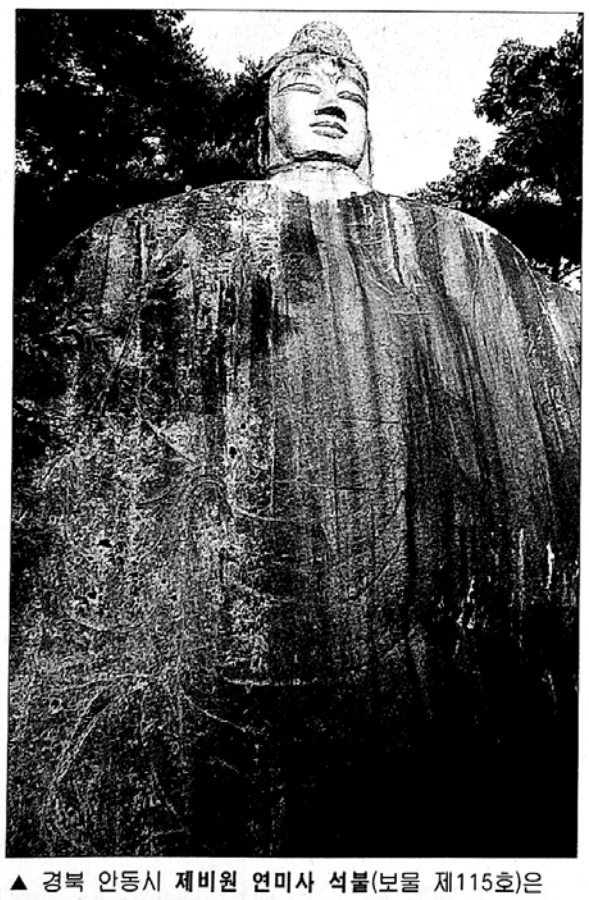
동아일보도 이틀날 걸피마다 지혜 가득한 '무소유·안빈의 풍요'로 출판면 절반을 장식했다.

장정이 간결·단순한 이 책에도 여러사람이 공을 들였다. 말씀을 풀어 다듬은 류시화씨, 동쪽나라 대표 김형균씨, 판화가 이철수씨가 호흡을 함께했다.

두권의 좋은 책을 만드느라 애쓴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 좋은 책을 가려내 널리 읽히도록 보도해준 '신문'에 감사를 드린다.

좋은 불서가 대중의 눈과 마음을 열어 쌓은 '전법의 탑'을 행여 주지선거니 총무원장 선거니 하여 허무는 일이 없어야겠다.

금강국수공장에 후원금 보냅시다
● 국민은행: 006-21-0808-274
● 농 협: 053-01-237065
● 우 체 국: 010041-0302852
예금주 금강국수
문의: (02)735-5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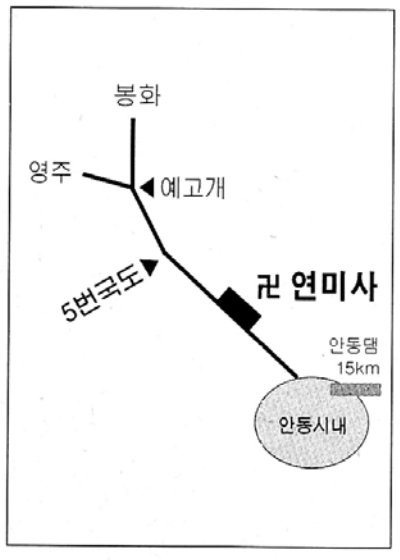


▲ 경북 안동시 **제비원 연미사 석불**(보물 제115호)은 12미터의 암벽에 몸체부분을 선각(線刻)하고 그 위에 머리부분을 따로 조각해 얹은 신라시대의 불상이다.

윤 5월 사찰순례 어디로 가십니까?

"연미사로 결정했습니다!"

■ 연미사 오시는 길



• 연미사 부처님 이야기 •

경북 안동시 **제비원 연미사**는 신라 선덕여왕때 창건된 고찰입니다.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5번국도변에 자리하고 있는 연미사의 거대한 부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자애로운 미소로 지나가는 중생들의 평온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연미사 부처님을 조성한 석공은 그 솜씨를 시샘한 스승이 사다리를 치워버리자 한마리의 제비가 되어 날아갔다고 합니다. 또 임진왜란때 명나라의 장수 이여송이 재상 유성룡과 함께 연미사 앞을 지나갈 때 말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자 두 사람은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지나갔다고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허공의 구름과 같은 탐심에 사로잡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다면 사람이 한 마리의 제비가 되어 날아가듯 허망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과 佛法을 망각하고 사는 삶은 죄업만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도 결국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佛法을 받들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요.

윤5월을 맞아 연미사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고 참회와 발원의 시간을 가져 내일의 복밭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6 교 구 **제비원 연미사 주지 성 도 · 신도회장 이천진화 합장**

조계종 문화부장에 덕운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8일 문화부장에 덕운스님을 임명했다. 덕운스님은 "기존에 계획된 문화부 업무를 중심으로 차질 없는 종무행정을 펴나갈 계획"이라며 "성보문화재 관리와 종단의 문화사업 전개에 역점을 두어 불교전통문화 보급과 예술포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68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1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해인 강원 대교과를 나온 스님은 94년 개혁종단 초대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전우애 · 신심으로 작업했어요"

5사단 신병교육대 법당단청 6명의 병사

"96년 연천지구 수몰로 숨진 선배장병들을 생각하며 5개월간 밤을 새우며 단청작업을 했습니다."

11일 개원한 5사단 신병교육대 법당 90평을 단청한 김지훈 이소진 신호윤병장, 송창근 정정현 김재홍상병은 미대재학중 군대에 입대했지만 불화를 접하기는 처음이었지만 불화집을 보고 공부하며 전우애와 돈독한 신심으로 단청작업을 여법하게 끝마쳤다.

고색창연함과 현대적 감각이 한데 어우러진 5사단 신교대법당 단청은 행사참가자들도 모두들 칭찬할 정도로 전문가의 작업수준을 능가했다. 이날 법당낙성식에 동참한 6명의 병사들은 얼굴 곳곳과 옷에 페인트를 미쳐 지우지 못한채 법회에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단청작업을 진두지휘한 김지훈병장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상태에서 시작하여 많은 불화공부를 하게 됐다"며 "글씨는 컴퓨터로 응용하고 단청도안과 색깔은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새로이 했다"고 밝혔다.

연천=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교차로

美 가정연합문화대전 참석



설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스님은 11~1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문화체육대전'에 참석하고 13일 귀국한다.

가요 '부모은중경' 공연



지범 남제주군 불광사 주지는 23일 오전 10시 불광사 창건기념법회 및 불음가요 '부모은중경' 공연을 갖는다.

태고종 서부 분원장에



불산 진주 토왕암 주지는 20일 토왕암에서 태고종 서부경남종무원 서부분원장 취임식을 갖는다.

세계불교서회전 금상

혜공 대구 성주사 주지는 5월30일 한국미술교류회 아시아서화협회가 개최한 세계 불교서화대전에서 '정관열불선'으로 서예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英 엑시터大와 자매결연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영국 엑시터대학과 교육 및 연구 분야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14일 출국했다.

국군장병 위문 행사

성낙승 불교방송사장은 10~11일 양일간 강원도 해군 1함대서 개최된 방송협회 98년도 1차 이사회 및 임원진 국군장병위문행사에 참석했다.

청명 문화재단 이사에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본지 논설위원)는 임창순 전 문화재위원장이 고전 번역·출판 및 금석문 연구, 한국학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설립한 청명문화재단 이사로 최근 선임됐다.

제7회 행원문화상 준비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제7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추천을 공고했다. 역경·문학·예술 부문 4명에게 수여하는 이번 행원문화상 추천 마감은 30일. (02)926-4377

운현궁서 '서울 江'전



이억영 화백은 한강연작전의 네번째 개인전인 '서울 江'전을 24~30일 서울 운현궁 미술관에서 갖는다.

동산반야회 삼존불 정안



김재일 동산반야회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동산법당 2층 교육회관에서 삼존불점안식을 봉행했다.

차일혁 총경 공적비 제막



차길진 후암정사 법주는 20일 전남 구례 화엄사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 종단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故 차일혁 총경 공적비 제막식을 봉행한다.

수원 보궐선거 공천신청



정관희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 부회장은 7월21일 실시되는 수원 팔달구 국회의원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회의에 공천심사를 냈다.

수덕사 박물관 답사

이재순 대한민국전통문화재 조각회장은 13~14일 수덕사 및 개심사 건축박물관을 순례 답사했다.

佛 예술문화훈장 받아



안숙선씨(국악인)는 전통예술에 기여한 공로로 7월13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아비뇽 불봉극장에서 '예술문화훈장'을 받는다.



피부색 달라도 佛心은 하나

Focus

언어와 피부색은 다르지만 부처님을 향한 합장 삼배(三拜)는 만국의 공통어인가 보다. 서울 신림동 보명사(주지 상원)에서 9일 열린 석가모니불 사리봉안 16주년 기념법회에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 보명사 법회에서 외국인들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다. 어떤 보살이 "주한 외교관 부인들 중에서 불교 신도라면 한 번씩은 보명사 법당에서 삼배를 올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귀띔해 준다. 보명사를 찾는 외국인이 많은 것은 스리랑카 최초의 사원인 이 쑤루무니 사원에 2천3백년전부터 봉안된 부처님 진신사리 중 1과가 보명사에 봉안된 것이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들 사이에 잘 알려졌기 때문.

상원스님은 "예전에는 초하루 법회때마다 주한 외교관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지금은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법회마다 외교관 가족들이 자주 찾아온다"며 "앞으로 주한 외교관과 일반 외국인들의 근본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바레그 수한인 러시아 공사를 비롯해 반 훙 베트남 대사, 몽갈바드라 몽골 대사, 폰미인트 미얀마 대사 등과 그 가족들이 참여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김포학사 건립에 힘 모을터"

중앙승가대 18대 학생회장 강하스님



"전종도들의 염원아래 추진중인 김포학사 건립과 이 전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학생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8일 중앙승가대학교 제18대 학생회장에 선출된 강하스님(복지학과3학년)의 당선소감이다.

스님은 "중앙승가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마찰을 빚었던 기원학사 문제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18대 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승가대 수행관에서 죽비이양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버려진 두살바기 새삶 찾아

감로심장회 언청이 · 심장병 수술

선천성 안면기형(언청이)에 심장병까지 겹쳐 고통받던 고아 이도현(2) 어린이가 감로심장회(회장 보운스님)의 지원으로 10일 마산 의료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이도현 어린이는 진해시 재활원 앞에 보자기에 싸여 버려져 있는 것을 마산시청이 지난해 2월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애리아동상담소에 인수해 수용되었다. 이름은 마산시청에서 지어준 것.

보운스님은 "요즘은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제난으로 감로심장회에 지원요청을 하는 환자가 늘고 있으나, 반대로 후원금은 줄어들고 있어 환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해 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감로심장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장병, 안면기형, 백내장 등의 무료수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불자들의 후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0591)747-0106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주간모금 총액 16,914,190원 ▲나진·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결연 1,445,000원(54명) △단사모임 '산해' 60,000원 △경희대사학과 '형제' 775,790원 △청년정보문화센터 715,000원 △광야교회 133,000원 △정토포교원 청년청토 100,000원 △부산정토법당 청년 정토를일구는사람들 355,400원 ▲주간 신규 결연단체 △선봉 옷직장탁아소(76명·380,000원)-경희대 한의대 학생회 △선봉 신호탁아소(95명·475,000원)-연세대 경영학과 '지음', 푸른하늘을 여는 사람들 ▲한끼굶기 모금총액 875,000(37명) ▲개인모금 총액 1,765,000원(44명) ▲단체모금총액 10,190,000원(2단체)

·후원금 접수 (02)3672-5373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불교운동)

불자 민선단체장 명단 <6·4선거>

광역 6명 기초 71명 당선

6·4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6명이 불자이며 또 232명의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불자는 71명을 차지해 당선자의 31%를 점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대구 울산과 경남·북에서는 전체 당선자 72명중 39명이 불자로 54%를 점한 반면 수도권에서 불교는 1명에 그쳤다. 이밖에 교세가 약한 광주·전남권에서 기초단체장 22명중 7명이 불자로 밝혀졌다.

■서울 △은평 이배영 ◇부산 △시장 안상영 △동구 정현옥 △동래 이규상 △북구 권익 △해운대 신중복△ 사상 윤덕진 △사하 박재영 △금정 윤석천 △강서 배웅기 △수영 신종관 △기장 최현돌 ■대구 △수성 김규택 △남구 이재용 ■인천 △남동 이헌복 △옹진 조건호 ■광주 △시장 고재유 △동구 박종철 ■대전 △시장 홍선기 △서구 이헌구 ■울산 △북구 조승수 ■경기 △용인 윤병희 ■강원 △도지사 김진선 △강릉 심기섭 △동해 김인기 △태백 홍순일 △속초 동문성 △홍천 이춘섭 △영월 김태수 △정선 김원창 △화천 홍은표 ■경기 △이천 유승우

■충북 제천 권희필 △청원 변종석 △보은 김종철 △괴산 김환묵 △음성 정상헌 ■충남 △청양 정원영△ 예산 권오창 △태안 윤형상 ■전북 △장수 김상두 ■전남 △도지사 허경만 △목포 권이담△ 광양 김옥현 △담양 문경규 △장성 김홍식 ■경북 △경주 이원식 △김천 박팔용 △영주 김진영 △영천 정재균 △상주 김근수 △문경 김학문 △경산 최희욱 △의성 정해걸 △영양 이여형 △영덕 김우연 △청도 김상수 △고령 이태근 △성주 김건영 △예천 김수남 △봉화 엄태항 ◇경남 △창원 공민배 △진해 김병로 △ 김해 송은복 △밀양 이상조 △양산 안종길 △의령 전원용 △함안 조성휘 △창령 김진백 △하동 정구용 △거창 정주환 △합천 강석정 ◇제주 △도지사 우근민 △제주 김태환 △북제주 신철주 △남제주 강태훈

〈위 명단은 당선자가 직접 불자라고 확인해준 결과에 의한 것임〉

성 명 서

제20교구본사 선암사 문제에 대한 조계종총무원 및 전남지역 5개 본사의 입장

제방에서 수행과 불법홍포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대덕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94년 개혁 이후 조계종단은 승가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 그리고 제도정착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현재까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해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승가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 포교·전법활동을 활성화했으며, 종단의 대사회적 역할을 크게 신장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계종의 이러한 노력은 사부대중은 물론 일반 국민의 호응을 받아 사회 속에서 조계종단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근대 이후 우리의 불교사는 불교 외적인 도전으로부터 법통을 수호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켜온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선지식들이 이 시기 동안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한국불교의 법통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였기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한국불교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가장 분수령을 이룬 사건이 바로 50~60년대 수행의 전통을 확립하고 왜색불교를 혁파하기 의해 전국의 선지식들이 떨쳐 일어섰던 정화운동입니다. 효봉, 동산, 금오, 청담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께서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 정화운동에 나서 한국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행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불어 청정가람을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불교조계종은 이 정화운동의 이념을 가장 원초적인 바탕에 두고 그 기틀 위에 서 있는 종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조계종 제20교구 본사인 선암사에서 태고종단측에 의해 있었던 일련의 사태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었습니다. 엄연히 법적인 소유권이 대한불교조계종에 있음에도 한국불교태고종에서는 총무원을 그곳으로 옮기고 승려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묵은 조-태간의 분쟁을 다시 야기시켰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자면 선암사는 1965년 11월 9일 조계종 제20교구 본사로 지정된 후 공부상 모든 재산권이 조계종으로 등재외어 있는 조계종 소속 사찰입니다.

이는 1970년 4월 9일, 한국불교태고종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 주무당국인 문화공보부에 종단등록을 신청한 서류 중 첨부된 각서와 태고종 종헌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살펴본다면 태고종이 문화공보부에 종단등록 할 당시 태고종 종헌에 명기된 사찰은 신규사찰인 극락사와 승가암 두 곳밖에 없었으며, 태고종 중정인 박대륜 스님과 총무원장 박갑득 스님을 비롯한 총무, 교무, 재무부장의 연서로 제출한 각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맹서를 하면서 전통사찰과는 일체의 관련없음을 자인했습니다.

"…(진략) 앞으로 소송행위 등 일체의 분쟁요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거듭 맹서합니다. 현재 경향각지의 사찰의 관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각급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본 종단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음을 아울러 천명하는 바입니다.

만약 본 종단에서 등록을 필한 후에 위 각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귀부의 어떠한 처분이 있을지라도 이를 감수하겠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이 각서는 태고종단이 도덕적인 면에서 전통사찰의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도 또한 1969년 10월 23일에 있었던 '종헌개정결의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 최종판결을 통해서 한국불교의 법통은 조계종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는 곧 선암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의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30년 동안 각종 소송을 통해 선암사를 비롯한 태고종 무단점유 사찰의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음을 확인받았으며, 태고종이 종단등록을 마치고 난 후인 1971년 9월 20일에는 전국의 태고종 무단점유 사찰이 등기를 조계종 명의로 받아냄으로써 등기상으로도 조계종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계종은 종단 간의 화합과 전체 한국불교의 안정을 위해 태고종의 무단점유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고 이 문제는 양 종단 간의 양보와 화합을 통한 지혜로운 해결만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안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종과 태고종 간에 조-태분규 수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화해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기본적 입장에 따라 조계종은 지나 82년부터 94년 종단개혁 직후인 95년도까지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고종단의 조치는 지난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970년에 종정 이하 태고종단의 지도자 스님들이 쓴 각서에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불교 외적인 정치권력이나 사법권으로부터 분제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준 반불교적이며, 비자주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전남지역 5개 본사에서는 태고종단이 종단설립시 애초 인정했던 바대로 선암사가 본래 조계종 사찰임을 다시한번 겸허히 인정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 조속한 시간 안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불기 2542년 6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지 선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종 열
제20교구본사 선암사주지 세 민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현 지
제22교구본사 대둔사주지 상 원

IMF영향 가족법회 늘고있다

어려운 시대상황 가정화합으로 극복

유니텔불동 법주사서 철야정진·수계식

서울시불심회 송광사·선암사 성지순례

직장법회 및 성지순례행사가 가족 참여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IMF시대 허탈한 사회상황이 가족의 소중함으로 이어진 결과에 따른 것.

단체들의 가족참여 행사는 유니텔통신 부처님나라(회장 김희정) 개설 2주년기념 회원가족 수계법회와 서울시 불심회(회장 제타룡) 전남지역 성지순례법회가 대표적이며 서울구치소 불심회도 준비중이다.

유니텔통신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는 20, 2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개설 2주년을 기념하는 회원가족 수계법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4시30분부터 법주사 강원 강주스님으로 부터 '불자예절과 기본상식' 강의를 듣고, 철야기도정진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 아침 법주사 조실 혜정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가진 뒤 산내암자를 산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20일 오후 2시30분 삼성본관 옆에서 버스가 출발하며 회비는 1인당 2만원, 가족1인 추가시 5천원이다. 연락 송상현 017-279-0469.

서울시 불심회는 14일 전남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에서 성지순례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각 구청 불자회와 서울환경보건연구원 불심회(회장 신재영) 회원 1백1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

송광사 법회에는 방장 보성스님의 법문과 서울 관악산 성주암 합창단의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또 선암사 회향법회는 인곡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의 법문과 불자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성북구청 법륜회는 5월 13·17일 30여 회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주사에서 철야정진법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불심회 제타룡회장은 "어려운시대 불보살의 충만한 가피력으로 불자가정을 돈독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유정 무정의 법문을 통해 신심을 양생시키고 법우상호간 가족간 우의도 돈독히 하는 장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구치소 불심회(회장 임장수)도 상반기경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성지순례법회를 연다는 계획을 잡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협의중에 있다.

이처럼 직장불자회의 가족법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교계에서는 부부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자연스럽게 법회에 참여함으로써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돈독한 불자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진여회 새 회장 전상윤씨

한국통신 대구 진여회는 1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전상윤(대구전화국 건설국)부장을 선출했다. 전상윤회장은 "대구지역본부 진여회 포교국 역량을 강화하여 7개 단위지회 불자회가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진여회는 9일 회의를 열고 7월경 열리는 한국통신 불자회 전국법회를 주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中大 불교동문회 참회정진

중앙대 불교학생회 동문회(회장 서정규)는 20일 오후3시 천중사에서 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참회정진대법회를 갖는다. 법회에서 법현스님은 '감각기관의 조복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는 주제로 법문을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경전독송회와 참회정진기도,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가수 김수철씨의 클래식음악 연주회가 열릴 예정이다. (02) 914-3558

조계사불교대 직지사 순례

조계사 불교대학 총학생회(회장 한재영)는 20~21일 직지사로 수련대회겸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날 수련회 및 성지순례에는 1·2학년 총 3백 60여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02)720-1390

세무사불자회 법회

세무사불자회(회장 송호승, 영진회계법인대표)는 12일 오후 7시 봉은사 미륵전에서 승원스님을 법사로 '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법회를 가졌다.

세무사불자회는 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7시 열리는 정기법회 장소를 봉은사 미륵전으로 옮기고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02)598-7300



인덕노인복지회관 개관1돌 법회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사장 성운스님, 삼천사주지)은 7일 인덕노인복지회관 개관1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 성운스님은 "앞으로도 선진 복지서비스로 모든 인연들이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노인회 은평지구 김영환회장, 이배영 은평구청장, 국민회의 손세일의원, 한나라당 이재오의원을 비롯하여 지역노인및 불자 1천여명이 참석했다.



법륜사 주지 혜초스님 진산식

태고종 법륜사 혜초스님 주지 진산식이 9일 대웅전에서 승정 운제, 총무원장 인곡 스님을 비롯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혜초스님은 "법륜사는 대륜대종사가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 금강산 유점사 서울 포교당으로 개설한 이후 태고종을 있게 한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법륜사 중흥불사를 통한 종단발전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주지직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사단 신교대법당 낙성식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대광포교당 점안·낙성식이 11일 성타(조계종 포교원장), 밀운(봉선사 주지), 화암(봉선사 포교국장)스님, 이종인법사(3사관학교 법사)를 비롯하여 5사단장 등 군관계 인사, 심우회, 자비회 회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5사단 신교대법당은 총건평 90평으로 총 2억6천9백만원의 공사비를 소요됐다. 한편 낙성식에 앞서 5사단 전몰장병 천도재가 거행됐다.



교화복지선도회 청송교도소 위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회장 혜철스님)는 3일 회원스님인 홍주, 종규, 일복, 정희, 형근, 자운, 청산스님 등 사부대중 20여명과 7백여명의 재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 제2 보호감호소에서 수계및 위문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는 재소자 15명과 스님·신도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매월 만원씩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자매상담을 나누기로 했다.

생명나눔회 홈페이지 띄웠다

장기기증 활동 홍보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는 생명나눔회 로고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개, 사업내용 및 활동현황과 소식,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내용 및 장기기증 신청 서류, 방명록, 관련 사이트 링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월보인 〈삶과 생명나누기〉를 매달 업데이트해 자료제공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lisa.or.kr이다. 'lisa'는 The Life Share Practice Association의 약자. 한편 생명나눔회는 9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74-8번지로 이전했으며, 15일 오후 이전식을 겸한 제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 'lisa'의 초기화면.

수행·일 함께하는 일터 제공

대불련 불교취업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불교취업정보교류센터(운영위원장 유지원)의 활동이 가시화 되고 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위는 최근 불교계 법인·출판·단체·회사 등 2백50여곳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불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학생 불자들에게 수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터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원된 취업정보센터는 앞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업무도 익힐 수 있는 교육 과정과 연수과정도 개설할 방침이다.

유지원 운영위원장은 "취업정보센터는 유능하고 신심있는 대학생 불자들이 교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가불교운동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2)732-0239,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 ID: 대불련

탐방 금융결제원 불자회

"불법 이론·실천 함께 익혀요"

작년 창립…회원 30여명
불교대학 입학 경전공부
자광원 등서 봉사활동

"불자회는 함께 마음공부하는 도반들의 모임입니다. 자연과 너와 내가 하나되는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불자라면 기도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인연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법에 나서야 합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은 금융결제원 불자회(회장 조화제)는 30여명의 회원이 4일 여주 신륵사를 찾아 주지 세영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모임의 의의를 되새겼다.

금융결제원불자회는 지난해 6월 5일 성열스님을 모시고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공부하는데 역점을 둬왔다. 회원들은 지난해부터 능인선원 불교대학 24기로 4명이 수학한데 이어 올해는 25기에 5명이 입학해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3시간씩 불교공부에 열중이다. 불교대학을 졸업한 회원은 6개월과정의 경전연구반에 들어가 공부하는 것이 정식코스가 돼 있다.

그러다보니 법회도 자연히 낮에 할 수 밖에 없어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한국은행 강남지점 법당에서 백남석법사를 지도법사로 합동법회를 보고, 둘째 넷째 다섯째 수요일은 회의실에 모여 불교방송 일요법회 테잎을 들으며 법회를 연다.

금융결제원불자회는 자원봉사활동도 열심이다. 올해 3월부터 매월 셋째 토요일 부처님마을 자광원을 방문하여 할머니 할아버지의 빨래, 목욕 등 효도봉사와 청소를 해주고 있다.

오는 20일 3시에는 금융결제원 불자회 제안으로 전체 여직원 모임인 '한결회'와 우리문화연구및 고적답사반인 '소리길' 회원들과 함께 자광원을 방문하여 할아버지·할머니 위안잔치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 교도소 방문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조화제회장은 "초심자들이 들어와서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실천수행이 깊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다 더 다양한 불교적 체험을 통한 불자회 발전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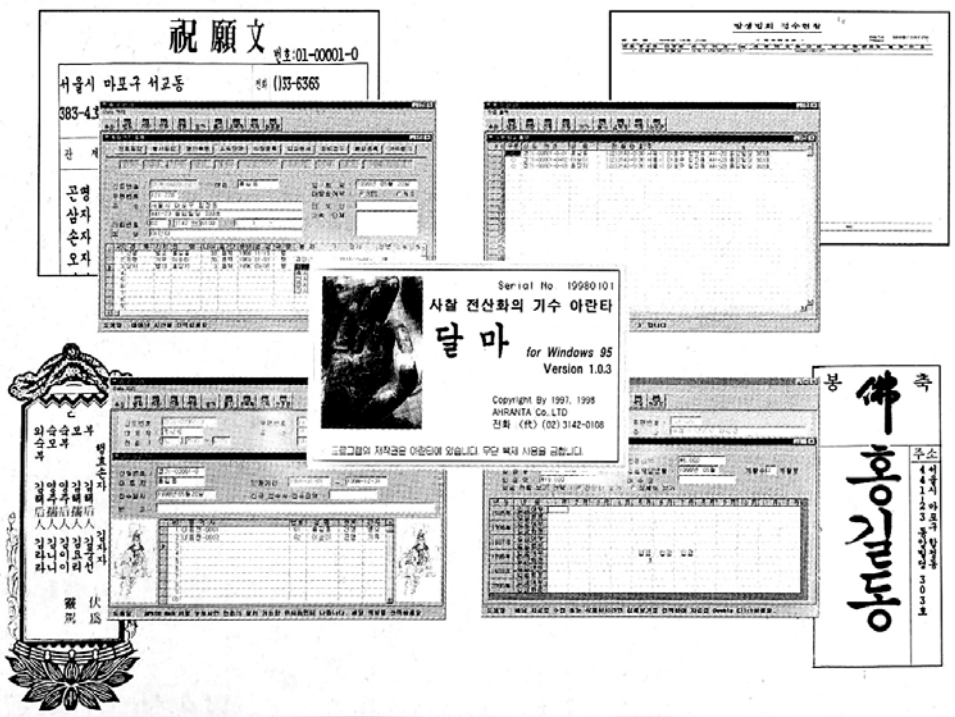
◇ 금융결제원불자회는 4일 여주 신륵사에서 창립기념법회를 가졌다.

해낸 일보다 남은 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찰 전산화의 선두주자 아란타

신도관리 전산화 이젠 문제없습니다.

아란타에서 개발한 달마 for win 종무관리 시스템

어렵게만 느껴지던 컴퓨터
이제 자신있게 시작하세요!



Windows 버젼 출시 기념 할인판매

사찰관리 프로그램 전문업체로서
10여년 동안의 노하우로 개발한프로그램 달마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한 Windows95용 종무관리 시스템」

불교계 전산화의 일꾼으로 만들어진 아란타 종무관리프로그램」
달마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도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출력물(축원문, 위패, 등표…)은 스님의 만족도를 한층 더높일 것입니다.

■ A/S는 자체개발한 통신프로그램으로전국 어디서나 3분 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AHRANTA 스님께서 키워가는 기업 아란타
삼일사이(3142)에 컴퓨터의 백팔(0108)번뇌를 해결해 드립니다.

· 고객 지원 센타 ·
☎ 02)3142-0108

* 21세기 사찰 전산화를 이끌어 가는 준비된 기업 아란타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1-23 동암빌딩 303호 · TEL : 02)3142-0108 · Fax : 02)3142-2329

법회안내



보성스님(송광사 방장) 26일 오전11시 선학원 중앙선원 큰법당 제4회 한국불교 전통선중흥영산대설법회상 특별초청법회. (02)732-3327



법정스님(길상사 회주) 21일 오후2시 길상사 일요법회. (02)3672-5945



정우스님(삼장불교문서포교원장) 매월 첫째 둘째 수요일 오후 7시 청와대경비대대 법회.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10시 문산 군부대 충성사법회.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12시 군회사무처직원불교회 법회. 매월 넷째 금요일 오후12시 한국은행불교회 법회.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7시 인천마하연거사림회 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인천 정진암 법회. 매월 첫째 일요일, 음력 1일 오전11시 김포 선경암법회. (0341)981-0207



일화스님(화성 무우사 주지)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6시30분 수원교도소 불심회 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18일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후7시 수원 매송법회. (0339)52-7346



일진스님(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16일 오전11시 동화사포교원 관오사 금강경 특강법회. (053)784-3669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차의 맛·향·빛깔을 음미하며 선다일미의 가르침을 새겨보자. 사진은 충담재 다도시연.

신행수첩

맑은 마음의 뜨락으로…
여연스님 다도강좌

차의 향기에 녹아든 빛나는 세계를 넘볼수 있게 하는 공개강좌가 열린다. 통도사 부설 여란다회는 23일 오후 2시 포교원 3층에서 여연스님(일지암)의 지도로 차의 모든 것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작은 찻잔에 맑은 차를 우려내며, 그 속에서 마음의 뜨락을 적셔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될 것이다. (051)816-2241

몸과 마음의 때 씻자
쌍계사 · '맑고향기' 수련회

지친 우리들의 육신을 맑혀주고, 붓다의 말씀과 조사스님의 활구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쌍계사 여름수련회가 불자들을 기다린다.

'깊은 마음·참 나'를 주제로 열리는 쌍계사 여름수련회는 오는 7월 24일~27일과 7월 29일~8월 1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열고, 8월 3일~5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특히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수련회는 전액무료로 실시된다. 접수신청은 27일 까지다. (0595)83-1901~2

맑고향기롭게도 제3회 여름수련회 신청자를 접수중이다. 7월 30일~8월 2일까지 성북동 길상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는 60세 미만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수련회에는 선체조, 달빛 음악회, 1080배 정진, 류시화시인의 명상음악 등 다양한 심신수련의 기회가 마련된다. (02)741-4697

무료급식 · 재취업 후원
옥수복지관 대바자회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IMF구제금융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행으로써 '실직자 및 결식아동돕기 자비와 나눔의 대바자회'를 마련한다.

25일~27일 복지관 대행사장에서 열리는 이번 바자회는 여름의류와 신발, 주방용품, 된장, 불교용품 등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실직자 및 결식아동들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와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취업알선을 위한 기금마련의 장에 많은 후원과 참여를 기다린다. (02)282-1100

"아미타춤을 춥시다"
염불만일회 무용단 결성

깨달음의 길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은 불자의 사명이다. 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아미타춤을 배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무용단원을 모집한다.

굳은 신심으로 익힌 아미타춤은 오는 8월5일 금강산 건봉사 성지대회에서 공연된다.

매주 월요일 동산법당에서 한순옥씨(최승희 문하생)의 지도로 극락정토의 이상을 춤으로 일궈내고자 하는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한국무용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02)732-1206

김종서박사 초청 '불교와 교육' 강연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나.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2세 교육문제는 '백년대계'를 내세우며 가정 학교 사회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과 방법에 대해 특히 청소년문제가 범람하고 사회문제로 부상된 현실에서는 그 해답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 시대 참교육의 지혜를 찾고자 평생을 교육계에 바쳤고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서박사를 초청해 '불교와 교육' 특별강연회를 마련합니다.

김박사와 인연있는 불교계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강연회에 교육관계자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제: 21세기에 대응하는 불교교육
◇일시: 6월30일(화요일) 오후2시
◇장소: 길상사(서울 성북동) (02)3672-5945

※이날 불교신행과 교육을 삶의 두 축으로 살아온 김종서박사의 불교사상을 토대로한 자녀교육을 위한 저서가 출간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한국불교언론인회 우리는선우 · 길상사

"실직자 취업알선 해드려요"
교계 종합복지관

IMF 실직 가정의 위기 대처를 위해 교계 각 복지관에서도 지역복지 가정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알선사업, 공동작업장 설치 등을 펼치고 있다.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취업알선사업 프로그램을 개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구인접수를 시작했다. 전화로 접수하거나 직접 내방하면 된다. (0551)31-8017

길음복지관은 실직가정에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목표아래 실직가정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02)985-0161

이밖에도 구로종합사회복지관(2-852-0522)과 옥수종합복지관(02-282-1100)은 한식조리사 자격증 대비반을 개설, 지역민의 취업알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함종한 〈국회의원 · 한나라당 신도회장〉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허무주의에 빠져 방황하던 나에게 대아무아(大我無我)의 이치를 깨닫게 해 지금의 나로 이끌어주었던 것이 바로 불교였다.

시골촌놈이었던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이름있는 대학 입학시험에 지원해 학과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런데 체력장 넓이뛰기에서 그만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 당시는 체력장 점수가 수험생들의 운명을 좌우하던 때여서, 감독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손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통사정을 했으나 소용없었다. 촌놈 딱지를 벗고 번드르한 도시놈이 되어 출세가도를 무한정 달려가고 싶던 꿈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안에서 그정도의 포용과 여유가 없는 인생사를 허무해 하며, 바위속같이 캄캄한 속세를 작파하고 산문에나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조직하고, 고향에 '일요 유아 불경학교'를 세우고, 전국에서 최초로 사찰 경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불교학생회원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 '마실법희'를 창안하여 이종률박사 등을 모시고 공공장소를 돌며 법회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그때 모였던 시민들의 재미있어 하던 광경은 우리 불교계의 대중화를 엿보게 하는 대목으로서 지금 생각해도 아름다운 추억거리다.

그러나 그러한 재미있는 활동은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 제약을 받았고 국회 불자모임인 정각회 간사나 당의 불교신도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전통사찰보존법, 군승과 경승의 제도화, 불교방송 개국, 중앙승가대학의 4년제 정규대학 승격,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통사찰의 보수보전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법 등 불교발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봉사를 대신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국회의사당 내에 법당을 마련하고 부처님을 봉안하던 일로서,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을 때 한마음으로 도와주던 정각회원들의 고마움이다.

결국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 종교와의 갈등으로 14대총선에서 고배를 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강원도지사라는 감투도 얻어 향리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았으니 이 또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반푼 어치의 봉사를 하면 천만냥 어치의 은혜를 베푸시니 이래저래 빚만지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간이 아닌가 하는 송구스런 마음이 든다.

아무쪼록 우리 정치권에도 '나'를 크게 생각하면 모두가 나이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며 더불어 평안한 대아무아의 부처님 은혜를 고루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나무관세음보살.

"정치도반들 '大我無我' 알았으면"
젊은불교 발원 '유아불경학교' '마실법회' 개설



노추산 대승사라는 절로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뵐 면목이 없어 부모님께는 말씀도 못드린채 들어선 그곳은 스님 한 분만이 남아 면벽 정진중인 토굴이었다. 그 절에서 스님의 시봉을 들어가며, 그 값으로 〈반야심경〉〈금강경〉〈아함경〉같은 경전을 주워 들으며 숨어있기를 1년. 수소문해 찾아오신 어머니에게 끌려 하산하기까지 나는 참으로 풍요로운 인생의 양식을 얻었다. 그때 하산할 것을 눈물로 애원하시던 어머니와 이모님만 아니었어도 나는 지금쯤 다른 것은 몰라도 목탁치기에는 선수가 되어있으리란 생각이다.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은 우리 불교가 '청년화'되고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도 늙으면 제 기능을 못하듯 우리 불교가 종교로서의 사회기능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화 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시대와 같이 호흡을 하기 위해 현대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불교학생회를

게 시 판

♣ 인사

동국대의료원 ◇경주한방병원 원장 이태균·진료교육연구부장 윤종화·한방내과과장 김종대 ◇분당한방병원 원장 김장현·진료교육연구부장 김경호 ◇동국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 구병수 ◇경주병원 소아과 과장 김우택 ◇포항병원 진료부장 오민구·교육연구부장 윤혜원 ◇기획관리실 구매과장 최진식·의료정보과장 박정우

♣ 알림

△맑고향기롭게 알뜰시장=맑고향기롭게는 21일 길상사경내에 제4회 알뜰시장을 개설한다. 아나바다 생활운동의 하나로 점차 정착되고 있는 알뜰시장에는 재활용의류, 신토불이 먹거리, 무공해 세재, 우리 옷 등이 판매된다. (02)741-4697

△시청각자료 무료대여=인덕복지회관은 1만여권의 도서와 비디오 어학테이프 등 시청각자료를 후원받아 무료로 빌려준다. (02)385-8205

♣ 모집

△사회복지관전담요원·유아교사·미술교사=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6개월간 복지관에서 근무할 아동사회복지관 전담요원을 구한다. 또 미술관련전공자로 1년이상 근무가능한 유아 미술 산수교실 교사와 아동창작미술교실 교사도 모집한다. (02)985-0161

△자원봉사자·결식후원자=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아동들의 정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작지만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또 결식아동 도시락보내기운동 후원자도 기다린다. 수시 접수. (0551)31-8017

△주부수강생=개금사회복지관은 주부들을 위한 노래교실, 조리사 자격증 이론대비반, 종이접기 지도사 양성반 등을 모집한다. (051)893-5034

△어린이 영어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2시 각학년별로 어린이영어교실을 연다. 발음부터 생활영어를 게임과 비디오를 통해 교육한다. (02)852-0525

♣ 이전

△대구 자비의 전화는 28일 대구시 동구 신천3동 283-6번지 경일빌딩 3층으로 이사한다. (053)951-3340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경북 경산시 사정동 50-8 대상빌딩 3층으로 10일 이전했다. (053)814-8550

△한수현 도서출판 삼양 대표는 최근 사무실을 종로구 혜화동 88-1 2층으로 이전했다. (02)762-5166~7

△대한불청 부산지구 불교청년회(회장 김수현)는 5일 부산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7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51)469-6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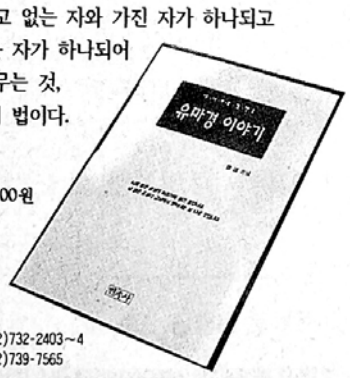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쉽게 풀어쓴 새로운 경전 이야기!

다·시·보·는·경·전①
유마경 이야기
慧 諶 스님

나의 병은 중생이 아프기에 생긴 병입니다.
내 병은 중생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날 나을 것입니다.

"나의 병은 중생이 아프기에 생긴 병입니다.
내 병은 중생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날 나을 것입니다."
중생과 자기를 동체대비시킨 유마의 말이다.
너와 내가 하나되고 없는 자와 가진 자가 하나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되어
서로의 장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유마거사의 법이다.

신국판 240쪽 / 값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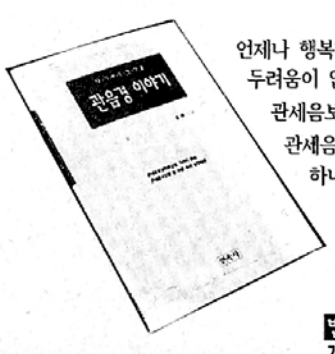
신간!

다·시·보·는·경·전②
관음경 이야기
東 峰 스님

관세음보살마하살을 가까이 하라.
관세음보살을 늘 마음 속에 생각하라.

관세음보살마하살을 가까이 하라.
관세음보살을 늘 마음 속에 생각하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염하라.
그러면 늘 평안하리라.
언제나 행복하리라.
두려움이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 되라.
관세음보살과 그대가
하나가 되라.

신국판 180쪽 / 값 5,5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 · 석지현 스님 엮음

금세기 대표적 청정 율사이신 석성우 스님과
詩人 석지현 스님께서 경전을 읽으시면서
모은 감동적인 불교 명언들!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 365일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치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46판 양장 / 값 5,0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법보시 작은봉사단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시다.

문화 단신

성각스님 선화전

성각스님(남해 망운암 주지)이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운현궁 미술관에서 선서화 특별전을 갖는다. 성각스님이 수행 틈틈히 그린 달마도, 관음도 등 그림과 글씨 50여점이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의 수익금은 실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실직가정을 돕는데 쓰인다. (02)766-7967

전항섭씨 목각전



불자 조각가 전항섭씨의 제4회 개인전 '보이지 않는 나무'전이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공평동 공평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명상과 사색을 통해 내면의 흐름을 좇아 나무의 본질에 접근해 공간과 공간, 시간과 시간,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탐색해온 전씨는 이번 전시회에서도 '소리의 門'(사진) '빛의 문' '시간의 문' 등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목조각 40여점을 선보인다.

찬불동요 창작곡 6집

어린이 찬불동요만을 전문적으로 펴내고 있는 '좋은 벗 풍경소리(대표 화평스님)'가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곡 6집을 펴 냈다. 이번 6집에는 운문스님 시에 이종만씨가 곡을 붙인 '회향', 대엽스님 시에 조선재씨가 곡을 붙인 '좋은 벗', 황학현씨 작사 민선희씨 작곡의 '자비의 씨' 등 모두 16곡의 찬불동요가 들어있다. 노래는 김희형 정유탁씨, 이신자 한경진 곽윤선 어린이 등이 불렀다. (02)3486-6418

백향주씨 '보살춤'



'남과 북의 춤사위'를 한몸에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 국적 재일교포 무용가 백향주씨(23·사진)가 29~3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관음보살춤' 등 춤 공연을 갖는다.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의 춤을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백씨는 이번 공연에서 '관음보살춤'뿐 아니라 '우조춤' '초립동' '칼춤' '무당춤' '고구려 무희' 등 7개의 최승희의 대표작 춤들을 선보인다.

경주남산 석불 그림에 담는다

김대규씨 87구 채색화첩으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유력시되는 경주 남산의 석불 총 87구가 그림으로 옮겨진다. 남산은 보물 제63호 배리석불입상, 보물 제136호 미륵곡 석불좌상, 보물 제199호 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석굴암 조각에 견줄 수 있다는 8세기 조성된 칠불암마애석불(보물 제200호)등 독특하면서도 친근한 미소의 불상과 마애불 들이 곳곳에 있는 노천박물관. 이 석불들이 8절지 크기의 채색 화첩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동안 남산 석불의 사진전이 열린 적은 있지만 남산의 모든 석불이 채색 그림으로 옮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가는 한국화가 로천(鷺泉) 김대규 화백.

"여러번 경주 남산에 가 보았습니다. 신라인들의 불심과 예심을 잘 조화시키고 승화시켜 이루어진 남산은 신라인들이 후세인들에 남겨준 불국정토입니다. 그 친근한 미소는 천여년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귀의처가 되어 왔지요. 그런데 최근들어 석불들이 방치되고 날로 훼손되어 가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세계문화유산을 신청할 만큼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데도 그 가치가 잘 안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이근후 석불문화연구회장님께서 그림으로 옮겨



◇김대규씨

세달작업 9월 문화엑스포 공개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셔서 그때부터 구상에 들어가 자료들을 모으고 준비를 해 왔지요."

김화백은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작업에 들어간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기위해 내주 다시 남산으로 석불 현장답사를 떠날 예정. 단순히 석불들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그 모습과 미소가 나타내주고 있는 불교정신을 어떻게 제대로 표현해 석불을 직접 대했을 때 느끼는 감동을 그대로 전달할까가 요새 그가 붙들고 있는 화두이다.

"한갓진 산비탈이나 계곡의 구석 구석에서 묵묵히 천년의 세월을 지내온 석불들은 날로 황폐해지고 있는 인간의 심성에 말없는 감로법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그 말 없지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법문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화백은 3개월동안 오로지 석불 그리기작업에만 전념해 화첩으로 만들어 9월 경주문화엑스포에서 전시를 가질 예정.

또한 영문해설을 붙이고 표지는 남산지도, 화첩 말미에는 불상들에 대한 색인을 첨부한 그림책을 만들어 남산 석불들의 진면목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을 밝힌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렌즈에 비친 팔만대장경

백종하씨 장경각등 40여점 해인사서 전시



◇백종하씨의 사진 '장경각'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과 장경판전(국보 제52호)이 카메라 앵글에 담겨 참배객을 맞고 있다.

사진작가 백종하씨(포토하우스 편집주간)가 4년여 동안 장경각 전경, 창살, 관가, 경관 등의 24시와 4계절의 변화에 따른 모습을 포착한 칼라사진 40여점을 8월 31일까지 합천 해인사 구광루 1층에서 전시하고 있다. 팔만대장경 해인사 이운 6백주년과 '98 사진영상의 해를 기념해 열리는 '장경각' 사진전은 현재 장경판전이 보수공사중이어서 출입통제가 실시되고 있고 평소에도 일반인들이 창문을 통해 들여다 볼 수밖에 없었던 장경각의 내부와 경판의 모습을 상세히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판제조과정과 실물경판 전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VTR도 상시 상영하고 있어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한편 백씨가 찍은 장경각 사진 2종은 오는 12월 발간될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 특별우표에도 담겨진다. 백종하씨는 "같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불국사, 석굴암에 대한 사진집은 있으나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에 대한 사진집이 없어 아쉬웠다"면서 "2~3년 더 작업한 후에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제대로 표현한 사진집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문화재보호법 개정 요청

성보보존위, 현상변경시 종단승인등

조계종이 개별 사찰의 합리적 불사와 성보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 요청안'을 마련,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덕운스님)는 8일 제5차회의를 열고 전통사찰의 문화재 현상변경시 소속종단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요청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 요청안은 허가받지 않는 현상변경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및 관련 행정기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특히 종단이 성보문화재를 철저히 관리, 현재 개별 사찰의 무분별한 불사와 성보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과 국가와의 마찰을 사전통제·해소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성보훼손등 사전통제 의지표현

그러나 성보보존위원들은 "개정 원칙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종단내 전담부서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김동현위원(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現 문화재보호법상으로도 문화재지정 등 심의절차가 매우 까따롭고 시간이 너무 걸려 불만이 많은 실정"이라며 "분과 구성, 전문위원 위촉은 물론 문제가 많은 사항을 선별심의하는 등 합리적인 시행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덕운스님은 "현재 성보보존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분과가 구성돼 있고 지역별로 25명의 전문위원도 위촉돼 현장조사가 가능한 상태"라며 "앞으로 부족한 인력확충에도 힘써 효율적인 성보문화재 관리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요청안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전통사찰이 △문화재 등 현상변경(15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또는 수리, 위탁(17조) △관리자 선임(21조)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변경허가(30조) 등을 신청할 때 소속종단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이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감은사지 강당지등 문화부 사적 추가

문화관광부는 10일 사적 31호인 경주 감은사지의 건물지와 용연(龍蓮)을 사적으로 추가지정했다.

감은사지는 신문왕이 불력(佛力)으로 왜구를 물리치고자 한 문무왕의 뜻을 이어 완공한 사찰이며, 용연은 죽어 동해용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금당 아래에 판 연못이다. 이번에 사적으로 추가지정된 지역은 3층석탑 북측에 있는 강당지와 회랑지 등 건물지와 절터 전면의 용연이다.

불심시심 〈132〉

석 잔 술의 힘

白酒三盃力 (백주삼배력) 맑은 술 석 잔의 힘으로
青山十里行 (청산십리행) 푸른 산 십리의 길
遙望何處寺 (요망하처사) 멀리보이는 어느 곳 절인가
巖下暮煙生 (암하모연생) 바위 아래 저녁 연기 일다

월하대사의 '길 가다(途中)'라 제한 시이다. 길을 걸으며 뜻 없이 흥얼거리는 것 같다. 그저 소박하다는 말밖에 다른 표현이 필요없다. 나그네의 지친 걸음 술 기운으로 십리의 길을 걷는다. 여기서 이 석 잔이라는 삼배(三盃)와 먼 길의 십리(十里)의 대가 바로 대구적 시의 묘미인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삼배라는 작은 수의 힘이 십리라는 숫자의 극치인 이 먼 길을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적을 넘어 정적에 가까운 나그네의 길에 일정한 유숙처를 예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니, 오늘도 어느 절에서 잘 지 기약이 없다. 멀리 저 바위 서리에서 연기이는 것이 보인다. 연기가 있으니 절이 있겠다. 어느 절일까. 역시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의 일이다. 이 구절도 이렇듯 표현의 묘를 가지고 있다. 연기가 이는 것을 보고 절이 있음을 안 것이 분명한데, 시의 표현은 그 순서를 뒤엎었다. 어느 곳 절인가 멀리 보인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바위 아래에서 연기가 인다는 것이다. 불가의 인명(因明)논리 같지만, 기실은 이런 것이 시인의 사물 뒤집기 논리인 것이다.

의로운 산 길을 석 잔의 술로 버티고 간다. 정처 없는 곳이니 오늘은 어디서 쉴 것인가. 저기에서 연기가 보이니 거기에 절이 있나 보다. 오늘은 거기서 쉬어가자. 이것이 이 시가 지니고 있는 전편의 상황이다. 참으로 무미 단조한 인상이다. 그런데 시의 묘미는 오히려 여기에 있다. 그저 푸른 색과 흰 색으로 점철된 청산녹수의 한폭 채색화가 점 하나로 구상시킨 나그네와 네모의 작은 구도로 숨겨질 듯이 보이는 절의 대칭이 바로 꾸밈이 없으면서도 무한의 수식을 내장한 화가의 묘수처럼, 이 시도 이러한 무한의 수식을 간직하면서도 수식이 드러나지 않는 묘수를 가지고 있다.

대사의 시를 평한 이들이 간결고고하여 작가의 기풍을 간직했다 함이 이런 면을 두고서 한 말이다. 한 순간의 시상을 주변의 몇마디 이야기로써 모두 갈무리하고 있다. 꾸밈이 있을 수 없는 순수성을 여기서도 짐작하게 한다. 소탈이란 모든 꾸밈을 지나보아야 이루어 지는 것이다. 작자의 기풍이 있다 함은 이런 수식을 겪고 난 뒤의 소박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방한외국인 처음찾는곳 박물관

외국인이 한국방문 중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박물관 고궁 등 문화시설(60%)이며, 내국인의 61%는 박물관을 두 번이상 방문한 것으로 조사돼 박물관이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문화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람객 총 6백86명(내국인 4백82명, 외국인 2백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람중 불편사항으로 외국인은 단체관람으로 인한 실내소란과 언어소통의 불편을, 내국인은 전시실 유물설명자료의 부족을 지적했고 △기념품은 내외국인 모두 저가의 복제품, 엽서, 서적 등을 선호하면서도 외국인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기념품의 부족을, 내국인은 가격(35%)과 다양성(51%)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밖에 박물관 정보는 신문, 친구·친지, 인터넷 등에서 얻고 있으며 만남의 장소, 식수대, 유모차, 현금지급기, 삐삐 콜서비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관람객도 있었다.

윤기석 기자

성·동·석·재·불·사·공·예·사
불교석재조각의 진수를만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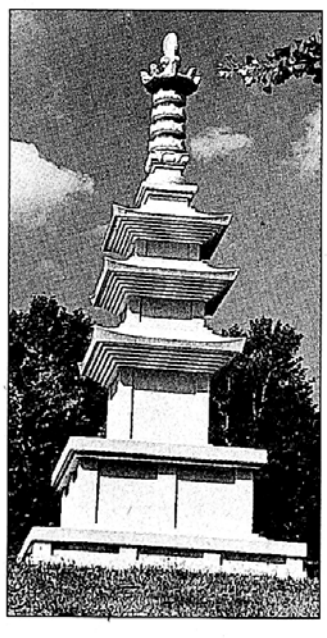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작품으로 모시는 것이 불교석재조각의 대가 성동석재불사공예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성수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전 화 : 0357)31-8736 호 출 : 012)321-6044
팩 스 : 0357)31-5549 핸드폰 : 011)284-510

지금 전국 유명서점 및 불교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생은 오 행따라 산다"

벽담 김원식 큰스님의 승납 42년 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작



· 저자 : 벽담스님 / 가격:7,000원

· 명확한 인생의 길잡이, 확실한 대답.
· 한번 보고 버리는 책이 아니라, 인생살이 굽이굽이마다 지침서가 되는 책!



철학박사 벽담 김원식 스님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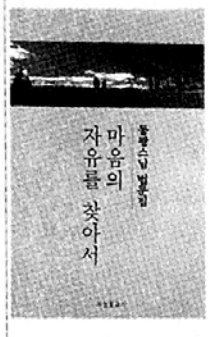
1. 역을 알면 말세는 없다.
2. 오생속성을 알면 만사를 안다.
3. 성격도 오행으로 알 수 있다.
4. 직업, 사업적성은 성공을 보장한다.
5. 음양적도로 인체 생리와 질병을 안다.
6. 오행을 알면 자기병을 안다.
7. 좋은 약도 오래 먹으면 병을 만든다.
8. 오행으로 비만증을 해결한다.
9. 오행으로 두뇌가 좋아질 수 있다.
10. 궁합은 당신도 맞출 수 있다.
11. 수맥이 사람에게 해(口)만 주는 것이 아니다.
12. 체격으로 성격·직업을 안다.
13. 관상이 말을 한다.
14. 얼굴 부위로 팔자를 안다.
15. 수상도 운명을 좌우한다.
16. 이름이 좋아야 출세를 한다.
17. 당호도 잘 지어야 한다.
18. 상호가 좋아야 성공한다.
19. 풍수지리설은 살아 있다.
20. 터가 좋아야 부지가 된다.
21. 집이 가운을 좌우한다.
22. 현세에도 묘자의 명당은 필요하다.
23. 이사 방위, 택일도 좋아야 한다.
24. 택일 택시가 길흉을 가름한다.
25. 삼재란 무엇인가? 등 …

도서출판 대흥기획 02)735-7202/02)738-6270 ■ 저자 : 부산 개운사 051)521-4848/051)532-1458

미망의 골짜기 벗어난 자유인 삶 안내

화제의 책

마음의 자유를… 동광스님 지음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의심의 장막을 제거하는 것만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다가가는 길이다. 돈독한 신심은 참된 길을 가는 이의 좋은 반려가 되고 양식이 되며 마음의 가장 큰 재산이 된다."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이 펴낸 〈마음의 자유를 찾아서〉는 미망의 골짜기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신앙생활과 일상을 소재로 '믿음은 부처의 아들' '고(苦)는 자기완성을 위한 채찍' 등 작은 주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알맞는 경전문구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문집이라고는 하지만 구성이나 내용은 차라리 에세이에 가까워 읽기에 편하다. 〈여성불교사, 8천원〉

현장답사 · 문헌고증 통해 차문화 조명

화제의 책

차문화 유적 답사기㈜ 김대성 지음



지상에서 가장 좋은 물, 삼타수(三陀水)가 흐르는 속리산 법주사, 춘원이 은거하며 작품활동을 했다는 봉선사 다향실, 내로라 하는 차인들의 교유지였던 운길산 수종사. 이미 두 권의 차 문화유적 답사기를 내놓은 김대성(한국일보 편집위원)씨가 〈차문화 유적 답사기㈜〉를 펴냈다.

상권과 중권이 원효방을 일반에 알리고 다승으로서의 일연스님을 새롭게 조명하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차유적지를 담았다면, 이번 하권은 현장답사와 문헌고증을 통해 우리의 차문화를 조명한 것이 특징. 다인을 비롯한 유적지, 다시, 문헌, 물 등 차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 기록들을 현대 감각으로 새롭게 되살려냈다.

30년 기자생활의 필력이 내용을 알차게 하고 있다. 〈불교영상, 9천5백원〉

전설과 설화로 되찾은 운주사의 어제

화제의 책

운주사 그 신비로운… 강형구 지음



천불천탑과 와불 등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운주사. 운주사는 또 어떤 전설과 설화를 간직하고 있을까.

〈운주사 그 신비로운 전설 · 설화〉는 작가 강형구씨가 사라져 가는 운주사에 얽힌 얘기들을 새로이 빚어 우리의 삶터에서 꽃피우게 한다. 도선국사의 창건설화와 운주도사의 창건설화, 중장터 전설과 임신 설화 등 운주사에 얽힌 전설과 설화, 현대사에 나타난 운주사의 모습을 문학적 열정과 재치로 묘사하고 있다.

또 평설 '설화의 허구성과 현실적 이해'에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고스란히 어디엔가 녹슨 연장처럼 남겨져 있다는 교훈을 던진다. 〈삶과 지성, 8천7백원〉



'논집부 1' '조사어록 1·2' '밀교부'

축역 한국대장경 4권 출간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이사장 한정섭) 부설 불교정신문화원이 올초 〈방등부〉 〈화엄부〉 등 '축역 한국대장경' 4권을 펴낸데 이어 최근 〈논집부1〉 〈조사어록1〉 〈조사어록2〉 〈밀교부〉 등 4권을 선보였다.

동국역경원본과 일본의 국역일체경을 근간으로 새롭게 축역한 〈축역 한국대장경〉은 한정섭 이사장이 경전의 대중화를 위해 4년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이미 입적한 운허, 대은스님을 비롯해 월주, 덕암, 숭산 스님등 12명의 스님과 법사, 전문학자 등 모두 20여명이 축역에 참여했다.

이번에 출간된 〈논집부1〉은 구사론, 유식론 등 모두 21가지 논서를 축약해 수록했다. 〈조사어록1〉은 〈전등록〉 30권과 〈벽암록〉 상 · 중 · 하를 한데 묶었으며, 〈조사어록2〉는 〈초발심자경〉 치문경훈 4집(서장 · 도서 · 선요 · 절요), 달마법어, 육조법어, 보조법어, 서산법어, 선문염송 등 한국의 선방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선서들을 총망라해 축역했다. 〈밀교부〉는 〈대일경〉 〈금강정경〉 〈금강명경〉 〈능가경〉 〈천수경〉 〈능엄경〉 등을 축약했는데, 정통밀교인 순밀만을 바탕으로 했으며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금강정유가염송경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불교정신문화원은 〈아함부〉 〈반야부1〉 〈반야부2〉 〈논집부2〉 등 나머지 4권도 올해말까지 발간해 12권으로 집대성되는 〈축역 한국대장경〉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정인스님 '불교와 세계종교' 각 종교의 사상 · 발달 정리



〈불교와 세계종교〉(여래 刊)는 각 종교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종교입문서 형식을 띠고 있어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의 발생에서부터 원시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禪)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일본의 신도(神道) 유태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조로아스터교 샤머니즘과 컬트 등 신흥종교, 이슬람교의 이단인 아사신 등 세계의 비밀종교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각 종교의 개조(開祖)와 그들의 사상 및 교리발달사 등을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서술했다.

정인스님(불지사 주지)이 그동안 교단과 법회에서 강의한 불교학 개론과 종교사를 정리해 엮었다.

"자기반성으로 불황 탈출"

교계 출판사 편집장들 "불서출판 미래 밝다"

95년 이후 서서히 침체에 빠져든 교계 출판계가 IMF 관리체제 이후 제반여건의 악화로 계속되는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년도와 대비해 최고 60%까지 매출액 감소를 보인 출판사가 있을 정도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책을 읽지 않는 불교계 풍토, 출판업계의 안일한 태도가 지금처럼 계속해 맞물릴 경우 '공멸'은 볼을 보듯 뻔하다. 과연 교계 출판계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가.

교계출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판경력 10년 이상의 교계 편집장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예상외로 한결같이 '밝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다만 교계 출판사들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덧붙이고 있다. 쉽게 말해서 '밥 먹을 사람은 많은데 밥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뒤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고명석(대원사), 남동화(불광출판), 이상옥(민족사) 편집장 등이 교계출판 미래를 낙관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좋은 책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모색과 실천은 그리 간단치 않다.

고명석 부장(40)은 "당장 잘 팔리는 책은 입에 달지 모르지만 교계 출판의 전체적인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부메랑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상업성이 떨어지는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나, 지나친 상업성을 배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교계 출판 활성화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태의연한 기획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한정된 필진으로는 더이상 독자들의 시선을 묶어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명석씨

"잘못 만든책 부메랑 효과"



남동화씨

"독자 성향 파악 급선무"



이상옥씨

"발로 뛰는 홍보전략을"

이밖에도 치밀한 시장조사, 출판 전문인력 양성, 적극적인 홍보, 시대와 계층에 맞는 내용물의 포장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기획을 뒷받침하는 '뒷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한 권의 책을 내고 판매하기까지의 전후 작업은 다음에 내는 책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동화 부장(39)은 "독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옛 형식을 그대로 답습한 출간을 감행(?)하는 출판계의 일방적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한 권 내지 못한 이유임을 출판인들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장은 "출판계와 독자가 서로의 필요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호흡이 이뤄지지 않는 한 좋은 책도, 좋은 독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사람이 기획과 편집, 교정, 홍보까지 도맡아 하는 현상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출판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민족사 이상옥 부장(36)은 "안방에 앉아서 '우리 책이 좋다'고 외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홍보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책을 펴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부장은 또 "출판전문화와 유통구조 개선이 구조적 · 장기적 문제라면, 이들 요건들은 출판사들의 노력에 의해 지금 당장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라며 "홍보는 물론 책 내용 또한 시대와 계층에 맞는 포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편집장들은 모두 "지금이 기회"라고 말한다. 어려운 시대상황을 극복할 지혜를 불교에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그 틈새를 공략한다면 불교출판의 '호황'은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바쁨 연속…佛法·詩 삶의 에너지"

첫 시집 '벼랑위의 깃발' 낸 전용찬 경감



"직장에선 구두끈을 풀어볼 잠시의 휴식도 없는 숨가쁨의 연속이지만, 들꽃의 은은한 향기와도 같은 문학과 그 속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수 있는 불법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서울경찰문인회 회장인 전용찬 경감(행정자치부 치안정책보좌관)은 자신과 늘 함께하는 불법과 시를 삶의 에너지로 여긴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선(禪), 바람, 꽃, 구름, 파도' 등으로 채색되어 세상에 던져진다. 그의 첫시집 〈벼랑위의 깃발〉은 자신의 체험과 보편적 삶을 불교사상으로 걸러 시어로 녹여내고 있다. 전경감에게 일상의 모든 것은 다 시다. 그러나 그 일상의 진리가 불법에 있음을 자신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사람의 세속적인 다툼도/도덕, 윤리, 믿음의 본질도/모두/부처님의 섭리인 것을'〈'부처님' 중에서〉

그러면서도 '모름지기 선의 세계는/있음보다 있음을 지우는 무아에서/없음을 없음으로 가꾸는 몰아까지/면벽하는 일이다'〈'선의 세계' 중에서〉며 삶의 자리를 확인하는 자성(自省)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운다.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펨	여시아문
2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3	산에는 꽃이 피네	법 정	동쪽나라
4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 홍 근	여시아문
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 · 지현	민 족 사
6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7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8	염화인천	진 제	화산문화
9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10	참선교육	현 담	수선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 법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큰스님. 일타큰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Ⅱ.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Ⅲ. 베풀며 살자 / Ⅳ.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Ⅴ.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Ⅵ. 화두 드는 법 / Ⅶ. 마하반야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큰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B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스님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 주변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Ⅰ~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 無碍辯 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육성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02) 587 6612 · 582 6612 팩스 (02) 586 9078

서먼 · 스나이더 등 학자-문인들
'천년의 끝에 선 불교' 주제
샌프란시스코 선원서 매달 강연

출판계도 '불교와 미래' 등
밀레니엄 관련서 속속 펴내

美 불교계 새로운 천년 '준비'


◇로버트 서먼


◇페마 쵸드론


◇골드스타인


◇조안나 매시


◇피터 매티슨


◇수라 다스

21세기는 어떠한 세기가 될까. 2000년을 코앞에 둔 요즘 밀레니엄이란 말이 유행이다. 밀레니엄이란 '천년기' '황금시대'란 뜻. 최근 美 불교계는 대표적 지성인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첨단화 정보화 사회가 도래할 미지의 세계를 불교적 혜안으로 바라보고 불교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지를 분석하고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로버트 서먼(콜럼비아대 교수) 그레이 스나이더(시인) 페마 쵸드론(감포 선원장) 죠셉 골드스타인(작가) 등 미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자·문인·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천년의 끝에 선 불교(Buddhism at muillennium's edge)' 주제의 강연회가 1월부터 매월 한차례씩 샌프란시스코 선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다가오는 천년을 위한 윤리(Ethic for the Next Millennium)〉, 〈불교와 미래(Buddhism and Future)〉 등 밀레니엄과 불교를 연관시킨 책들의 출간도 늘어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선원(원장 놀만 피숴)이 오는 12월까지 여는 '천년의 끝에 선 불교' 주제 강연회는 새로운 천년을 앞둔 인간이 느끼는 기대와 두려움의 원인을 밝히고 불교적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연회가 끝나는 12월에는 모든 발제자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피숴원장은 "20세기가 폭력과 혼란의 시대였다면 새로운 세기는 전혀 달라질 것이므로 고래(古來)의 지혜를 일깨워 동양의 이상(理想)을 서양에서 실현시키겠다"고 말한다.

이번 강연회에서 로버트 서먼교수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것:추락인가 비상인가'에서 "인간과 자연을 다시 통합하고 역동적 세계를 전체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과 의식개혁이 뒤따를 때에만 불교가 이 전환기에 시대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선(禪):선의 대화'에서 그레이 스나이더는 "인간의 우월주의를 버리고 동·식물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협동의 철학을 창출할 때 대립을 상호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매티슨(작가)은 '긴 여정:선(禪)과 글쓰기'에서 "변화의 순간에는 상호의존적인 연기사상과 중도사상으로 화합과 협력을 유도해 극단을 배제해야 한다"며 불교적 가치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조안나 매시교수(버클리대)가 '인드라망 속에서 깨닫기', 죠셉 골드스타인이 '통찰과 활동', 페마 쵸드론스님은 '타인과의 친밀성을 인정하는 것'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주요 출판사인 푸트남 펍 그룹에서 출간된 〈다가오는 천년을 위한 윤리〉는 티벳승왕 달라이 라마와 종교학자 알렉산더 놀만의 공저로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고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 걸맞는 불교 가치관을 제안하고 있다.

도첸선원장인 수라 다스가 쓴 〈불교와 미래〉(하퍼 콜린스 刊)는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내면의 선을 키워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고대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때 21세기는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처럼 새로운 세기와 불교를 연결시킨 책들의 출간은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인권 · 사회개혁 사이트

국제참여불교연합등 세계평화 '지원'
불교의 비폭력 · 불살생 가르침 전해

평화, 인권, 사회개혁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사이트가 있다.

△국제참여불교연합(International Network Engaged Buddhism) 사이트는 아시아 불교신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연대를 이끌기 위해 1989년 결성된 단체. 마하 고사난다스님(캄보디아)의 '지뢰퇴치운동' 미얀마와 태국 등의 '대안교육운동' 등 아시아에서 자생하고 있는 평화, 인권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인도, 스리랑카, 미국, 프랑스, 호주 등 각국에 소재한 지부의 게시판도 열람할 수 있어 세계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대안 운동의 종류와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닌 동등한 존재로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불교인권선언'의 전문도 열람할 수 있다. 이 선언문은 '불교와 인권'을 주제로 인터넷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 △불교실천윤리(Journal of Buddhist Ethics) 사이트에서 채택된 것. 이 선언문은 첫째 인간은 불교의 비폭력 불살생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둘째 인간은 인종, 종교, 정치·사회적 입지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셋째 모든 인간은 환경과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교지도자(Pictures of Renouned Buddhist Teachers) 사이트는 아시아 ·미국·유럽 등에서 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교지도자들의 정치·저술 활동과 인물사진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곳에서 제공하는 인물 중에는 달라이 라마(티벳), 아잔 차(미얀마), 틱낱한(베트남), 죠셉 골드스타인(미국), 로버트 액킨(영국), 슬락 시바락사(태국) 등이 있다.

이외에도 평화·인권·사회개혁 등을 주제로 한 논문도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기어 교수(아이다호대학·http://www.netiran.com/) 사이트는 "역사상 비폭력운동을 최초로 이끈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라고 밝히고 있다. 두 종교는 인간의 마음 속에 도사리는 '혐오'를 불교는 자비로 기독교는 연민으로 각각 다스려 왔다"며 '비폭력 운동에 있어서 간디와 부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또 △불교실천윤리에서는 갈필드 교수(햄프셔대학·영국)의 '인권과 자비', 홍라다룸교수(출라롱콘대학·태국)의 '슬락 시바락사와 프라 담마피독의 사상에 나타난 불교와 인권' 데이비드 키온교수(런던대학·영국)의 '불교에 인권사상은 있는가', 파우어스교수(호주국립대학·호주)의 '인권과 문화의 가치-달라이 라마와 중국의 정치적 입장' 등의 논문을 제공한다. 이들 논문들은 다운로딩(가져오기)이 가능하다.

오종욱 기자

- 국제참여불교연합 http://www.igc.org/bpf/ineb.html
- 불교지도자 http://www.ncf.carleton.ca/dharma/introduction/teachers.html
- 불교실천윤리 http://www.gold.ac.uk/

"18~19세기 한국불교사 연구"

美 버클리대 박사학위 취득
12년만에 귀국한 **진월스님**



인터뷰

"연구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18~19세기의 한국불교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86년 미국 유학길에 오른 뒤, 올 봄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2년만에 귀국한 진월스님. 박사논문 '초의의순(意恂)-조선후기 예술가이자 무애선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스님은 앞으로 "조선후기 원융무애했던 선사들의 불교사상을 연구, 오늘에 재현하고 싶다"고 귀국 소감을 피력했다.

스님은 박사논문에 대해 "다성(茶聖)으로 잘 알려져 있는 초의선사는 당시의 문화와 지성사를 주도했던 중요 인물이었다"며 "조선후기의 포괄적이고 초월적인 불교사상을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이 세계종교연합운동인 UR(United Religion)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원융 무애한 불교사상의 실천"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또 2학기부터 동국대에서 '비교종교학'과 '종교심리학'을 강의하게 되는 진월스님은 "미흡하겠지만 외국에서 견문을 넓히고 온 만큼 젊은 학생들이 세계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다"며 연구실도 설립, 젊은이들에게 불교연구의 장을 제공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학술단신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제10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를 22일~23일 정신문화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7개국 23명의 관련 연구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회의 불교학 분과발표는 로버트 버스웰 교수(캘리포니아주립大)의 '한국학 불교텍스트 영역에서의 제문제와 도전-원효를 중심으로'가 있을 예정이다. (0342)709-9552

'한국선사상연구' 영문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은 최근 11편의 선(禪)관련 학술논문을 수록한 〈SON THO-UGHT IN KOREAN BUDDHISM〉을 발행했다.

84년 발행됐던 〈한국선사상연구〉의 영문판으로, 한국 선사상의 세계화를 위해 평이한 내용으로 보완했다. (02)260-3500

삼학원 수강생 모집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원장 지관스님)은 98년도 여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선전강독, 한국불교금석학 등 △불교원전 연구과정과 팔리어, 범어, 티벳어 등 △불교어학연수 과정이 개설돼 있다.

강의는 25일부터 8월29일까지. (02)765-9602

"부처님 최초설법 여성성불 제시"

원영스님 '불교에서의 여성관' 발표



"여인 성불에 대한 논쟁은 경전의 성립시기와 함께 변화한 것이다. 여성성불사상은 부처님의 최초 설법에서 제시됐다."

원영스님(성철선사상연구원 부원장)은 13일~14일 해인사 홍제암에서 열린 한국여성학회(회장 조은) 14차 워크샵 '불교에서의 여성관-여인 성불사상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경전속에 나타난 여성성불론 고찰을 통해 여성성불사상이 부파불교에서 왜곡되고 대승불교에서 다시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대로 분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교가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하여 남녀차별사상을 갖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부처님께서 여인의 출가 조건으로써 팔경법(八敬法)을 두었다 하더라도 당시 인도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부처님 재세시에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 스님은 "여성이 성불할 수 없는 다섯 가지의 장애(五障說)를 말한 율장은 여성 천시사상이 강력했던 부파불교 시대의 산물"이라며 "이후 정토계 경전과 용수 이전의 초기 대승불교시대에는 변녀성남(變女成男)을 말하며 〈승만경〉 등 대승불교 후기 경전에는 여신성불(女身成佛)을 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마경〉에서는 대승 공(空)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남녀의 상(相)이란 분별에 불과, 무생인을 얻고 보면 남녀의 분별이 없어진다고 설하고 있다.

또 여래장사상이 성립된 불교의 중기, 3세기 경 〈승만경〉에는 이에 근거하여 여신으로서도 즉시 성불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 이밖에 여래장계통의 경전인 〈열반경〉에서는 결코 성불할 수 없는 한 무리의 사람들, 즉 일천제(一闡提)를 설하고 있는데 그 속에 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영스님은 "사회적 영향을 받은 경전의 내용과는 달리 불교는 본래 모든 사람이 하고자 한다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평등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롭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불교 EQ ❶❷
☞ 불교 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동의보감3권 가정종합대학3권

IMF 긴급자금조달 특별할인판매


동의대보감 (上)
동의대보감 (下)
동의대보감 원본
정 가 전3권:
₩650,000원
· 체제 4×6배판/백색모조/120아트 칼라화보사진 3,000컷/총3,000여쪽/다권 레자가죽케이스/총무게 12.5kg 영구보존

1

2
5만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회생활의 대총람

3


체제 신국판/백색모조/총6,000여쪽/각권 항장 케이스
박종화 문학전집 전15권 정 가₩120,000

월탄 박종화 선생님의 대표작
◉ 지고가는 저구름이 전 5권
◉ 아름다운 이 조국을 전 5권
◉ 청산의 인품 옮듬 전 5권

◉ 동의보감의 특징
◆ 특수처방 비법의 한방용어를 알기 쉽게 수록하였다.
◆ 돈, 량을 g으로 표시하여 알기 쉽게 되어 있다.
◆ 중세; 처방 먹는 용법이 쉽게 수록되어 있다.
◆ 기존 한약값의 1/5만 가지고 직접 한약을 지어 복용할 수 있다
◆ 기존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 동의보감 특수처방 비법
◆ 학생, 수험생들의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비법.
◆ 70대가 30대의 정력을 유지하는 비법.
◆ 당뇨, 고혈압, 신경통, 류마치스를 시원하게 낫는 비법.
◆ 산후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 감쪽같이 낫게하는 비법.
◆ 특수 한방요리 및 불로, 신선차 만드는 비법.
◆ 아들, 딸 구별하여 낳는 특수 비법.
◆ 특수 침술·지압·미용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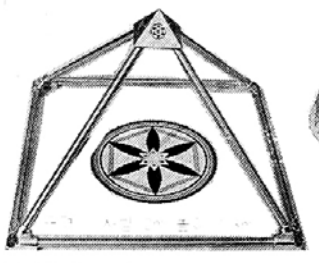
책임감수
홍문화 회사회사재기일장학장의사장규장
이박경제봉구수돈원의사장규장
김연박사정구수돈원의사장규장
최원박사일장학장
이원익원

◉ 가정종합대학(上中下)의 주요내용
효, 예절, 엄, 가정의례, 의학, 지혜, 생활경제, 취미, 교양, 미용, 관광, 나의뿌리, 장수하는 불로초(무공해 치료식품), 한방요리, 현대의학, 자녀교육, 청소년지도, 동양철학, 관상, 수상, 돌상, 생일, 수연, 회갑, 상례, 제례, 지방, 축문, 풍수지리, 명당자리, 입춘대길, 충효, 효부, 효자, 효성, 부모자식예절, 술, 차, 의식주예절, 삼강오륜, 직위, 촌수, 명문, 종가집, 축가, 축사, 연말연시 인사, 화술, 최면술

경영실무·소기업-대기업
· 체제 변색모조/4·6배판/총3,000여쪽/내지 칼라사진 및 흑백사진/레자가죽 칼라카버.
· 표지 고급케이스 영구보존 기포 225×세로315×두께95
· 총무게 : 15Kg · 정가 : ₩680,000

특별할인판매
●구입방법●
· 정 가 : ~~350,000~~
· 특별현금가 : 148,000
· 할부가 : 49,500×4회
(02)253-3626~8
한국전통예절중앙회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밋 허란야!


피라밋 모자


피라밋 모자

〈특허청 의장특허 등록 NO.204454〉 피라밋 모자
「의료용 '氣' 발생기」 의장등록원 NO.1822, 1823, 1824

◆ 피라밋 안에서 명상이나 취침시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과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체질이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한 형 조

무릇꾼 탐방

54

마조의 딱지돈 ⑤

"매실이 익었다 가서 따 먹어라"

팔만 언설 방편은 우는 아이 달래는 '딱지돈'

마조는 탁월한 지도자였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솜씨 또한 다양하고 직절했다. 그의 대에 이르러 선종은 실질적인 세력을 얻고 번성을 기약한다. 문하에 8백의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인물만도 130명, 가히 선종사의 장관을 연출했다.

대매법상(大梅法常 752~839)도 그 기라성 가운데 하나이다. 속성은 정씨. 호북의 양양사람으로 어려서 형주의 옥천사에서 출가했다. 그의 전기는 〈송고승전〉 권11에 자세하다. 그가 마조를 찾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이다(卽心是佛)"이 말에 대매가 문득 깨달았다. 그후 정원 12년(796) 절강의 대매산(大梅山)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 마조는 그런 그가 궁금하여 사람을 보냈다. "마조스님한테서 무슨 가르침을 들었기에 이런 산속에 숨어 지내십니까."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을 들었지." "요즈음은 좀 달리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인가."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非心非佛)고 하십니다." "그 늙은이가 언제쯤이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망발을 그치실꼬. 설사 그리한다 해도 나는 '마음은 부처다'를 지키겠다." 경위를 듣고 난 마조가 말했다. "매실이 익었다!"



그림 · 이준석

이 일화에 대해서는 군더더기 설명을 삼간다. "마음은 부처이다"와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는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킨다.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는 더욱 직절하고 상쾌하다. 팔만삼장(八萬三藏)의 모든 언설은 망집을 부수기 위한 방편이다! 불교를 수놓고 있는 변증이나 상호모순적 발언들이 그런 점에서 '반쪽의' 동일한 진리치를 갖는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가 겁약과 비관에 빠진 자들을 독려하는 약이라면,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는 자만과 낙관에 부푼 자들을 향한 경고이다. 이 모두는 그러나 "열매가 익은" 대매에게는 옛이야기일 뿐이다. 방편을 넘어 실제(實際)의 세계를 임운(任運)하고 있는 그에게 '우는 아이 달래는 딱지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어른이 된 대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천지를 울리고 있는 듯하다. 마조는 대매가 본래의 건강을 되찾았음을 인가했다. 그러니 더 이상 약을 투여할 필요가 없다(病盡藥除, 還是本人). 아니, 이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약을 투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약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 건강한 몸에 약이란 바로 독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역설적 권유, 양가적 태도의 진원지가 바로 여기이다. 혜개는 그래서 "부처를 말했다면 사흘동안 입을 씻으라"고 권한다. 또 "진정한 대장부라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따위의 소리에 귀를 막고 도망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저간의 소식을 마조는 다음과 같이 직절하게 일러주고 있다. 한 승려가 마조에게 물었다. "어째서 마음이 곧 부처라 하십니까."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울음을 그치면 어떡하시렵니까."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 하련다." "울지도 않고 울다가 그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면 뭐라 하겠습니까." "대도(大道)를 통째로 안게 하지."

끝으로 별 중요하지 않은 객담 하나: 대매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마조가 아니라 염관이라는 설이 있다. 〈마조어록〉 부록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대매가 마조에게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조사가 이리 온 뜻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아무런 뜻도 없단 말씀입니까." "네 마음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을 알라." 이 말에 대매는 문득 깨달았다. 그후 대매는 석장을 짚고, 구름이 걸린 대매산을 올라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는 두번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염관의 제자 하나가 나무를 구해 산을 올랐다가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 문득 보니 풀잎을 엮어 걸치고 꽁지머리를 한 남자 하나가 너와 오두막에 살고 있었다. 인사를 건네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 가운데 "나도 마조스님을 뵌 적이 있지!"라는 말은 알아들었다. "여기서 사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몇년이나 됐을까. 산색이 푸르렀다가 누래지고, 다시 그러기를 글쎄, 한 서른 번?" "마조스님 밑에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 문답이 있고 난 후, 염관의 제자는 내려가는 길을 물었고, 대매는 골짜기의 물을 따라 내려가라 일러 주었다. 자초지종을 듣고난 염관은 "강서에 있을 때 마조스님이 어느 스님의 질문에 '네 마음이 곧 그것이다'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들은 적이 있네. 그 후 30년동안 그 중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마 그 사람인 듯하구만. 혹 그를 다시 보거든 요즘 마조스님은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해 보게."

제자 하나가 산 속에서 대매를 만났고, 예의 스승이 시킨 대로 했다. 대매는 아랑곳않고 "그렇다고 해도 나는 마음이 곧 부처일 뿐"이라고 잘랐다. 소식을 들은 염관이 감탄하며 말했다. "서산의 매실이 익었다. 가서들 마음대로 따먹어라." 이리하여 2,3년 사이에 대매산으로 수백의 대중이 모여들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마음속의 미덕을 발휘하자"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4

정업 ④

팔정도에서 '내면의 알아차림'은 가장 근본적인 수행자의 자세로 꼽힌다. 이것은 우리 마음 속의 탐욕, 망상, 해악 등으로 다른 무정 유정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준다.

그런데 '내면의 알아차림'은 마음 속에서 이러한 것들의 상대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아량, 자각 등을 길러주는 역할도 한다. 사랑은 해악의 상대적 감정이고 아량은 탐욕, 자각은 망상의 상대적 감정이다.

범어로 '기르기(cultivate)'의 뜻은 '계율 다듬기(training precepts)'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는 불살생 등 다섯가지 계율을 수지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면, 그 계율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계지김의 과정에서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갖게된다. 그 힘은 다른 어떤 힘보다도 탁월한 것이다.

계지김의 과정에서 '절제'와 '기르기'를 익힌 수행자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율을 넘어선 경지(abhisila)'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율을 넘어선 경지'란 팔리어 abhi(~을 넘어서)와 sila(계율)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본래 그대로의 미덕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성인, 스승을 흉내내려 한다. 그런 사람들은 수행자라기 보다는 그들의 복사판이나 영인본이며, 마음을 뺀 허수아비일 뿐이다.

옛날에 왕의 말을 다루던 조련사가 죽자 왕은 새 조련사를 고용했다. 딱하게도 이 조련사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였다. 그런데 새로 들여온 종마(種馬)들이 하나같이 다리를 절며 달리는 것이었다. 마침내 왕은 조련사를 불렀다. 조련사가 궁중으로 들어올 때 다리를 절면서 걷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왕은 즉시 다른 조련사를 채용했다.

> "성인 · 스승 흉내내면 마음을 뺀 허수아비 지혜로 삶을 꿰뚫어 보라"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미지나 겉모습을 흉내내지 말고 내면적 완성 쪽을 돌이켜 보도록 일러줬다. 내면의 지혜를 모범으로 삼고 스승의 절름발이 걸음새를 모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덕과 그 힘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빛나는 지혜로 삶을 꿰뚫어 보고 단지 한 개인으로서 세상을 살고 있다는 분별심을 극복해야 한다. 생각해 보라. 우리의 정원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유정 무정물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마음은 본래 선(善)한 것이다. 비록 그 속에 탐욕, 해악, 망상이 있다고 하지만, 그 뿌리는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저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잊어버린다.

탐욕, 망상, 해악에서 벗어나고자 원한다면 먼저 이 감정들이 '우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즐거움도 우리의 감정인 것처럼 고통의 감정도 일부분이다. 만약 우리가 이 같은 단계를 밟고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우리는 계율을 지키기에 급급하지 않고 파기(破棄)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 속에 '자각(自覺)'이 가득찬 평온감, 주변의 모든 유정 무정물과의 연대감을 갖게된다.

한 성인이 오지의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날 저녁 성인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다음날 새벽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성인은 이미 이 곳을 떠났고, 그가 머물렀던 방의 벽에 '평범한 일(trivia)! 평범한 일! 평범한 일!'이라는 글귀만이 남아있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성인이 남긴 글귀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수행을 하던 한 스님이 "아! 이것이 불법이구나"라고 탄복하며 성인을 찾아 떠났다.

스님이 탄성을 지른 불법은 무엇일까? 수행자는 일상의 '평범한 일'을 무시하고 보지 않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면(마음) 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고 평범한 일이라도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순간에도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평범한 일은 바로 우리 마음 속 내면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3

불교와 수학

58

인간의 흔들림

김 용 운

고사리 잎의 각 부분은 전체구조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자기닮음(프랙탈) 구조의 전형이다. 또 원자핵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맴도는 전자가 있다. 그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는 우주구조와 같다. 이와같이 모든 현상에는 부분과 전체 또는 미크로와 마크로의 구조가 있다.

나무모양을 생각해 보자. Y자형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그것은 산맥이나 강줄기에도 볼 수 있다. 다만 나무종류, 또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는데 한결같이 전체와 부분이 같은 프랙탈적인 구조는 공통적이다. 이 사실은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주 150억년의 시간과 인생 100년의 시간에도 프랙탈적인 구조의 일치가 예상된다.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 한다'는 말도 생각이 난다. 발생생물학에서는 수정후 32일이 된 인간의 태아에는 고대 난골어류의 것과도 같은 아가미가 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4억년전에 있던 물고기의 모습과 같다. 34일이 지나면 코가 입에 이어지는 양서류의 얼굴이 되고 36일에는 3억년전 원시 파충류의 모습이 된다. 38일에는 폐로 호흡이 가능해지고 원시 포유류의 얼굴이 생기고 40일째에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진다. 지구가 1억년에 걸쳐서 진행해온 생물진화의 역사를 겨우 8일 동안에 태아는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루의 삶이 평생의 무게와 같고 인류 백만년의 그것과도 필적한다. 생물사 1억년이 태아의 8일에 해당한다는 신비로움에 경외의 마음이 절로 생긴다.

> 생물사 1억년 태아 8일에 해당
> 우주 150억년 인생 100년에 응축
> "인간은 우주의 한 조각 이나 '티끌속 우주' 아는 고귀한 존재"

의상대사의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이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있는 것은 그대로 공간적으로도 있다. 다시 의상대사의 말을 인용한다면 '일념즉시무량겁'이라는 말과 같이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임을 말하고 있다. 태양계의 구조와 원자구조가 같음은 앞에서 말한 대로이다. 이 사실은 프랙탈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크기가 문제시되지 않음을 뜻한다. 모양새만을 본다면 그 크기에 대해 절대적인 척도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대상은 그 모양과 같은 부분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부분은 또 그것과 똑같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모양을 부분적으로만 관찰할 때 실제의 크기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와같은 세계를 만다라에서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우주의 나이 150억년을 인간의 생명인 100년으로 응축시킬 때 겨우 1초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짧은 순간에 우주의 진화 전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생애는 결코 미리 정해져 있는 궤도에 따라 마치는 것은 아니다. 흔들림 속에 온갖 선택의 가능성을 지닌다. 집단의 평균적, 또는 이에 대해서 벗어나는 일을 표준에서의 흔들림이라 한다. 인간의 귀함이 바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야기된 흔들림에 있는 것이다. 이 흔들림은 남에 의해서 정해진 인생의 궤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의지를 발동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의상대사가 말한대로 "티끌 속에 전 우주를 넣고, 일순간에 전우주의 역사를 응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자연 속에서 가장 허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것을 짓누르는데는 전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사소한 한 방울의 증기가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우주가 그를 짓누르는 한이 있어도 인간은 우주보다 고귀한 존재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죽는 것과 우주가 인간을 초월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주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 전우주가 티끌에 내포되고, 순간에 무량겁의 시간이 응축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인간은 공에서 우주가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작은, 아주 작은 흔들림에서 태어났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주는 150억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 우리 인간은 우주의 한조각이다. 그 한조각에 불과한 인간이 우주의 끝을 생각하고 그 시작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내 스스로 우주를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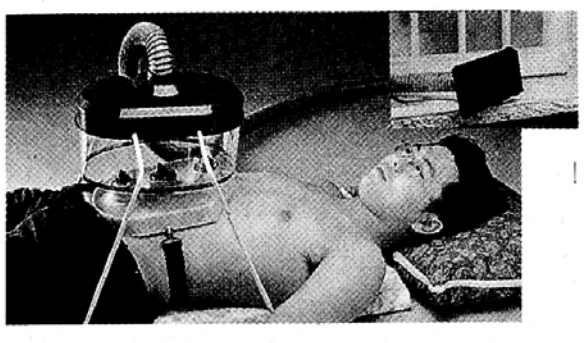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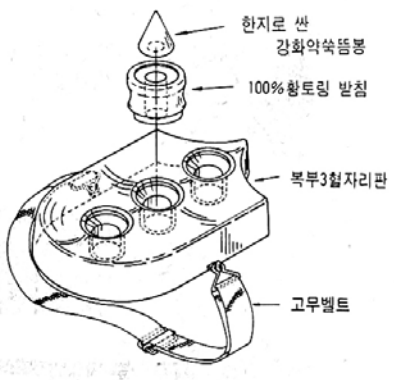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80,000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왠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보급가격 : ₩13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 · 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 · 교 · 조 · 각 · 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우강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생활한복, 불자의 옷 '자리매김'

참선 · 예불등 법복으로 제격
쪽빛 · 쑥색 · 치자색 · 민색등
전통염료로 물들여 아름답다
30~40대 보살 · 거사들 '애용'
사찰 유치원생복으로도 채택

아름다우면서 편한 옷.

생활 한복입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절에 가는 날 입는 옷도 기존의 법복에서 생활한복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회색 법복에서 벗어나 쪽빛, 쑥색, 치자색, 감색, 소색, 민색, 무색 등 전통염료로 물들인 생활한복을 차려입은 신도들의 수수한 아름다움이 법당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구룡사 유치원, 숭인동 청룡사 유치원, 봉은사 종무소, 부산의 삼광사 유치원 등이 원복이나 유니폼으로 생활한복을 입고 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행사용으로 생활한복을 장만했고,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청년회가 법회날 입기 위해 생활한복을 장만해 신도들에게도 퍼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생활한복을 원복으로 택한 구룡사, 청룡사 유치원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무척 좋아한다. 두 유치원 모두 노란색 바지(치마) 저고리를 채택해 입히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하복도 생활한복을 구입할 방침이다. 삼광사 유치원은 동복·하복 모두 마련했다. 하복의 경우 남자어린이는 연쑥색 바지 저고리를, 여자어린이는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수업을 받는다. 매주 한시간씩 참선수업을 하는 청룡사 유치원의 경우 원아들이 한복차림으로 참선에 들어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신도들의 잿빛 법복 착용은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스님들은 "여자신도들이 화장을 한채 회색법복을 입은 모습은 상당히 어색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복은 선이 부드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데다가 몸매가 드러나지 않아 상을 초월할 수 있는 불교적인 옷"이라고 평하고 있다. 참배를 올리거나 참선을 할 때도 편안한 자세로 임할 수 있어 법복에 못지 않게 효과적이다.

절이 가는 불자들이 선호하는 한복 디자인은 바지스타일. 남녀를 불문하고 바지를 찾는 이유는 절하기 편리하고 운신의 폭이 치마보다 넓기 때문이라고. 이제는 절에 갈 때 생활한복으로 단장한다는 김무상심보살은 "편안함에 끌려 입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절에 갈 때 꼭 챙겨입는다"며 "편하면서도 격식을 차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다"고 말한다.


◇아이들에겐 생활한복이 더 편하고 자유롭기만 하다.

개개인은 물론 단체복으로 애용되는 등 생활한복이 대중화되면서 제작업체들도 늘어났다. 제작업체들은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생활한복들을 선보이고 있어 소비자층 확대에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계사 앞에 생활한복 바람이 불어왔다. 연지곤지, 예진솔, 돈오하우스 등 전문매장들도 문을 열었다. 전북불교회관의 경우 자체 관내를 실시하고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거리장터에서도 생활한복 매장이 10여개나 설치되는등 불교계에 생활한복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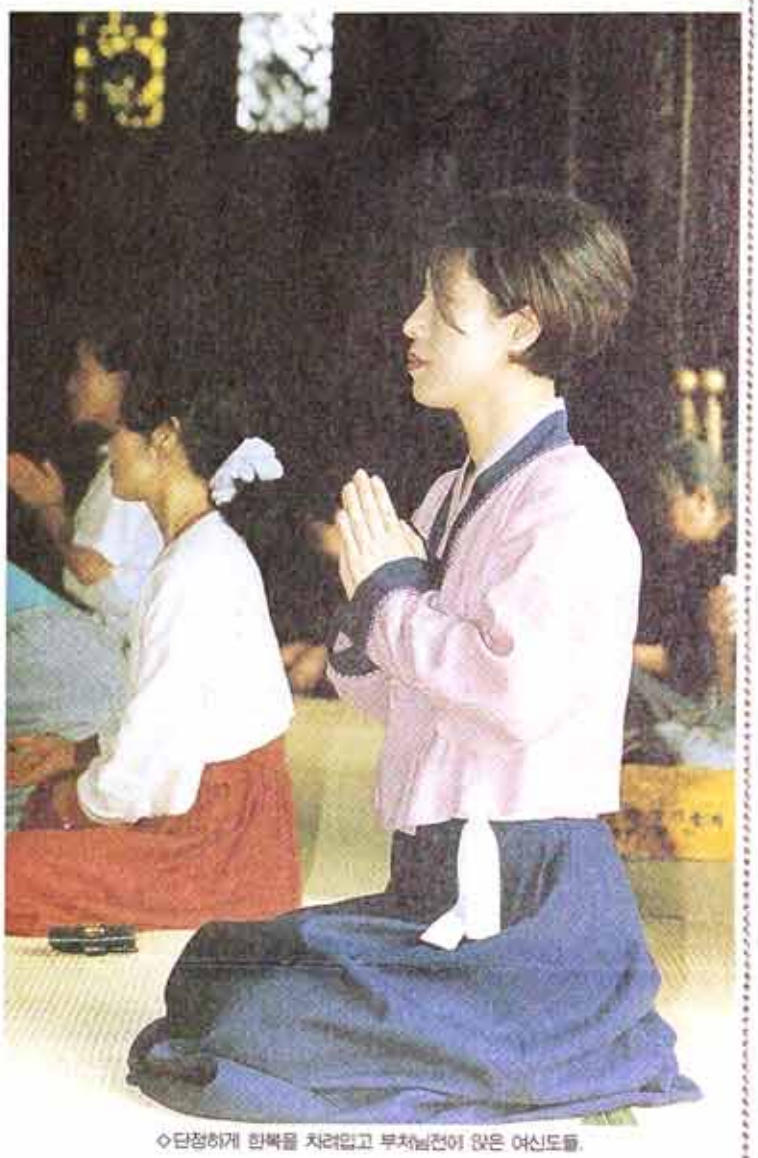
93년 이후 파리콜렉션 '오트쿠튀르'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해 왔던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씨도 올해 4월 생활한복 브랜드 '한울'을 선보였다. 이씨는 "10여년 전만 해도 생활한복을 만들어도 전통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했지만 이제는 과리감각으로 생활한복을 만들겁니다"라고 말했다.

가격은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른 10만원에서 20만원, 어린이는 6만원에서 10만원 선. 단체복을 주문할 때도 30벌~50벌이상 주문하면 5%~3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모시 명주 소재의 40만원~80만원대를 호가하는 제품도 나왔다. 이처럼 생활한복이 다양해지면서 업체난립으로 인한 디자인의 저급화와 함께 지나치게 고가화하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복문화연구회 조효순회장은 "한복을 21세기 세계 속의 문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한복의 올바른 전수방법과 생활한복의 재창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편리하면서도 한복 고유의 정체를 잃지 않는 디자인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서 '우리 것을 찾자'는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신도들의 희색 법복 착용을 꺼리는 스님들의 지도에 힘입어 생활한복이 절에 가는날 입는 옷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부처님전에 앉은 여신도들.


◇바지차림은 절에서 참배하기 쉬워 신도들이 즐겨입는다.

생활한복 입으려면
속저고리 입어야 예의
장식없는 단화 어울려

생활한복을 어떻게 하면 좀더 세련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까.

편안한 옷이라는 인식 때문에 갖춰 입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활한복이라도 정장이나 외출용, 특히 사찰에 갈 때는 제대로 차려입어야 예를 갖춘 옷차림이 된다.

기본적인 옷차림은 여자의 경우 조끼와 치마, 허리부분에서 연결된 원피스형 조끼허리치마와 둥근깃 저고리이고, 남자의 경우 바지와 저고리인데 그 안에 속저고리를 꼭 받쳐입어야 한다. 생활한복이라도 남자두루마기는 실내에서 손님을 맞을 때도 입는 것이 원칙이다. 여자는 벗는 것이 예의.

생활한복을 고를 때는 화사한 색상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다. 진열되어 있을 때는 촌스러워 보여도 입으면 화려해보여 젊은층에서 선호하고 있다. 젊은층의 경우 원색적인 강렬한 색상을 매치시켜 입어보는 것도 좀더 튈 수 있는 방법이다.

남자와 여자조끼는 모두 바지나 치마와 같거나 비슷한 색상으로 선택하면 키가 커보이고 날씬해 보인다. 조끼 안에 받쳐입는 속저고리는 명도가 낮거나 아예 튀는 색이 좋다.

생활한복을 입을 때 신경써야 될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신발. 고무신을 신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이보다는 깔끔하게 장식이 없는 단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통모양을 본딴 가죽신들도 나와 있지만 8~9만원하는 신발을 장만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단화를 활용하는 것이 절약의 한 방법. 여자의 경우 원피스나, 롱스커트 형태는 하이힐도 무난하게 어울린다. 단 남자 여자 모두 운동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

악세서리를 착용할 때는 화려한 장식이나 요란한 색채는 피해주는 것이 예의다. 단아한 느낌의 심플한 디자인이나 젊은층의 경우 무채색의 인디언풍 악세서리도 무난하다.

◇주요 생활한복 업체

브랜드	연락처
연지곤지	(02)3461-8552
예맥	(02)737-0803
한마음	(02)739-1401
여럿이 함께	(02)3142-1001
김경이 우리옷	(02)744-5606
예진솔	(02)736-5160
돈오하우스	(02)732-3154
한울	(02)547-0638
돌실나이	(02)745-7451
우리들의 뱃	(02)392-9114
삼매야	(02)333-2009
아라가야	(02)723-0442
한울타리	(02)3143-0607
한겨레	(02)743-8934
뮤비어천가	(02)765-5255
자연의 벗	(02)736-2901
강강술래	(02)723-3937
새내	(0371)734-1133
대님	(051)625-4547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청년회는 생활한복을 맞춰입고 군법당 등에 위문공연을 다니고 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적멸보궁 자명사 개원 대법회

한국 최대 백옥 와불 이운식


주지 효성스님

풍수중 산지학에 안내 받히고
구만산 바라보며 피어난 연화장에
그 위용 당당히도 우뚝 솟은 자명사
이르란 말씀이오 솟구어니 나투시고
안온히도 누워 계신 백옥 와불님!

2천5백년전부터 태국 승왕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될 적멸보궁이 강원도 홍천 구만산에 건립되었습니다.

적멸보궁 자명사(慈明寺)는 4천여평의 대지에 1차로, 지상2층 지하1층의 연건평 3백50평규모의 무설전과 요사채를 낙성하고 오는 7월5일 개원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또한 개원법회에 맞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과 국내 최대 규모(길이 3m · 무게 4t)의 백옥 와불(臥佛) 이운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친견하는 그 순간 마음이 시원하게 맑아지는 법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백옥 와불은 태국에서 조성돼, 대만 放生인대사(號印 · 前 대만 만불사주지)와의 각별한 인연으로 한국에 모셔져 이번에 자명사에 봉안되는 것입니다.

적멸보궁 자명사 개원 대법회에 전국의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 진신사리 및 백옥 와불 친견의 인연 공덕으로 해법(慧法)이 충만하시길 삼가 기원합니다.

구만산 적멸보궁 자명사 주지 효성 합장


◀무설전에 오신 국내 최대 백옥 와불 추불탱화는 10대 제자상으로 조성됐다


▼홍천 구만산에 조성된 적멸보궁 자명사 전경

· 대 법 회 안 내 ·

■증 명 : 한국불교 법륜종 종정 — 秉대종사
대한불교 총화종 前종정 冶鎔대종사
대만 만불사 부주지 上常노사
(대만성 자명성공高校 간사장)

■일 시 : 1998년 7월5일(음 윤5월12일) 오전 11시

■장 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산84
적멸보궁 자명사 ☎ (0366)434-1571/435-1571

◆교 통 편 : 철도 경춘선 강촌역에서 광봉산방향으로 15분거리
(강촌역서 자명사行 셔틀버스가 운행합니다.)
· 서울지역 출발/용마산 입구에서 정시당일 오전 7시 출발합니다.
(춘천 구의역에서 미리버스를 타시면 편리하게 옵니다.)

용암사 ☎ (02) 446-1571

* 자명사는 개원을 맞아 만등으로 무명을 밝힙니다. 만등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범지품 (梵志品) ①

載流而渡 절류이도
無欲如梵 무욕여범
知行已盡 지행이진
是謂梵志 시위범지

애욕의 흐름 끊어 건너고
욕심 없기가 범천같아
지어감이 이미 다한 줄 알면
이를 일러 범지라 한다

以無二法 이무이법
淸淨渡淵 청정도연
諸欲結解 제욕결해
是謂梵志 시위범지

둘이 없는 그 법으로써
맑고 깨끗해 못을 건너고
온갖 욕심의 결박에서 풀리면
이를 일러 범지라 한다

遺彼無彼 적피무피
彼彼已空 피피이공
捨離貪婬 사리탐음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셔서
일체의 어둠을 비추시네

非剃爲沙門 비체위사문
稱吉爲梵志 칭길위범지
謂能捨衆惡 위능사중악
是則爲道人 시즉위도인

머리를 깎았다고 사문이 아니다
법에 맞아야 범지라 이르나니
이른바 온갖 악을 잘 버린 이
그를 곧 도인이라 한다

出惡爲梵志 출악위범지
入正爲沙門 입정위사문
棄我衆穢行 기아중예행
是則爲捨家 시즉위사가

악에서 뛰쳐남이 범지가 되고
바른 도에 드는 것이 사문이 된다
나의 온갖 더러운 행을 버리면
그를 곧 출가인이라 한다

若猶於愛 약의어애
心無所著 심무소착

어딜가나 대상에 마음 두는게 없고 탐욕 음심 다 버리면 '범지'라 이른다

是謂梵志 시위범지

어딜가나 대상에 마음 두는게 없고
이경계 저경계가 다 텅비어
탐욕 음심 다 버리고 여의었으면
이를 일러 범지라 한다

思惟無垢 사유무구
所行不漏 소행불루
上求不起 상구불기
是謂梵志 시위범지

오로지 때없는 천진을 생각하고
행하는 일에 번뇌 없어서
더 구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으면
이를 일러 범지라 한다

日照於晝 일조어주
月照於夜 월조어야
甲兵照軍 갑병조군
禪照道人 선조도인
佛出天下 불출천하
照一切冥 조일체명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나고
갑옷과 병기는 군사를 빛내고
선정은 도인을 빛내며

已捨已正 이사이정
是滅衆苦 시멸중고

만약 애욕에 의지한
아무런 집착도 마음에 없어
이미 버려 마음 바르면
이는 온갖 괴로움 없앤 것이다

身口與意 신구여의
淨無過失 정무과실
能捨三行 능사삼행
是謂梵志 시위범지

몸·입 그리고 뜻이
깨끗하여 허물이 없고
능히 신구의로 업을 짓지 않으면
이를 범지라 한다

若心曉了 약심효료
佛所說法 불소설법
觀心自歸 관심자귀
淨於爲水 정어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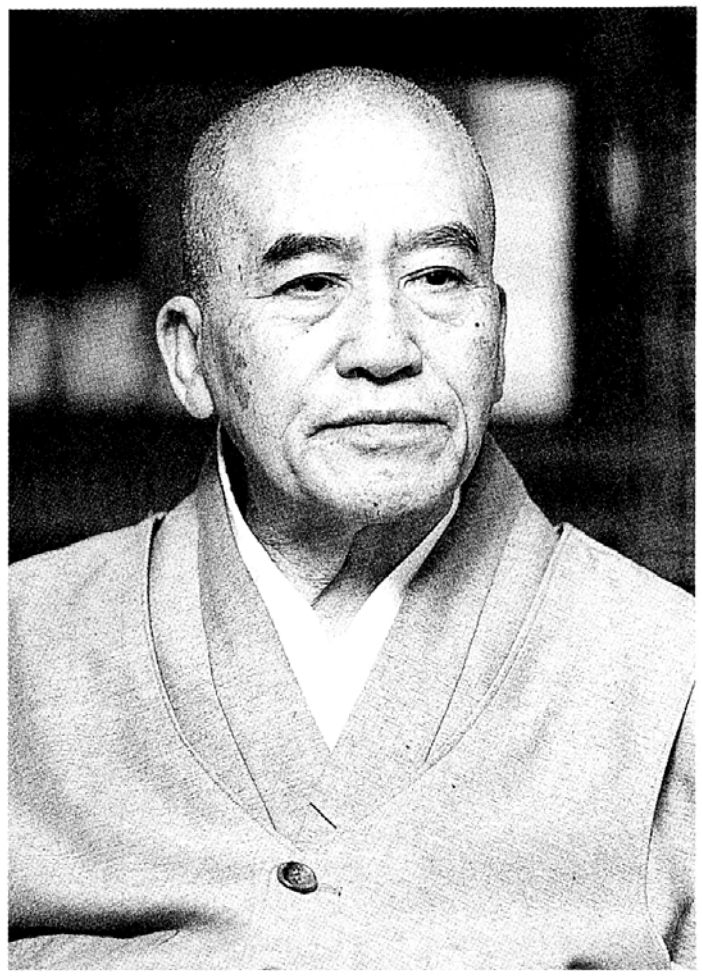
만약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밝게 깨달아 알고
마음으로 돌이켜 자기를 관하면
그것은 물보다 깨끗하다 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인욕과 보시의 삶은

범행스님 〈팔달선원 조실〉



약력
- 1921. 2. 21(음) 경기 화성 生
- 48년 금산 태고사에서 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 52년 선학원 팔달선원 원장
- 64년 선학원 원장
- 71~75년 대한불교신문 사장
- 74~90년 선학원 이사장
- 79~80년 부산 금정선원 원장
- 조계사, 동화사, 불국사, 수덕사, 봉은사 주지 역임
- 現 수원 팔달선원에 주석.

"대신심·대의심·대분심으로 '도 깨닫고 말겠다' 서원 지니고 수행할때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구름은 한가로이 하늘 가득 들고나니(出入雲閑滿太虛)
원래 참된 상은 한 티끌도 없구나(元來眞相一塵無)
거듭거듭 서쪽에서 오신 뜻 물으니(重重請問西來意)
오직 마당에 있는 잣나무만 가리킬 뿐(唯指庭前一栢樹).

달마대사가 전한 법은 말과 문자가 문득 끊긴 '불립문자·언어도단'(不立文字言語道斷)의 진리입니다. 본래 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설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입을 열면 이미 잘못 된 것(開口則錯)이지요. 명(名)과 상(相)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내게 "불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언어도단에 심행처(心行處)가 멸(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법문을 잘 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때 그때 대중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근기에 맞는 떠오르는 말을 할 뿐이지요. 법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인데 새삼스레 말씀드릴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이 법문 아닌 것이 없어요. 온 세상과 우주에 법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무슨 신통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후 열반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설한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성철스님 역시 열반송에서 "평생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고 한 것이 이 뜻입니다. "원래 얻을 것이 없으며, 줄 것도 알 것도 깨칠 것도 없는데 무엇을 설할까 보냐" 이런 의미지요. 법문이란 것도 그 사람의 근기에 맞아야 지혜의 눈이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그릇에 '밥 씻은 물', 꿀, 밥, 오줌을 넣으면 오물통, 꿀단지, 밥통, 오줌통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사람에 맞는 방편을 설할 때 '참 법문'이 되는 겁니다.

한 생을 버려서라도 안되면 누생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드를 깨닫고 말겠다는 굳은 서원을 지니고 수행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조금만 일러 주어도 '법의 문(法門)'이 열리고, 심지어는 돌부리에 채여도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란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얻는 것이지, 남이 떠다 먹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행 체험담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수행의 3요소는 잘 알다시피 대신심(大信心), 대의심(大疑心), 대분심(大忿心)입니다. 나의 경우는 신심으로부터 수행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늦게 출가를 했어요. 집안이 넉넉해서 화학공장을 경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해 보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도 술·담배도 하지 않았고 세속적인 즐거움에는 초연한 편이었어요. 평소 몸이 약해 결혼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공장에서 염소가 터지는 바람에 폐가 나빠졌어요. 당시 폐병에는 약이 없어서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없었죠. 요양이나 할 생각으로 금산 태고사를 찾았어요. 그때가 28세, 태고사에는 나의 첫번째 은사가 되신 포산(抱山)스님이 계셨어요. 포산스님을 뵙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10권을 숙독하는 등 철학과 문학에 나름의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터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처음 불교를 접하다보니 호기심도 들고 지적인 욕구도 강하던 터라 토론은 2주일 정도 계속되었어요. 결과는 내가 읽고 들은 철학·문학이 불교에는 필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예요. 철학·문학 등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위대하다는 서양의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윤리도덕 정도의 가르침이었어요.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내 병이 업력으로 인해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 역시 공업(共業)임을 알게 되었어요. 스님은 업장을 소멸하고 건강을 찾고 싶거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열심히 외우라고 하시더군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잠도 안 자고 앉아서 부지런히 외웠어요. 아침·저녁엔 옆방 스님들과 참선도 같이하면서 약 5주 동안 일심으로 모다라니를 외웠습니다.

하루는 다라니를 외우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유명한 일본인 내과과장인 나리 타가 나타났어요. 내몸 이곳 저곳을 검진하고나서 "다 나았다. 아주 기쁘다"고 말하더군요. 이 때 앉은 채로 꿈이 깨었는데, 날아갈 듯이 몸이 가뿐했어요. 문득 무언가 먹고 싶다는 생각에 40리나 떨어진 연산시장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 전에는 입맛이 없어서 공양도 겨우 했는데, 시장에서 국수 떡 등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 기운이 솟는게 몸이 나은 것을 느꼈지요. 불법의 위력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어요.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한 후 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포산스님은 앉아서 10리 밖의 일을 보고 듣고 하실 정도록 도가 높았어요. 포산스님은 '옴마니반메훔' 6자대명왕진언을 외우셨는데, 모다라니를 계속 외웠어요. 스님에게서 주력수행법과 함께 생식·벽곡 등을 하는 신선도를 배우기도 했어요.

당시 태고사에는 5명의 스님이 계셨는데 모두 개성이 강하고 수행에 열심이었어요. 숙명여대 교수를 지낸 정남조 스님과 땡초라고 자임하던 스님, 한학자 출신 스님등 모두 학식도 높고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중 땡초스님은 묵언정진으로 '벙어리 시늉'을 계속 했어요. 나는 그걸 따라 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썼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201 - 생활불교편

菩提道次第

"대승불자를 위한 수행의 거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聖典)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던 스승 아티샤는 소승과 대승을 망라한 『보리도등론(菩提道燈論)』을 결집하였고, 티베트의 스승 쫑카빠 또한 그 뒤를 이어 『보리도차제』라는 책을 만들었다. 그 뒤 티베트에서는, 이 『보리도차제』에 의거한 여러 경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책은 위의 경전에 의거하여 선정이나 지혜, 공성 등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 간추린 것이다.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책이다. 삼세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을 가진 티베트인들의 정신이 살아 있는 이 책은 생활 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초펠 스님 편역●
56 변형 176쪽/값 4000원
여시아문 펴냄

삼사도에 따른 수행의 길 제시

보살의 서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수행 동기의 세 가지 차원 즉,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수행의 첫 단계인 하사도(下士道)의 가르침은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의 좀더 높은 단계로 환생하기 위해 공덕을 쌓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중간 단계인 중사도(中士道)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수행해 가는 길을 가르친다.
최상의 단계인 상사도(上士道)는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행을 닦아 중생들을 구제하는 실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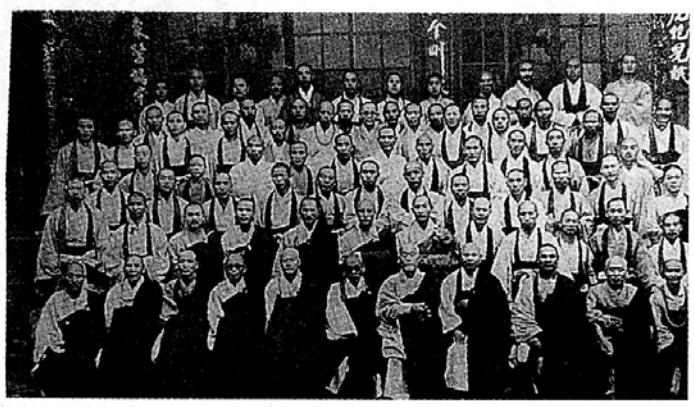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여시아문은 '돌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큰스님 수행한담

좋은 인연 만드는 길”

“화두는 경전 다 읽은 후 드세요 50년 수행통해 얻은 결론 ‘절대성이 없다’ 입니다”



◇1954년 9월 29일에 있은 전국비구승대회 기념사진. 아랫줄 오른쪽 세번째부터 향곡, 금오, 효봉, 혜암, 동산스님 등이 보인다. 범행스님(세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은 "이 사진에 있는 스님들만이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주역이다"고 말했다.

“은산철벽 터지면 놓고 쉬는 공부해야” ‘안다고 하는 그 생각’ 마저 버릴때 자유

지만 어렵더군요. 얼굴도 안 변하고 벙어리 흉내를 내는 것이 묵언정진보다 수십배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스님에게서 '탁발(托鉢)은 저렇게 하는구나'를 배웠지요.

6.25전쟁 때는 거지 생활을 곧잘 했습니다. 여름에는 남산에, 겨울에는 한강변에 움집을 지어놓고 거지 생활을 했어요. 솥단지를 걸어놓고 깡통에 담아온 음식을 모두 넣고 끓여요. 그러면 병도 안 생기고 참 맛있어요.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 잘 먹고 호강하며 지냈지만 깡통에 든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일체유심조'라는 진리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오스님은 늘 나보고 참선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당시 주력수행에 몰두하던 터라 참선이 잘 되지 않았어요. 몇년 뒤에는 마곡사 토굴에서 정진했는데 주력을 통해 삼매나 정(定)에 드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참선을 할 때 화두를 참구하듯이 항상 외우면서 수행의 요체로 삼았지요. 마곡사 토굴에서 1년정도 지냈는데 느낌이 이상해 내려가 보니 정화운동이 시작되었어요. 봉은사 주지 등을 맡으며 정화운동에 참여했어요.

당시 선학원에는 경지가 높은 쟁쟁한 스님들이 많아서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산스님은 복이 많은 분이었고, 효봉스님은 덕이 많은 분이었어요. 금오스님은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동진출가한 청정 비구이셨죠.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화두는 어떻게 드느냐 하면 일체 경전을 다 본 후에 의심을 내리'는 등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던 중 1968년 10월8일에 금오스님이 세수 73세로 입적하셨어요. 이후에는 선학원 이사장으로 계시던 혜암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어요. 혜암스님은 어디서나 설법하여 사람들을 교화하셨어요. 70세가 넘도록 매일 새벽 108배의 참회예불을 중단하지 않으셨죠. 특히 신도나 청소년을 대할 때마다 신의와 효도를 강조하여 도의(道義)재건운동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혜암스님 역시 나를 참선으로 이끌기 위해 애를 쓰셨어요. 하루는 스님께서 〈반야심경〉에 대해 물으며 '부처 불(佛)자 보다 더한 곳이 있으니 일러라' 하셨는데, 나는 답을 못했어요. 그로부터 '내가 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력수행만 해서는 안되겠구나' 느꼈지요.

그때부터 참선수행에 본격적으로 몰두했는데 〈반야심경〉의 이치를 깨칠 수 있었어요. '마음이 곧 부처(心卽是佛)'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예요. 혜암스님은 〈반야심경〉에 대한 나의 답변이 옳음을 인가하고 '효일(曉日)'이란 호와 전법게를 내리셨어요.

은산철벽이 터지면 화두가 술술 풀려요. 경전과 선어록을 봐도 모르던 부분이 저절로 환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별 것 아닌 것이 수행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도의 세계' 첫 관문을 통과한 뒤에는 '놓고 쉬는' 공부를 해야 해요. '내가 깨쳤네, 내가 큰 스님입네'하는 상을 일체 버려야 해요.

참선이란 것은 본디 내 마음자리를 바로 보는 거예요. 거울의 때를 벗기면 자기 얼굴이 환하게 보이듯이 본래 나만 남는 거예요. 그 경계에 들어서면 춤도 춘다고 하지만,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안다고 하는 그 생각' 마저 버려야 해요. 백양사의 서옹스님처럼 무심도인(無心道人)이 되어야 해요. 참도인은 어린애처럼 즐거울 뿐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보림(保任·保護任持의 준말로 깨달은 이가 그 경지를 잘 보호해 지켜가지는 것)이란 게 딴 게 아니예요. 수억겁 동안 쌓인 습을 지워내는 작업이예요. 미세한 식·색·명·리(食色名利)·잠 등 오욕락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죽을 때까지 쉬지 않아야 해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게 덕으면 성욕이 발동하고, 권력을 잡으면 재물을 모으려 해요. 그래서 밥을 적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요.

50여년의 수행으로 얻은 결론은 '절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마거사의 불이법문(不二法門)과도 같은 것이죠. 선악과 생사 등 모든 가치는 둘이 아니요, 그 어떠한 것도 절대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상대성원리를 발표했지만 불법은 정신과 물질, 모든 것이 절대성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는 선악 등 온갖 분별이 절대성을 갖지 못해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에 처했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예요.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오욕락이 쌓이고 탐진치가 모여 벌어진 일이니까요. 업력으로 주고 받는 것이기에 연기론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인욕과 보시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온갖 나쁜 일 저지르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두루 행하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는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계율, 즉 칠불통계(七佛通戒)가 불법 수행의 요체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화 당시 효봉스님의 사제인 향봉스님이 조계사 법당 안에서 모 스님과 서로 주지를 안 맡겠다고 싸워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청정 비구의 무소유 정신의 상징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 정부쪽에서도 비구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화가 끝나고 40년도 안 되었는데 당시의 청정 비구의 서슬퍼런 지계의지가 많이 희석되지 않았습니까. 무소유 정신도 약해지고 호사스런 생활로 불자들의 비판을 받는 스님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각들의 훌륭한 전통은 잊어버리고 불교가 형식화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수행의 전통을 되살려야만 우리 사회를 이끄는 정신의 고향으로 불교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불자들은 '참 자기'를 찾는 일대사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나와 경전 57

수호국계주다라니경



김 영 덕
위덕대 교수·불교학

국난극복과 위민의 지혜 밝힌 경전 “정법 신수봉행 태평성대 국위선양”

우리나라 곳곳에서 살기 어렵다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온다. 사회는 온통 어려운 사람 천지이고, 넘쳐나는 실업자로 이 사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히 국난(國難)이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은 미증유의 것이었던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 IMF한파 이전의 잠깐동안의 번영이 미증유의 것이었을 뿐이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는 가난과 배고픔으로 일관된 역사였다. 현재 40대 이전 사람들은 누구나 배고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에 굶는 사람은 있었어도 이렇게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지는 않았다.

우리는 지금 번영 후에 오는 피폐가 더 참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이 국난이 아껴쓰는 것만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다. 철학의 문제이다.

이 시대에 불교가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야할 것은 흔들리는 국민의 가치관을 굳게 잡아주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재물이 없는 자에게 재물을 주는 보시행위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나, 더 근원적인 도움은 가진 것이 없어도 여유로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일이다.

어려운 시절을 만나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튼튼한 마음의 울타리를 생각한다. 그 울타리는 나와 남을 분별하고 차별시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로서의 울타리이다. 그 울타리가 금강(金剛)으로 이루어졌다면 그야말로 금강성(金剛城)으로 보호되는 절대의 영역이 된다. 금강성을 구축하는 금강의 재료가 무엇인데 절대의 공간이 될 수 있겠는가. 금강은 절대의 공성(空性)을 상징하며 이 절대의 공성은 일체를 부수고 일체를 성립케한다. 한시절의 부귀영화도 인연따라 이루어진 공한 것이며, 또한 빈곤과 고통도 그 본래의 고정된 성품이 없으므로 언제까지 그 고통에 억눌려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는 금강성만다라(金剛城曼荼羅)가 등장하며 이 만다라는 바로 금강계만다라를 말한다. 이 경은 당나라 때 인도에서 온 승려인 반야(般若)와 모니실리(牟尼室利)가 자사사(玆思寺)에서 공동으로 번역한 경으로 전해진다. 이 경은 금강성만다라와 더불어 특징있는 호국사상을 설하여 유명하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의거하여 진호국가(鎭護國家)를 위해 닦는 수호경법(守護經法)은 인왕경법(仁王經法) 공작경법(孔雀經法)과 함께 3대법이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의 호국사상은 정법을 홍포하여 백성들을 좋은 정치로 잘 다스리면 국위가 선양되어 인민이 안락하여 국계(國界)가 태평하고 국권(國權)이 튼튼하여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왕과 백성은 모두 정법을 신수봉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경전은 10권11품으로 돼 있으며, 내용의 절반이상이 〈대집경〉의 '다라니자재왕보살품'과 상당히 일치한다. 이중 계·정·혜 다라니문의 네가지 영락장엄을 밝히면서, 계에 열 가지, 삼매에 열 가지, 지혜에 열 가지, 다라니에 열 가지의 다름이 있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보살영락장엄품'과 모든 국왕과 대신, 장자, 석제환인, 대범천왕 등이 이 경을 찬탄하고 지송옹호할 것을 서약하는 게송이 나오는 '여래촉루품'은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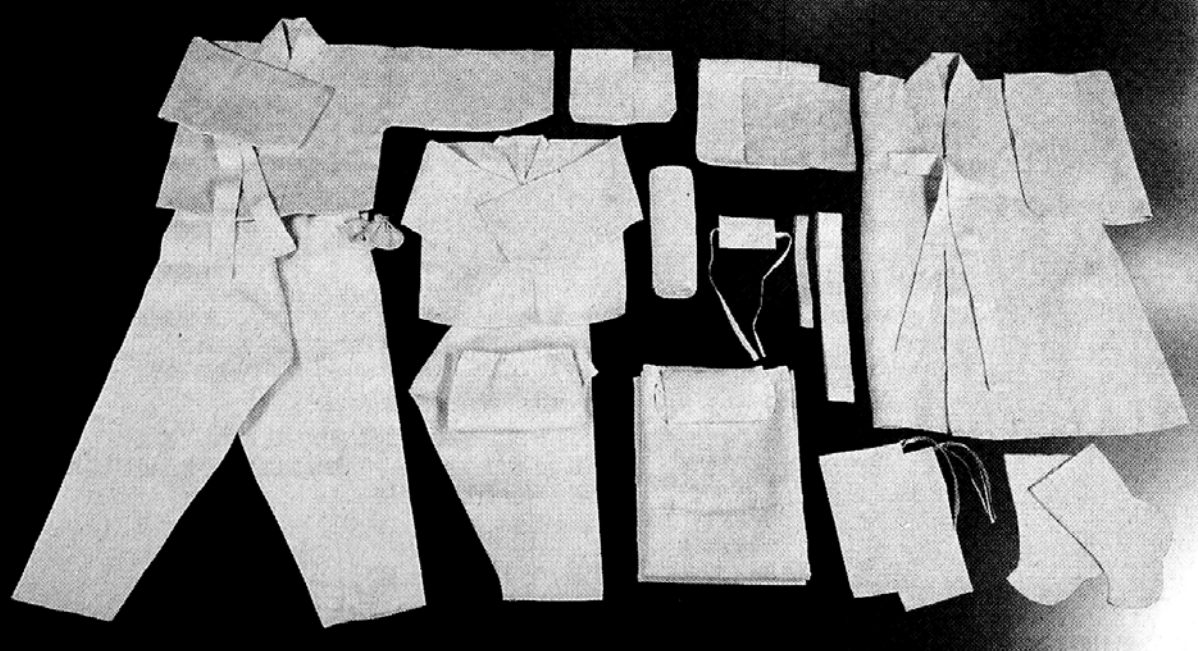
이 경은 국가수호의 근거를 밝힌 경전이므로 옛부터 중히 여겨져서 신라시대 명랑법사와 혜통국사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수많은 스님들이 이 경을 호국불교경전으로 많이 활용하였다.

지금 우리는 전쟁에 버금가는 위난에 처하여 있다. 이때에 국난을 이겨내는 가르침을 불교의 경전 가운데에서 찾아, 경제가 무너짐에 의해 철학마저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나약한 정신상태를 재무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 장인의 혼으로 우리삼베로 "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

極樂往生服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일 이보다 값진 효도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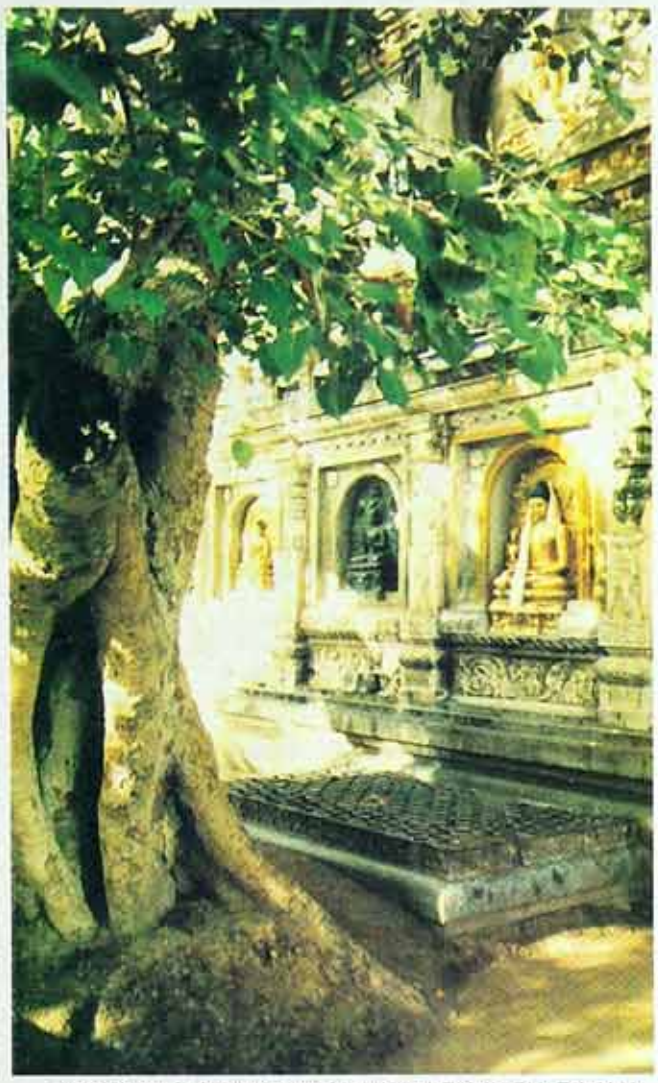
수의는 윤달이 든 해에 짓는 것입니다.
꼭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것은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회갑, 진갑이 가까워 온다면 올해 수의를 지어 드리십시오.
일생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값진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불교텔레비전 btn이 효심깊은 불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윤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

지혜와 풍요…속진 씻는 수행자 연상



◇인도 보드가야 대보리사의 보리수. 보리수 아래 금강좌(金剛座)를 놓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그 자리를 기념하고 있다.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9〉

나무

나무는 오랜 옛날부터 신성함 생명력, 지혜와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신화와 민담에서 많이 발견되는 신수(神樹)는 천계와 인간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 마을에는 으레 당산나무가 있어 기원의 대상이 되었고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 역할도 했다. 또 인재(人材)나 재목(材木)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는 인격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집안의 가풍이니 대들보이니 하는 말에서와 같이 정신적 지주로도 비유된다.

불교에서의 나무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공덕으로 '깨달음' '지혜' '수행'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산사 초입에는 천왕문에 도달하기까지 양옆 길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힘차게 도열하고 있어 참배객들의 속진을 먼저 씻어준다. 계룡산 갑사, 조계산 선암사, 능가산 내소사, 오대산 월정사 등의 나무숲이 특히 이름나 있다.

부처님가르침을 나무에 새긴 팔만대장경판과 아름다운 목조건물의 대표격인 저 부석사 무량수전을 보라.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를 현현하는 선지식으로 언제나 중생들을 발심케 하는 지남(指南)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리수

부처님이 이 나무 아래에서 성도(成道)했다 하여 '깨달음을 이룬 나무'라는 뜻에서 보리수(菩提樹)라고 한다. 보리수는, 마야부인이 싯달타 태자를 출산한 룸비니동산의 무우수(無憂樹),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사라쌍수(沙羅雙樹)와 함께 불교의 3대 성수(聖樹)로 꼽힌다. 원효스님도 사라수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 나무 아래에 절을 지었다고 한다. 또 보리수는 부처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하는데, 석가의 보리수는 필발라수(畢鉢羅樹), 미래세에 성불할 미륵불의 보리수는 용화수(龍華樹)다. 깨달음을 뜻하여 각수(覺樹)라 하고, 성수(聖樹)로 여겨 불수(佛樹)라고도 한다.

■잣나무

잣나무는 진리를 깨닫는 수행의 상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불교에서의 잣나무는 불전(佛殿)의 정원과 연결되어, 진리를 깨닫기 위한 선수행을 압축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나라 조주스님이 불교의 도(道)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한 화두 때문에 더욱 널리 알려진 상징이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묻자 운문선사가 '마른 똥막대기'라고 한 것처럼, 사물들 자체에는 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니 일체의 망상분별을 씻어내라는 의미로 쓰인다.

■소나무

고송답반아(古松試般若)
유조농진여(幽鳥弄眞如)
늙은 소나무는 반야를 얘기하고
그윽이 깃든 새는 진여를 희롱하네

소동파의 〈人天眼目〉에 나오는 이 시구는 솔바람 소리나, 지저귀는 새 소리 등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현현이며 설법이라는 뜻이다. 천년의 긴 세월을 지나도록 눈·비·바람을 견디면서도 전혀 그 빛깔이 변치 않는 소나무의 푸르름은 본래의 불심(佛心)·불성(佛性)이 번뇌나 망상에 오염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석가세존인과보제경〉에는 소나무가 많이 그려져 있어 소나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보리장(詣菩提場)의 경우, 불교에서 최상의 이상인 불타 정각의 지혜, 즉 도(道)·지(智)·각(覺) 삼보리의 불멸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보리장에 이른 석가와 길상 서상(吉祥瑞祥)보살이 구름을 타고 소나무 아래로 날아오고 있다. 여기서는 보리수의 대행목으로 소나무를 그리고 있다. 또한 소나무는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 사찰건축의 목재나 목기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버드나무

버들가지는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을 상징한다. 관세음보살이 현신(現身)할 때에는 33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33현신 중의 제1위가 양류관음(楊柳觀音)으로, 흔히 왼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오른손에 버들가지를 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는 버들가지가 살바람에 나부끼듯이, 미천한 중생의 작은 소원도 귀기울여 듣는 보살도의 자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버들가지는 관세음보살의 정병 속에 든 불사(不死)의 감로수(甘露水)를 고통받는 중생에게 뿌리는데도 사용한다.

■대나무

자비와 수행정진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두고 진각 혜심(1178~1234)은 "날마다 감로에 젖고, 때로는 법음을 내니, 속세를 떠나 자연을 도우며, 큰 자비의 마음을 돕는다"고 하였다. 선가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죽비가 있다. 수행자의 졸음이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어깨를 칠 때 사용하는데, 이 때 대나무는 그 울리는 음향과 죽비로 구체화되어 수행의 정진을 상징한다.

불교교단 최초의 절 죽림정사는 지금도 대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유명하며 부처님께서는 자주 이곳에 머물면서 가르침을 펴 많은 초기 및 후기 경전들은 모두 이곳을 무대로 한 것이다.

■목어

나무를 깎아 물고기 모양을 만들고, 속을 비게 한 다음 그 속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목어(木魚)는 범종, 법고, 운판과 함께 사물(四物) 가운데 하나인 법구다.

목어는 중생들이 속세의 미몽에서 깨어나 해탈하기를 기원하고 일깨우는 불심의 소리를 내는 도구이다. 일설에는 물고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로 하여금 밤낮으로 도를 닦으라는 뜻으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목탁

목탁(木鐸)은 목어가 변형화되어 나타난 것. 외형에서 목탁의 실질적 기능은 염불이나 독경에 박자를 맞추는데 있으나, 염불이나 독경의 의미를 강화한다는 면에서 중생제도라는 상징성을 띤다. 대추나무·박달나무·은행나무·괴목(槐木) 등으로 만든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부처님 보리수 아래서 成道

조주스님 '뜰앞의 잣나무' 널리 알려진 화두

최초의 절 죽림정사 지금도 대나무 우거져



◇부석사 목어. '늘 깨어있어라'는 뜻으로 만든 물고기모양의 법구.



◇인도 쿠시나가라 열반당 앞의 사라쌍수.



◇변산 내소사 입구의 전나무 숲길.



◇한암스님의 지팡이가 땅에 꽂혀 자랐다는 단풍나무. 오대산 상원사 사자암에 있다.

■화제가 된 나무

운주사 노송 '5백년 수도' 상원사 단풍목은 '지팡이'

순천 송광사 일주문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보조국사의 지팡이 나무가 있다. 보조국사가 짚고 다니던 향나무 지팡이를 이곳에 꽂았는데 그 나무가 자라났다고 하며, 스님이 돌아가시던 날 이 나무도 시들해지더니 결국 죽었다고 한다. 자금은 양산한 줄기만 깃대처럼 우뚝 솟아있다.

부석사 조사당 앞에 자라고 있는 선비화(仙扉花)는 의상대사가 꽂은 지팡이가 나무로 변했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또 오대산 상원사 사자암에는 1926년 한암스님이 봉은사에서부터 짚고 온 지팡이를 꽂은 것이 자랐다고 하는 단풍나무가 있다.

용주사의 회양목과 운문사의 소나무, 속리산 법주사의 정이품송, 용문사 은행나무 등은 나무에 얽힌 사연은 물론 수행승 못지않은 고매한 모습으로 절을 찾는 이들에게 감화를 준다.

용주사 회양목은 조선조 정조임금이 부왕인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도세자 능 근처에 용주사를 중창하며 심은 것.

청도 운문사 경내에 들어서면 녹색의 거대한 우산을 펼쳐 놓은 것 같은 수령 5백년의 노송(老松)을 만나게 된다. 이 소나무는 5백년동안 강경소리를 듣고 도를 닦아 몸을 낮추는(엎으로 자라는) 도량을 가졌다 하여 '선정(禪定)에 든 소나무'라 불린다. 수령 6백년의 속리산 법주사 정이품송은 소나무하면 바로 연상할 정도로 유명한 사찰나무이다.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회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로화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신선(神仙)사상의 주재(主宰)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여기 말로 다 할 수 없으리라.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의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얻는 여러차례(차신) 지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林業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정(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미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청기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을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원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대구여래원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한 생각에 선과 악 바뀔수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평화로운게 있고 괴로운게 있는 양면을 둘 아니게 공부하는구나' 하고 맡겨 놓으면 매듭 풀려요"



그림 · 최주현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다지는데 좀더 걸림없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데 요점을 두겠습니다. 가끔 보면 몽땅 버리지 않으시고 안간힘을 다해 붙들고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 싹은 자기 뿌리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나무들도 알고 있는데, 사람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바람이 부나 비가 내리나 눈이 오나 하여간에 어떤 경우든 그 뿌리에서만이 싹을 돕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어떠한 고가 닥쳐도 편안하게 자기 뿌리를 믿고 한마음이 돼서 지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편안히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애요. 어떤 분은 편안하시고 어떤 분은 편안치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나무들이 말입니다. 모진 바람이 불 때 싹이 아무리 방방 뛰어도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나무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폭풍에 흔들려도 끄떡없이 한마음이 돼서 뿌리를 지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바로 나무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 뿌리를 깊이 박고 싹을 조금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그런 나무들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콧방귀 탁 뀌고 그 뿌리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사세요. 맡긴다 안 맡긴다 할 것도 없이 이미 그대로 가설이 돼있으니 거기서만 통신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란 게 말입니다. 만나면 얘기하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이 그냥 여여하게 말하고 듣고 행하시죠.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행한다 하고 행하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 말한다 하고 말하지 않죠. 본다고 하지도 않죠. 듣는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듣고 그대로 여여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 여여함이 그대롭니다.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악과 선을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악과 선을 갖추어서 그걸 둥글릴 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시죠. 부처님 상호는 32상에 80종호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어디 하나 모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에게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다 불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불(自佛)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은 때에 따라 화가 나면 욕도 하고 거친 말도 하고 좋을 때는 좋은 말도 나오고 그러죠. 하지만 그게 정상이예요. 그리고 정상인 것을 그대로 여여한 줄 알라 이겁니다. 만약에 거친 말이 안 나오고 선한 말과 좋은 말만 나온다면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라는 것은 평등공법에서 나오는 여러분 마음의 그 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욕을 한다고 해서 욕이 업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제가 좋은 말을 쓰고 언짢은 말은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언짢은 말을 할 때는 언짢다는 걸 알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언짢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아니다 기다 또는 이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죠. 그런데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뜻은 양면은 다 본래 갖추어진 본연의 자리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 쓰고,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 마음이 그냥 공법입니다. 공법의 핵심입니다. 부처님법은 우리 생활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시고 행하시고 보시고 듣고 하는 그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예전에도 공부하던 선사들께서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뜰 아래 잣나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잣나무만 부처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공안 아닌 게 없고, 법안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우리의 스승이죠. 알고 보면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는 거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얕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단, 차원의 높고 낮음은 있죠.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면 차원이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건 낮은 중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모습이나 행이나 말하는 것, 만나는 것 등 전부 거기에서 그 빛이 풍기는 겁니다.

"알고보면 높고 낮음 없이 서로가 스승"
"선악 다 놓으면 미묘한 참마음 생겨요"

수많은 나날을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수만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만가지 말을 했어도 한마디도 말 한 사이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도 여지껏 마음을 쓰시고 살았는데 '마음 쓰신 것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묘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아무리 써도 줄지 않고 아무리 보태도 늘지 않고 그냥 쓸 때 되면 불쑥불쑥 다 나오니깐 말입니다. 그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소중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광대무변한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끔 여러분한테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믿으니까요.

두 가지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소를 한 마리 죽였어도 살생이 되지 않느니라.' 이런 것과 '요만한 벌레 하나를 죽였는데도 살생이 되느니라.' 한다면 이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를 한 마리 죽였어도 그 마음이 소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로 봤을 때는 그 영혼이 둘이 아니게 합쳐지고 그 살은 약으로 된단 말입니다. 약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밥도 약이요, 반찬도 약이요, 약도 약이요, 전부 약이지, 약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공부하는 사람앞에는 꼭 필요해서 죽일 때, 그 소도 건지고 사람도 건지고 양면을 다 건질 수 있는 거죠. 수 만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죽인 사이가 없게 되죠. 그대로 여여하게 태어났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짐승이 개라고 합시다. 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내 마음과 개의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됐다면 개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개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그 불종자에서 바로 환생이 되는 거죠. 연꽃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이다 이 소립니다.

연등부처님이 부처님한테 '너는 이 다음에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땐 석가모니로 이름하여 태어나거라.' 하고 수기를 주셨는데 이것도 자기 연등부처님이 자기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받은 사이도 없고 준 사이도 없는 격입니다. 수기를 내린 분도 없고 수기를 받은 분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과 같이 여러분도 진짜로 이 생명체가 불쌍한 줄 아신다면 이 도리를 빨리 아셔야 합니다. 길을 지나갈 때도 '아, 참 불쌍하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 영혼의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고 그 물체는 어딘가 모르게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눈으로 봐야만 없어지는 줄 아시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봐야만 태어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전력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력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짜증이 나고, 부질없는 생각이 날 때도 항상 내가 말하기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다가 놓고 자기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으로 인해서 심부름하고 사는 거니까 그대로 거기 놓고 편안하게 마음먹어라, 심부름 하는 놈이 뭘 그렇게 주인이 하는 일을 참견을 하고 걱정을 하느냐' 이랬지요. 내 몸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걱정을 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거기다 믿고 놔버리면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는 거죠. 본래 자기 뿌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 내일 비가 오면 안되는데' 해도 그것이 그냥 재깍 통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뿌리하고 나하고는 항상 가설이 돼 있기 때문이예요. 뿌리와 뿌리끼리 통신이 되고, 용신도 주산신도 보살도 부처님도 다 통신이 되니깐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해서 움죽거리는 게 용(用)입니다. 우리 마음이 움죽거리면 용이고 몸이 움죽거리면 보신이자 화신이지요. 그게 바로 행이고요. 즉 말하자면 공용의 행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말입니다. 육체속에서도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서 같은 의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 씁니다. 그걸 같이 하지 않는다면 바로 악과 선이 즉 말하자면 양면이 생겨서 싸우게 되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생명들이 이것은 아군이다, 저것은 적군이다 하고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하다가 만약에 아군이 이기든 적군이 이기든간에, 어느 쪽이 이기면 그냥 살이 굳어지거든요. 생명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나쁜 악신이다, 이것은 선신이다.'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악한 것이 나한테 왔다 하는 것도 따지지 마시고 선신 따로 찾고 악신 따로 물리치고 이러지 마시고 모든 게 한 생각에 악신도 선신이 되고 선신도 악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한 생각 차이에 바뀌는 거죠. 선신은 선신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악신도 악신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는데, 부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너무 가난해서 가져올 것이 하나도 없더라지 뭡니까. 그래서 가만히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 어머니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내일 너희들 차비도 없으니 어떻게 학교를 가느냐. 쌀 한톨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굶겨 보내느냐.'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걸 보고 강도는 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2)

흘러간 노래 대신에 신곡이 듣고 싶거든

"업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며 미래를 결정짓는 것도 아니다. 확실한 지금의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내 안에 과거의 모든 선업·악업이 잔뜩 실려 있으니 어떻게 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겠는가. 단번에 그 짐들을 다 부려 버리면 자유인이 될 것이다. 지금 크게 한생각 일으켜 진실로 놓아 버린다면 업의 테이프는 빈 테이프가 될 것이다.

업을 짊어지고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오는대로 거기다 되놓고 또 되놓고 하면 앞의 것은 새로 놓는대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업이 붙을 틈이 없게 된다. 육조 혜능선사께서 '먼지 앉을 틈이 없는데 어찌 털고 닦을 게 있느냐'고 하신 것은 몰록 되놓으면 공 테이프 본래의 모습일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짊어지고 나온 것을 몽땅 맡겨 놓아 그게 없어지면 그 다음엔, 채워지고 비워지고, 또 채워지고 비워지면서 채우고 비우고가 없이 본래로 맑을 뿐이다.

이는 더러운 그릇을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는 데다 갖다 놓았을 때 자연스레 넘치고 또 넘쳐서 더러움은 싹 가시고 맑은 물만 고이는 이치와 같다."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되돌아 보려 하기 보다 제게 좋은 일, 즐거운 일만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제 그릇부터 깨끗히 씻지 않고 제게 항상 맑은 물이 담기기를 원한다.

그릇이 더러우면 맑은 물을 부어도 더럽다. 그릇부터 닦아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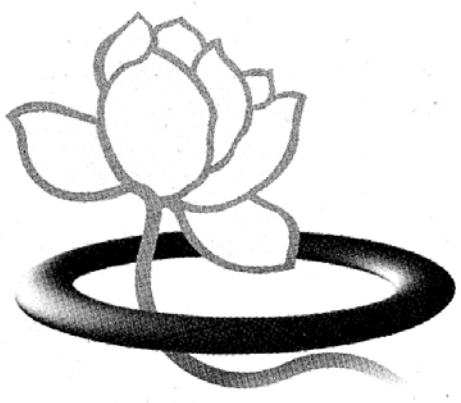
사람들은 대개 내 그릇은 언제나 깨끗하다고 믿는다. 으레 그러려니 믿고 있다. 그래서 조금 언잖은 일이 생기면 금새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운명을 탓한다. 내 그릇은 항상 깨끗한데 수돗물이 더럽다는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이 잘못했고, 내가 원인이 된 게 아니라 환경이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틀린 생각이다.

부처님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하신 것은 한마디로 먼저 자신을 보라는 것이다. 나의 생사 고락, 나의 병고 환란, 나의 행복 그것은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니 밖을 보지말고 자신을 보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의 창고에 그것을 채곡채곡 쟁여 놓았다가 매 순간마다 다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재료로 활용한다. 우리들의 모든 언행은 그런 의식구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금 내가 슬픈 것 즐거운 것 싫은 것 좋은 것은 다 오랜 세월을 두고 내가 쟁여 놓았던 재료들의 작용이다. 심지어는 밖에서 일어나 내게 닥아오는 일들, 내가 부딪히는 일들도 모두 나의 그러한 의식작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업이란 바로 그렇게 내가 과거에 뿌려 놓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고로 탓이 있다면 업의 탓이다. 내가 원인을 만들고 내가 결과를 받게 되는 업작용의 탓이라.

누굴 탓하고 무엇을 탓하랴. 나 이외에.



뿌린대로 거두는 업의 작용엔 한 치의 에누리가 없다. 그러나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비유컨대 과거에 뿌려둔 느낌 생각 기억들을 '나'라는 테이프에 녹음을 해두었다고 하자. 지금 스위치를 키면 흘러간 노래가 나올 것이다. 그게 듣기 싫어 짜증을 부리고 누굴 탓하고 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흘러간 노래의 편곡이 나올 것이다. 흘러간 노래에다 지금의 사랑, 오욕칠정이 가미된 편곡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예 새 노래를 듣고 싶다면 당연히 새 노래를 녹음해야 한다. 듣기 싫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새 곡을 녹음해 두어야 다음 번엔 스위치만 올리면 자동으로 새 노래가 나오게 될 것이다.

내 업의 창고 속에는 온갖 환난과 병고의 씨앗이 들어 있다. 온갖 즐거움과 행복 희망의 씨앗이 들어 있다. 천당과 지옥의 씨앗이 들어있고 평화와 갈등의 씨앗이 들어있다. 부의 씨앗 가난의 씨앗도 들어있다. 그걸 짊어지고 살 것인지 놓고 살 것인지는 지금 한생각에 달려 있다.

내 마음 속에 용광로를 하나 그려 놓고 닥치는 대로 쓸어 부을 것인가, 내 마음속에 우체통 하나를 그려놓고 닥치는대로 뛰워보낼 것인가는 지금 한생각 하기에 달려 있다. 신곡을 듣고 싶거든 새것을 녹음하자.

협찬 : 이정식 · 김현진 · 이준범 · 이윤경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정신계 물질계 둘 아니게 봐야 지혜"

☞ 15면에서 계속

히려 단 집에서 훔쳐가지고 온 것을 그 집에 도로 놓고 돌아섰더랍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때에 따라서는 선신이 되는 겁니다. 선신도 때에 따라서는 악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 놓고 악도 놓고 다 놔라. 놓는 그 가운데서 미묘한 참마음이 생기느니라. 그게 바로 평등공법이며 그것이 바로 법신의 정신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보면 또 '아이고 이걸 뜨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말 것을 잘못 썼구나'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이건 그릇된 일이지'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잘 썼든 못 썼든 다 거기에다 일임해서 놓으시고 그냥 여여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떠한게 닥쳐도 그냥 끄떡없이 가다가 그게 다 풀려서 "스님, 이렇게 놀라운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옳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쳐줘서, 나의 힘으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쪽에도 반, 이쪽에도 반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방황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 애석해 하지 마십시오. 방황하고 뛰는 것이 보기 안돼서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어떠헌 일이 있더라도 그냥 주인공에다 맡기시고 그저 좋은 일이 생겼으면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일이 생겼으면 '언짢은 일이 생긴 것도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둬야 방황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도 그걸 놓지 못해요. 그냥 방방 뛰어요.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니 풀릴 수가 있나요. 옭아매서 쥔 것을 놓지 않으면 옭매듭이 풀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참 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내가 대신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해야 나도 같이 해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열지 않고 몰라라 한다면 나도 그래요.

입제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도 너에게 줄 수 있지만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네 주장자를 오히려 뺏어 올 것이니라." 하셨거든요. 제가 제 주인을 챙기지 못하니까 집은 항상 비어서 오고 가는 행인들이든 벌레든 할 것 없이 들고 나고 하니까 그 집은 망가지게 돼 있죠.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세세생생의 그 마음도 망가진 마음 그대로 차원이 낮은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날 때도 또 그 모습으로 태어나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듣고도 '저 스님이 말로만 저러지.' 이런 분이 계시는데 아마 모든 것을 본다면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가 차츰차츰 익어간다면 처음에는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듣고 그렇게 행하지만 자꾸 익히면 심안으로 보고 심안으로 듣게 됩니다. 거기서 좀더 하다보면 법안으로 보게 됩니다. 나중엔 불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바르 돈오점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돈오는 탄생하는 것을 말하고 점수는 탄생을 해서 길러지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귀신 방귀씨는 얻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길러야 더 먹이지도 않고 덜 먹이지도 않고 아주 잘 먹여서 기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귀신 방귀털을 가지고 기르면 잘 기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귀신 방귀털이요. 그 뜻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불안으로 듣고 불안으로 보면서, 즉 말하자면 우주 삼세,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일체로 보고 모든 것을 다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빚을 졌다, 미래에 빚을 진다도 없고, 현재에 업이 많다 또 고뇌가 많다, 병이 많이 생긴다, 죄를 지었다 이런 것도 없고 유전성, 영계성, 이런 것도 다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내 집이 주장자가 딱 서있는데 어디를 감히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그게 요술방망이인데, 요술방망이를 누가 뺏어가고 또 뺏기고 합니까? 그것은 누가 갖다주고 뺏어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때는 항상 말로만 배우지 마시고 그 말을 따라서 뜻으로 행하시는데 응용해 보세요.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야지 말을 한 대로만 듣고선 말을 옮겨서 말로만 하려고 한다면 전부 허망한 겁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이런 미생물 하나라도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하다못해 벌레 하나도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고 하셨겠습니까. 왜? 거기서부터 쭉 거쳐 올라와서 탁 펴놓고 보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 올라온 거거든요. 벌레,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렇게 됐을 때도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 내 부모 네 부모가 따로 없고, 내 자식 네 자식이 따로 없고, 내 생명 네 생명이 따로 없고 내 몸 네 몸이 따로 없고 모두가 이게 공체며 공심이며 공생이며 공용이며 공식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뼈 한 무더기에 다 절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실감이 나는 거지 그것을 듣지도 못했다면 실감이 안나요. 들었으니까 알게 됐고, 알았으니깐 그대로 이행하게 되지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맛을 보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난 믿어요. 여러분이 몸뚱이 하나를 놓고 볼 때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코도 믿고 저도 믿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눈만 믿고 '아 이게 전부 공체가 동시에 움죽거리는구나. 이 몸뚱이 하나가 동시에 움직이고 동시에 듣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몸뚱이 하나의 개체가 전부 동시에 듣고 동시에 보고 동시에 움죽거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건 내가 먹었다, 내가 했다, 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생명의 의식들이 다 보충을 하고 작용을 해줘서 움죽거리게 되는 건데 내가 했다고요? 어떻게 내가 산다고만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생명들이 같이 혼합이 돼서 더불어 같이 작용을 해주니까 움죽거리는 건데 보는 것도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나다, 내가 한다, 내가 먹었다, 내가 산다.' 이런 말이 싹 빠지게 되지요. 그러니 내가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면서 공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식화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했다고 하며 나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 공체를 어떻게 나라고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성이 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 법안이라고 하는 것, 심안이라고 하는 것, 혜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더불어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도 모두 사람의 마음 근기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말 많을 것도 하나도 없지요.

어느 신도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직접 아파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도 죄가 됩니까? 가난한 것은 과거에 부자로 살 때 남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봤기 때문에 또 한바퀴 돌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공부로 아세요. 공부로 알고 거기다 놓으시고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평화로운 것도 있는가 하면 괴로운 게 닥치는 것도 있구나. 이 양면을 다 내가 겪어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양면이 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느냐. 부자로 살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또 가난하게 살 때도 앞서에 공부를 하지 않고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또 가난하게 됐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남을 업신여기며 살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닥쳤는데 이것이 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생긴 거구나. 그것이 양면이 다 둘이 아니게 공부구나' 하고 공부로 아시고 거기다 맡겨 놓으시면 스스로 매듭이 풀려요. 풀리는 소리가 나요.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은 그 풀리는 소리를 믿지 못하십니까? 듣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또 보지 못하십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불성이 진짜로 자기 뿌리라면 그렇게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계의 자기 뿌리는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걸 대처하고, 보이는 데서는 육으로 대처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둘이 아니게, 심봉과 바퀴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지요. 만약에 바퀴에 심봉이 끼지 않았다면 바퀴가 어떻게 이탈되지 않고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그 심봉과 바퀴가 저절로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거기에다 물건을 넣어야 물건이 갈려 나오지요. 돌아가지도 않는데다 물건을 넣는다면 갈려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도 비가 오면 어쩌나.'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게 꼭 비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걸음 걸어가는 대로죠. 오게 되면 오는 거고 안오게 되면 안오는 거고, 내가 했다 라고 세우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둥근원 칠층탑 쌓는 이유

문 저는 진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지금 불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지붕에 둥근 원으로 칠층탑을 올린 큰스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 이 마음의 도리로서는 칠탑도 없고 한 탑도 없습니다만 질문을 하셨으니 말씀드리죠. 그것도 말하자면 방편입니다. 그 칠탑도 여러분의 몸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을 깔지요. 육 속에 진짜 자기인 주장자가 있기 때문에 탑을 하나 세우고 칠성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칠탑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다 대도 맞고, 저기다 대도 맞습니다만 또 칠탑이 한탑이요, 한탑이 칠탑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마음의 도리로서는 칠탑도 없고 한탑도 없습니다. 너무 탑이 많아서 '칠탑이 있다, 한탑이 있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둥근 그 탑을 칠탑으로 올린 것은 여러분이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취하라고 방편으로써 세운 겁니다. 방편 아닌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동시에 응신으로써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응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법신이 되시고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 탑도요 가만히 있으면 칠탑도 따로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내면 칠탑이 있습니다. 또 둘 아닌 마음으로써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보현신도 거기 계실 것이고, 부처님도 계실 것이고, 법신도 거기 계실 것이고 이 허공에 계신 분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 다 운집해서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공부하는 분들은 때에 따라선 거기에 계시고, 때에 따라선 여기에 계시고, 때에 따라선 부처님한테 계시고 그런 겁니다.

지난 번에 스승의 날이라고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모두 법당으로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배울 땐 형상이라고 배웁니다. 나도 그렇게 가르쳤구요. 그러나 나중엔 말없는 그 무심으로써 연기법으로, 공법으로 하시는 부처님이 돼 버리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이 형상하고 똑같죠. 여러분의 몸도 형상 아닙니까? 저 모습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생명도 똑같으니 너무 높이 보지도 말고 너무 얕이 보지도 말고 그냥 항상 둥글게 삼배를 극진히 올리고, 자기 주인공을 다 거기다 몰아놓고 삼배를 올린다면 그 얼마나 스승의 날을 멋지게 보내는 겁니까. 그러니 이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은 말로 알려고 하지 마시구요, 뜻으로 알려고 하세요.

그래서 지붕에 칠탑을 해놓은 것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공체인 몸, 공심인 마음, 공생인 생명, 공식으로서 모두가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같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혜를 열고 싶습니다

문 첫번째는 육바라밀 중에서 지혜바라밀은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번째는 무심으로 관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이 지혜를 어떻게 열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육바라밀이 따로 없고, 지혜가 따로 없이 여러분이 생활하고 가시는데 마음쓰시는 것이 지혜로우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속에 진의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 아니게 쓰는 마음은 지혜로운 것이고, 정신계와 물질계를 같이 쓰지 못하고 물질계만 쓰게 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 아니게 쓰는 사람들은 공덕이 있지만 그냥 육안으로 쓰는 사람은 공덕이 하나도 없게 되죠. 또 이 물질만 보고 기도를 한다면 그건 상대를 보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한마음이 되지 못해서 공덕이 될 수가 없지요.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한 개체로서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것이 공체인데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몸뚱이 하나다.' 이렇게요. '내 몸뚱이 하나고 나 뿐이다, 외롭다.' 그러지요. 그런데 외롭지 않아요. 이 몸뚱이 하나 속에도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공체지요. 그러고 또 공체로서 움죽거린다면 공용이지 어떻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나가 움죽거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움죽거리기 때문에 공용이며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생 · 공심 · 공용 ·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공심으로써 쓰는 것이 지혜이며 공심이 아닌 개별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대로 마구 말하는 걸 지혜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몸뚱이도 공체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보는 거로구나. 그러니 나라고 세울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봤다고 할 게 뭐 있겠나. 혼자 들었다고 할 게 뭐 있나. 내가 산다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이 모두 공해서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악이 한마음에 있다는 뜻

문 스님의 게송으로 이루어진 많은 선법가들 중에 '일체제불의 마음' 이 있습니다. 말미에는 '선행하는 것도 악행하는 것도 다 내 한마음에 있다.' 이렇게 맺음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스님께서는 '선악의 양면도 다 놓아라, 둘로 보지 말아라' 라는 평등공법을 설법해 주셨습니다. '선행하는 것도 악행하는 것도 다 내 한마음에 있다' 는 법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법해 주십시오.

답 말이야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부 차원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악한 것을 쓸 때는 어떻게 되고, 선한 것을 쓸 때는 어떻게 되나, 주는 걸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는데 악한 걸 주면 나쁘다고 하죠. 그런 이치를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악한 것은 나쁘고 선한 것은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악하게 하지 말라' 고 하죠. '내가 악한 것을 받는다면 좋지 않으니까 만약에 남이 악한 걸 받는다면 좋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화신이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속상하는 악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 속으로 끊고 그러지 마시고 화가 나면 "야, 이 녀석아!" 이렇게 그냥 웃으며 화를 내세요.

속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이 상대방한테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상대방이 듣고 잘못된 걸, 잘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나 불쑥불쑥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또 따로 있지요. 그럴 때는 불쑥불쑥 화를 내지 마시고 내가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도 개의치 마시고 업이다, 유전성이다, 영계성이다, 인과성이다, 세균성이다 하는 것도 다 그냥 몰록 놓는 겁니다. 다 버리고 그냥 오면 오는대로, 가면 가는대로 그냥 편안하게 한군데만 믿고 오직 그냥 다 몰록 놓아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 때도 '아 여기 삼살방이 들었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삼살방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 그렇게 지어 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들게 하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풀릴 수가 없어' 한다면 풀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풀릴 수 없다, 있다' 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냥 '난 너만 믿어. 네가 네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지고 가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 하구선 거기다 몰록 놓고만 사신다면 차차 살다보면 '아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구나. 야 참 이거 묘하다' 이렇게 자꾸자꾸 한 건 두 건 '알게 돼요. 알게 됨으로써 뿌리가 깊이 박히지요. 그럼으로서 나중에는 아무 데를 갖다 세워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이 살 수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진짜로 아세요.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 이러는 것은 다 놓고, 놓는다기 보다도 놓는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사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했든지 잘못 했든지 나쁘게 다가오는 거든지, 좋게 다가오는 거든지 그냥 좋으면 '좋다' 언짢으면 '언짢다. 언짢은 것도 너니까, 너 알아서 다 좋게 해.' 하고선 그냥 좋게 사세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철부지 애처럼 말입니다. 철없는 애가 막 뛰어가는데 저기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요. 그렇게 뛰어가니깐 어른이 탁 잡지요. 철부지처럼 그렇게 살면, 자기가 아는 척을 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저건 •철부지니까 내가 뭐 일거수 일투족 다 도와줘야 될 거야.' 하고 다 이끌고 다녀요. 보디가드도 돼줄 수 있고, 지켜주고, 이끌어 주고 온통 해결사도 돼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관세음보살도 돼주고, 지장보살도 돼주고, 칠성부처도 돼 주고, 주해신도 돼주고 주산신도 돼주고, 모두 어떤 것 안돼주는 게 없이 다 응신으로서 돼 줘요.

근데 내가 하는 척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 그것은 다 돌보지를 못하지요. '저거는 잘났다니까 잘난대로 그냥 살게 둬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냥 아무 잘난 생각없이 그냥 낭떠러지가 돼도 그냥 한군데만 믿고 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다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나 자기가 안다고 아만 · 아상을 가지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누가 거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라는 생각을 놓고 그냥 편안히 여여하게 사세요.

"제 주인 챙기지 못하니까 집이 비어 망가지죠"
"옭아매서 쥔것 놓지 않으면 옭매듭 풀릴까요"

잘난 생각없이 한군데만 믿고가면 관세음도 돼주고 지장도 돼주고 응신이 돼서 다 이끌어 줍니다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제3의학 · 심요법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밀교 · 기공 · 지압 · 쑥뜸

본래의 건강을 찾습니다.

당뇨 · 고혈압 · 간경화 · 관절염등
※ 3~7일간 지도 ※

대한불교조계종 **如來院**
능인 간병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39-11호
0351-875-0342/015-8487-3674



■한달분(60첩)

1팩으로 쑥탕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IMF가격: ~~₩98,000~~
→ ₩50,000

천호한방 담당 정 재 환
015-7705-5457/016-341-4584

평생무료진료 천호가족이 되신 분은 천호인술인의원에서 평생 무료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천호인술의원(전국 최대 의료보험요양기관)원장 히의학박사 한택현(前경지힘방병원장)-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 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강수상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동양사상을 공부하실 분★

■ 과 목 : 불교경전, 참선지도, 노장사상, 주역원문, 관상, 가상(家相), 풍수
■ 강 사 : 金 素 瑚 居士
(전강, 탄허스님 門下에서 수학 · 월정사 주역강사)

★ I.M.F 이 어려운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 출장상담도 해드립니다.

02)914-6551
011)755-5333
달마선원 김 소 호 합장

만다라 개운법 (九 성기학 급소) 학인모집

■생활철학, 운명판단, 운세개운, 풍수, 방위, 실점
■발행 저서
- 「변하는 손금, 바뀌는 운명 · 가정수상술」
- 「백리길 여행으로 운명이 바뀐다」
- 「만다라 개운법」

※ IMF시대, 시대 흐름을 알고 대처하는 지혜
※ 일본 운명, 관상술 한국지회장, 일본 점술협회 정회원

직접지도 저자 배 성 현 · 김 식 이
서울사무소 02)872-3452
수원사무소 0331)258-1669

동양비전특강

혼자서는 백년을 공부해도 인연이 없으면 알기 어려웠던 신선(神仙)이나 선도인(仙道人)들이 알고 있던 간단하고도 알기쉽고, 명확한 비급을 함께 연구할 회원을 약간명 모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의문점을 물어도 알고, 묻지 않아도 알고 일년 당월 당일 당시의 용건도 알고 마음속까지도 알고 비전되어온 도액비방과 의술단방도 알 수 있는 것이 동양비전입니다.

※ 상대앞에서 사주를 풀어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지도상담)

※ 동양비전연구학회 ※
02-597-6211, 017-332-1633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 3개월 졸업
●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통신생도 모집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강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동양철학, 침술)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풍수지리 운세도 직접 전문 감정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극빈불자는 수강료 무료 보시함.

강동구 길동 458번지 길동시장통(지하철5호선 길동역)
혜능불교대학 內 학 장 석 일 관 합장
☎ 02)482-4550, 488-1569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교양과정:일용생활불교의식, 상용의식, 통과의례 〈매주 월 · 목 오후 3시〉
●기본과정: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매주 월 · 목 저녁 7시〉
●중급과정: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매주 화 · 금 저녁 7시〉
●어산작법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매주 수오일 저녁 7시〉
●원왕생과정: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원왕생 봉사회원 모집

※각 과정 통신생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수련원 •

氣明綾屮子↔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밝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매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기를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016)340-4459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용굴산 종합심신 수련원

◆ 東 禪 寺 ◆

전통예술과 고유무술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종합 수련원으로 대금, 태평소, 가야금, 바라춤, 전통무용, 사물놀이등과 선무도, 봉술, 전법, 호신술 등을 지도하여 文, 武, 藝를 겸비한 全人敎育의 場을 펼치고자 하오니 우리 문화와 예술에 관심 깊은 분의 많은 수련을 바랍니다.

- 일반 회원은 매주 화 · 목 · 토 수련가능
- 스님, 행자는 특별 개인지도하며 출장지도, 단체지도도 가능함
-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도자 자격부여(타 무술 유단지도 환영함)

0523)82-5074, 388-0921(FAX 겸용)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하계수련대회 유치

삼도봉의 청정계곡에 위치한 만계사에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학생 및 불교신행단체의 소규모(50名이내) 하계 수련대회를 유치할 예정이므로 대회개최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일정을 잡아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만 계 사
0547)437-4135 ~ 6

• 법회 · 공연 •

국악 · 전통무용 공 연

경로 · 환갑
각종 공연행사
기획 · 상담 · 공연

02)925-1303
서울예술공연기획
신 상 철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불교미술 •

탁자,닫집,법상,문짝,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함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옹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단
- 마산(진판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단 경상
- 서울(학림사) : 희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 貴 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성동석재불사공예사

■미륵불 · 지장불 · 석탑 · 석등
■석재 동물상 · 석재 · 조형물조각
■석재불사에 관한 모든 것

※천불 · 삼천불 · 만불 조성전문

T. 0357)31-8736
011)284-5101
012)321-6044
F. 0357)31-5549

•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귀하

■사찰소재지 : 경북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70번지 한국불교 태고종 **유정사**
■창건인 : 이 호 이
■대 표 : 송 현 출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8. 6.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 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기 타 •

무불스님 ● 달마보급



011-841-3591

승합차 구함

승합차(25.35.45인승) 싸게 보시하실 분 모십니다.

원 화 사
0353)58-8995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주)광 진 불 사

◆사찰을 찾습니다.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상 요양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노장스님(보살절)절의 예수재 및 천도재를 정상 운영하여 드리겠습니다.

02)943-9942

◆天 藏 地 秘
(음택 · 양택)

■ 사람의 無價寶는 解脫이요 땅의 無價寶는 天藏地秘이다.
■ 하늘은 땅을 돕고 땅은 사람을 돕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을 닮아가는 것이다.

農山 011-573-2700

◆토굴 사정상 급히 팝니다.

◇ 위치 : 경기 용인
◇ 부지 : 416평
◇ 건평 : 15평
◇ 가액 : 5,300만원

스님께서 유학을 급히 가게되어 양도하오니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357)31-8736
011)284-5101

◆ 사찰양도안내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전철역 부근
◇ 건 물 : 4층건물의 2층
◇ 건 평 : 약 30평
◇ 법 당 : 삼전불 · 지장단 · 신중단 · 영단(최고급 시설)
◇ 요사채 : 주방, 거실, 화장실 완비
◇ 보증금 : 2천만원, 월 60만원
◆ 입주즉시 법회가능

02)202-1123
011)255-3999

◆ 사찰 운영하실 분

◇ 위치 : 경희대 입구 회귀역서 2분거리
◇ 평수 : 4층 · 5층 약 70평
◇ 가격 : 4천만원, 월 85만원
◆ 특징 : 최고급 시설완비
◆ 교통편리한 곳임.

011)286-2680

◇ 시설비 · 보증금 포함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 불교서적, 에어콘, 앰프, TV등 모든 시설완비
◇ 축원문 210개 정도
◆ 스님열반으로 인하여 급매
◆ 종교 : 태고종, 일승종

0361)53-9481/55-7238
무 문 정 사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읍내
◇ 법당, 요사채, 산신각(30평)
◇ 부지 : 6만 2천평
◇ 산자수명 지기충만 연수원, 기도처, 고시원 최적지
◇ 창녕군청에서 3분거리
◇ 포장도로 주차장 완비
◇ 토속음식점 2동포함
◇ 매도가 : 2억 8천만원

051)817-1242~4
016)565-3366

◇ 위치 :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 대지 : 200평
◇ 대웅전 : 요사방 2개, 산신각
◇ 매도가 : 7천 5백만원

0559)32-4807

◆ 포교원 양도

◇ 대단위 아파트 단지
◇ 염창동(강서구)
◇ 26평 아파트 상가 3층건물의 3층
◇ 전세 : 4,000만원
◇ 권리비, 시설비, 월세 없음.

02)663-2671
02)664-8389

※ 오전 11시 이후 전화요망!

◆ 사찰전세안내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법 당 : 부처님삼존불, 약 15평
◇ 요사채 : 주방 · 거실 · 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약간

02)308-0788

◆ 포교당 안내

◇ 위 치 : 강동구 명일동
◇ 실평수 : 34평
◇ 가 격 : 3,500만원 (싯가는 8천만원임)
◇ 방 3, 주방 1.

02)3426-4488
02)511-1080

◆토굴, 절터 별장터(5천만원)

· 설악산 봉정은 봉황의 머리, 횡성의 봉복산은 봉황의 배, 봉황의 꼬리인 봉미산 두제곡 만나는 부처골, 정남향 일출일품, 전망일품, 청정지역, 암벽약수, 2층 황토토굴, 길 · 전기 · 전화 有
- 전 : 470평.
- 잠실에서 1시간 20분 소요.

0338)71-7745

◆ 급 매
◇ 전세 4천
◇ 기도도량
◇ 매매나 전세 모두 가능

0582)536-2195
무 안 법 사

◇ 사찰안내

◇ 위 치 : 경기도 장호원 (서울에서 1시간거리)
◇ 대 지 : 437평
◇ 층건평 : 83평(방 11개) 법당(27평), 사무실(15평) 요사채 41평(방4), 주방, 화장실
◇ 가 액 : 4억 5천만원
◇ 특 징 : 발전요충지의 명당 (직접면담-조절가능)

0331)32-4999
012)925-6118

◇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 건 평 : 70평
◇ 가 격 : 전세 5천 / 시설비 1천
◆ 도심지내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포교원 운영지역으로 적합함.

033)668-9918

◆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시내 (수련장 이용가능)
◇ 평 수 : 60평 (3층건물 3층-현대식)
◇ 가 격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5만원
◇ 특 징 : 후불탱화, 석가모니불 모셔짐
◆ 현재 운영중, 즉시 입주법회가능

053)654-7163
011)790-7162

경남지역 전통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경남지역 市 교통중심지 ◆부 지 : 500평 이상 주차장 有
◆법 당 : 31평 내11포 외7포 고급목재 및 고급 단청 필 ◆요 사 : 100평 이상
◆주지실 : 10평 / 명부전 : 15평 단청필 ◆시 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가 액 : 9억 8천만원 ◆주차장 : 차량 무한대 주차가능
◆특 징 : 경남지역에서 개인사찰로서 가장 규모가 큰도량으로 스님 신병으로 인하여 불교 발전을 위하여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합니다. 기타 유료양로원이나 유치원 불교 사회복지 기관으로 경남지역 市 중심지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 무속인이나 일반인께는 절대 양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십시오.

상담 : 012)1648-6334 / 02)512-4447

⊙ 본 사찰은 정법도량이므로 일반인, 보살, 무속인 및 대리상담 절대 사양합니다.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 (황토흙방 3)
◇ 가액 : 5천 5백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에서 800m 떨어진 깊은 산속

0667)772-5401
015)8483-5963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 사 찰 급 매

◇ 위치 : 서울 삼각산 (정릉 국민대 뒤)
◇ 국림공원 임야 약3천평 건물 5동
◇ 계곡과 기암괴석, 울창한 숲속 천연의 약수
◇ 서울 강남까지 조망가능
◇ 가격 : 6억원정

02)512-3092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부지 : 60평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목욕탕

◇ 가격 : 1억 2천만(절충가능)

02)936-4785

◆ 사찰 양도

◇ 위치 : 강원도 홍천
◇ 평수 : 약 500평
◇ 법당 15평, 산신각 4평, 요사채 3개

02)941-3195

◆ 사찰 양도받으실 분

◇ 위치 : 부천역서 5분거리 산속에 위치
◇ 부지 : 1천평
◇ 법당 25평, 요사채(小) 9평, 산신각
◇ 평수 : 2층건물 100평
◇ 가격 : 상담후 절충!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미륵불 · 석등 조성되어 있음.

011)281-3256

◆ 운영 맡아서 하실 분

◇ 위치 : 노원구 석계역 부근
◇ 평수 : 약 30평, 3층건물의 2층
◇ 가격 : 약 2천 5백만 (부대비용 일체포함)

※ 상담후 절충가능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2)948-8020

생활역학(命理, 周易) 학인모집

본 대학 생활역학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오전 · 오후)
① 명리학과정 : 평생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직업 등
② 주 역 과 정 : 주역과 육임속에 숨겨진 생활과 밀접한 역학의 실용 비법(來意法, 來人有利害法, 직업선택, 소송승부, 가택, 求財 等)을 강의

■ 교 육 기 간
3개월 (각 과정)

■ 원 서 접 수
1998년 6월 12일 ~ 7월 22일

■ 개 강 일 시
1998년 7월 22일 오전 9시

대학통신과정(1년)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대학과정
※ 본 연구소는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함.
※ 초심자라도 포교의 도움이 되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教 梵音大學
生活易學 研究所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외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鎭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①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도량석, 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천수경,행선축원,불공시식등
②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③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8년 5월 18일 ~ 6월 19일
■ 개강일시 : 1998년 6월 19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1년)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대학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教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보약보다 낫다는 쑥!

도대체, 쑥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을까요?
새롭게 밝혀진
쑥의 100가지 효능!
과연 어떤 것일까요?

□ 100가지 병을 고치는 의초 쑥!

쑥 유태종 박사의 식품보감에 의하면 쑥에는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무기질, 칼슘, 치네올이 풍부한 식물이다. 특히 비타민 A는 눈을 밝게 하고 피부를 탄력있게 하며 병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해 주는 면역효과가 있다.

쑥 비타민 C도 많아 감기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 피로회복에도 쑥을 달여먹으면 좋다.

쑥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이 나빠 고생하시는 분께 좋으며 옛날부터 창달에는 쑥을 달여 먹었다.(최식영교수의 임상실험으로 쑥이 간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

쑥 변비에는 쑥떡을 해 먹으면 아주 좋으며 위장질환에는 쑥을 달여 먹으면 좋다.

쑥 정혈작용이 뛰어나 쑥은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므로 고혈압, 저혈압 및 신경통에 효과가 좋다.

쑥 면역기능 및 항암작용까지 있어 부끄럽히 쑥뜸을 뜨고 쑥을 달여 먹으면 잔병치레를 하지 않으며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 주므로 항암능력이 길러진다 이렇듯 쑥의 엄청난 효험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현대 한방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 · 담배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1팩으로 쑥탕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전화주시면 댁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 천호 인술한의원 기술제휴 한의학박사 한택현 (前명지한방병원장) -

쑥을 사랑하는 사람들
T) 015-7705-5457/016-341-4584 F) 02-565-3513
담 당 정 재 환

전국 법사 연합회 총회 공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불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하여 현장포교 하시는 법사님들을 모시고 전국법사 연합회 창립총회를 공고하오니 법사 여러분들의 적극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1998년 6월 30일 오후 7시
■ 장 소 : 송현클럽 (한국일보 13층)
■ 대 상 : ① 불교대학 운영법사
② 일선포교원 운영법사
③ 현장을 포교하는 일반법사
※ 문의 : ☎ 02)732-1206

◆ 법사 5대 헌장 ◆

1. 우리 법사들은 이 시대에 맞는 대승불교 운동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실현한다.
2. 우리 법사들은 오늘의 폭 넓은 포교를 위해 법사들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함을 자각한다.
3. 우리 법사들은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바르게 전달키 위해 올바른 지도자 상을 확립한다.
4. 우리 법사들은 오늘의 한국불교의 개혁운동을 통하여 불교 교단의 발전을 이룩한다.
5. 우리 법사들은 국민이 필요한 불교, 사회가 요구되는 불교를 만들어 간다.

한국불교 전국 법사 연합회

명리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
滴天髓闡微
(上)卷 芮光海 譯



명학(命學)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바른 길이 있으며 바르게 배우고 익힘으로써 올바르게 行할 수 있으니 흥미로움에만 관심을 두어 뭇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출처(出處)도 근원(根源)도 알 수 없는 허황된 말들 만을 나열한 그릇된 冊과 이러한 글을 배우고 익혀 잘못된 논리에 젖어든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는 안 될 것이다.
- '筆者의 辯'에서

494쪽
값 20,000원

통신판매
● 조흥은행 - 436-04-054683
● 국민은행 - 833-24-0147-067
● 서울은행 - 39807-0602412
● 축 협 - 047-11-12095-316
예금주 · 서 찬 배

도서 출판 指南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6-4 (3층) 전화 (02) 387-8429 전송 (02) 357-7493

재가불자를 위한
전통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본 연구원은 재가 불자들의 일상 생활속에서 신행활동을 체계적이며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불교의 전통수행 방법을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생활불교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재가 불자들의 일상사와 인생 결절점의 통과절차에 필요한 불교의식을 간결하면서 이해하기 쉽고, 참여가 용이하게 구성하여 전통불교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좌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회 포교분과 위원회에서 재가불자 신행 체계화라는 주제에 따라 연구한 내용입니다.

● 교 양 반 ●
일용의식 : 조석예불, 기도, 공양의식, 법회의식
상용의식 : 문성, 안택, 개업, 준공의식
통과의례 : 돌, 결혼, 회갑, 장례, 성묘의식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기 초 반 ●
도량석, 종성, 예경, 불공, 천도의식, 특별의식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 금강경강의 ●
<첫째, 셋째 토요일 저녁 7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원 장 성 마
(불교방송문화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 강사)

甘露 · 甘露茶
감로와 감로차

부처님 오실 때 하늘이 **단이슬(감로 甘露)**을 내려 불탄을 축복했으며, 감로를 부처님께 이슬처럼 뿌려 부처님을 축복하고 발원하여 소원을 성취하십시요.

감로에는 천연방부제와 천연방미제(곰팡이 방지) 성분이 있어서 옛부터 부처님 목욕을 시키는 관불회(灌佛會)때 성수로 감로차수(甘露茶水)를 사용했고, 국어사전에 **「감로차는 부처님께 올리는 달고 정한 차」**라고 되어 있듯이 감로는 불교의 성수입니다.

※ 감로는 비당성 천연감로차(非糖性 天然甘露茶)의 추출액입니다.
◈ 특약점 및 남녀 영업사원 모집

동우산업(주)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번지 1219호
· 전화 : 02)3675-5959
· FAX : 02)3675-5958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및 편입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야간■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 (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통신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위탁교육 수료후)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1998년 7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 1998년 3월 7일 입학식 (동국대문화관)후 정상수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511-2026~8)
◑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 화 불 교 대 학

제11회 까치마을 여름 수련대회 모집안내

저희 까치마을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래와 같이 가족수련회 및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이란 심신을 수련하므로서 마음과 몸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문명과 이기주의로 나밖에 모르고 편하게 살려다 보니 윤리도덕은 사라지고 IMF라는 경제한파가 왔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감사하고 남을 위하는 자비심과 협동심, 인내심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나누어 주는 보시행(普施行)으로 공동체 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를 떠나 부처님 품안에서 가족이나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자녀들의 심성(EQ)을 길러주는 수련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구분	대 상	일 자	인 원	회 비
1차	가 족	7월 24일~26일(2박3일)	50가족	1인당 20,000원
2차	청소년	7월 27일~30일(3박4일)	200명	1인당 30,000원

※서울 참가자는 단체로 출발 (교통비별도)

● 아 래 ●

■ 장 소 : 김천 복암연수원(직지사옆)
■ 대 상 : 1차: 일반가정 가족
2차:초중고생
■ 준 비 물 : 개인별로 쌀대(大)1되, 필기구, 세면도구, 양말5켤레, 모포, 수건5장, 손전등
■ 마 감 일 : 6월 30일 마감(수련회 당일은 접수가 안됨)
■ 행사내용 : 1차:불자로서 익혀야할 기본예절, 심성개발 프로그램, 극기훈련, 캠프화이어, 산행, 가족끼리의 대화의 시간 외 기초교리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2차:불자로서 익혀야할 기본예절, 심성개발 프로그램, 극기훈련, 캠프화이어, 산행, 발우공양, 미니올림픽, 찬불가, 참선의 실제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 접 수 처 : 까치마을 (02)83-6646~7 FAX: (02)873-6648
(우편:151-0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6동 391-9번지 지장사내)
■ 회비송금처 : 국민은행(812-21-0329-747:엄욱상)
실명이므로 송금후 전화 부탁드립니다.
■ 기 타 : 연수후 기간중 공양을 해 주실 자원 봉사 보살님을 모집합니다.
연수기간중 보조교사를 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강 사 : 법전스님(까치마을 촌장, 지장사 주지), 법명스님
황학헌(불교 교육 연구원 원장), 장덕수(불교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불교계사찰 및 어린이회 특가한시판매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까치마을에서는 어린이 포교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스님과 선생님들에게 보다 좋은 제품을 원가에 가깝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제품들의 이익금은 저희 까치마을에서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불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용 T ₩3,500원
조등학생용 노트 ₩ 400원

· 주문시기 : 6월 1일~7월 30일까지
· 주문방법 : 전화로 주문후 온라인 송금하시거나 서울, 경기지역은 방문을 원하시면 방문후 주문받습니다.
- 까치마을(지장사) 전화 : 873-6646
- 혜일기획 전화 : 278-1681
- 장덕수 핸드폰 : 016-304-1681
· 담 당 자 : 법전스님, 장덕수
· 온 라 인 :
- 국민은행 806-24-0129-284(예금주:장덕수)
- 한일은행 020-175515-02-501(예금주:장덕수)
※실명이므로 송금후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티셔츠는 300매 이상 주문시 기존 나와 있는 디자인외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인쇄해 드립니다.

불교유적도 보고 향토문화도 즐기고

떠나보자, 가족과 함께. IMF 한파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나들이터들이 즐비하다. 가족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나들이장소로는 경기도에서 관광자원화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테마마을〈표〉이 특히 눈길을 끈다. 테마 마을은 전통과 문화, 예술, 특산품, 전통음식, 자연환경 등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조성하는 곳이다. 이들 테마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불교유적지들을 소개한다.

수도권 '테마마을' 가족나들이 안성맞춤

포도마을 안양시 동안구 비산·관양동에는 통편포도마을이 있다. 안양유원지옆 제약회사 앞에 중초사터 당간지주와 삼층석탑이 현대 건물과 어우러져 있다. 근처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마애석종이 있다. 도선국사·지공화상·나옹선사·무학대사·서산대사·사명대사등 이름 높은 선사들이 수행했다는 삼막사에 오르면 마애삼존불상과 남근석·여근석이 마주 보고 있는 것도 볼거리다.

거봉포도마을이 위치한 안성시에는 청룡사·약천사가 있다. 칠현산 칠장사에는 오불회괘불탱을 비롯해 봉업사 석불입상·철당간·혜소국사비 등 유물이 그득해 불교 유물의 보고라 불린다. 죽산리 오층석탑, 삼층석탑, 매산리 석불입상 등은 봉업사에 있던 유물.

연성포도마을이 있는 시흥시의 소래산에는 소래산마애보살입상이 선각되어 있다. 수암사지, 원당사지 등의 사지도 둘러볼 만하다.

문화·관광마을 문화관광마을이 있는 양평군에서 용문산에 올라보자. 용문산 용문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 용문사 은행나무는 신라 의상대사가 꽂아 놓은 지팡이라는 전설이 전해내려온다. 온 가족이 다함께 손을 잡고 은행나무 둘레를 재보는 것도 신나는 일이다. 용문산에는 상원사, 사나사 등의 사찰도 있다.

다산 문화공원이 조성되는 남양주시에는 수종사 다보탑이 유명하다. 봉선사 큰법당에서 부처님전에 인사를 드리고 대종을 구경하자. 춘원 이광수 기념비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보광사와 흥국사도 남양주시에 있다.

주한미군이 40년간 주둔했던 평택시의 송탄관광특구. 여기서 고려 철조석가여래좌상이 봉안된 만기사, 절 앞 바다에서 어부가 건져냈다는 전설 속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는 심복사 등을 찾아 불법의 바다에 몸을 담궈보는 것도 색다른 맛으로 다가온다.

안성 거봉포도·파주 장단콩 유명
인근사찰 참배…청소년 역사체험

콩·오이마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에는 건강식품으로 애용되는 장단콩을 재배하는 장단콩마을이 있다. 장단콩마을에서 나와 마장리 유일레저에서 수영, 보트타기, 삼림욕을 즐겨보자. 보트타기가 지루해지면 용미리로 나와 보광사와 용암사 쌍미륵불에 참배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좋다. 특히 쌍미륵불은 득남을 기원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순지오이마을이 있는 용인시에는 조선초 18나한상을 조성한 무학대사의 중건담으로 유명한 백련사가 있다.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용덕사는 요사채 뒤에 도선국사가 지었다는 굴암이 특이하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문화관광마을이 있는 양평군에는 조선 태조가 경기도 최고봉이라는 뜻으로 이름지은 용문산이 있다.

◇테마마을과 인접 불교유적지

마을	위 치	유 적
먹골배마을	구리시 갈매·동구동	아차산 대성암, 의상대사가 수련했다는 천연암굴
갈비마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창성사 진각국사 부도비, 봉녕사, 팔달사
덕포진지구	김포시 대곶면 선안리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 문수사, 금정사, 용화사, 약천사
등자배마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봉국사, 망경암 마애여래좌상
애니골 학사촌	고양시 일산구 중동	태고사 원증국사 탑비, 삼천사
분재촌마을	의왕시 청계동	백운사, 청계사
산촌휴양마을	동두천시 광암동	소요산 자재암
천서리막국수촌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고달사지, 신륵사, 목아박물관
송산배마을	의정부시 송산동	회암사지, 어둔리사지
꽃누리교장	가평군 37번 경춘국도	현등사 삼층석탑, 함허대사 부도, 동종, 운곡암
모세관광촌	화성군 서신면 제부리	용주사 범종,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만의사
참외마을	연천군 백학면 노곡1리	심원사 부도, 오봉사지 부도, 기곡리사지 석불좌상
소머리국밥촌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춘궁동 동사지, 송산리 약사여래상, 백련사 부도
장흥문화의 거리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백화암, 교현리 석굴암
파주골순두부촌	포천군 영중면 성동4리	흥룡사 부도
영당마을	광명시 소하동	이원익 영우(影宇), 영정, 청룡사
잔달래촌	이천시 마장면 목리	산돼지가 물어 스님을 구했다는 전설의 저명산
대부포도마을	안산시 대부동	단종의 모 현덕왕후 권씨의 쾌릉지 소릉
오이마을	오산시 서동	보적사, 선불사, 반야암
영상문화단지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지구내	

건강 365일 〈23〉 함박꽃뿌리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여자들에게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대하증이다. 보통 냉이라고 한다.

대하증이 생기면 부부생활을 기피하게 되고 부부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우리 몸의 조직이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다. 수십억개의 세포가 결합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생리현상도 따지고 보면 세포의 신축운동에 불과하다. 오므려졌다 펴지고 또 펴졌다 오므려지고 현미경으로 세포운동하는 것을 TV화면을 통해서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축작용 중에 축작용 즉 수축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피부나 근육조직이 수축작용이 안돼면 피부 근육조직이 느슨하게 이완돼서 식은 땀이 나고 자궁에선 냉이 흐르고 대장에선 설사를 하고 위에서는 복통이 일어난다. 〈동의보감〉에 보면 함박꽃뿌리는 혈맥을 통하게 하며 어혈을 걸러내고 복통을 멈추고 농(膿)을 없애고 월경을 통하게 한다고 나온다. 삽주뿌리와 함께 달여 먹으면 비장을 돕고, 천궁과 함께 달여 먹으면 간장병에 좋고, 인삼이나 계지와 함께 달여 먹으면 식은 땀에도 좋다고 한다.

50세 주부 김모씨는 설사와 대하증으로 고생하던 중 함박꽃뿌리와 삽주뿌리, 감초를 넣고 달여 한달쯤 먹었더니 나았다고 한다. 병원에 가면 대하증을 칸디다균, 트리코모나스균이라 하여 살균제를 사용하지만 이는 세포의 수축작용이 안돼서 오는 현상들이다.

비만증이 있는 방모 주부는 몸무게가 70kg 정도 나가 비만과 피로감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이 주부에게 삽주뿌리와 함박꽃뿌리의 장복을 권하였다. 3개월 정도 복용하니 몸무게가 7~8kg 정도 빠지는 등 옛날 모습을 찾아 미인이 되었다. 피로감 역시 없어졌다고 좋아했다.

소음인 중에 췌장이 약한 경우가 있다. 췌장에서는 우리 몸의 수분을 총체적으로 조절한다. 수축작용이 약화되면 근육 속에 수분 조절이 안돼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 비만증이다. 수분, 노폐물, 지방질이 분해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삽주뿌리 10g과 함박꽃뿌리 5g을 함께 달여 하루에 두 번 복용하면 좋다.

비만·설사·대하등 치료 효과
식은땀엔 인삼·계지와 달여 복용

삼림욕으로 스트레스 날리자



◇울창한 숲에 들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삼림욕은 심신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다.

관광공사 자연휴양림 7곳 추천

나무들이 왕성한 호흡을 시작하는 6월. 울창한 숲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달래는 삼림욕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다. 한국관광공사는 6월중 가볼만한 곳으로 전국 자연휴양림을 선정했다. 자연휴양림 주변에는 다양한 부대시설과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어 가족단위 나들이에 적격이다.

덕유산 울창한 산림과 숲속교실, 온갖 야생 동·식물의 서식으로 자연박물관을 찾은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인근의 치악산 상원사, 오대산 월정사 등을 둘러보면 좋다. (강원 횡성)

박달재 경상도 선비 박달과 충청도 금봉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울고 넘는 박달재'로 유명하다. 월악산 미륵리사지, 덕주사, 사자빈신사지석탑 등 불교문화재가 많다. (충북 제천)

남 이 울창한 천연림과 맑은 물, 기암절벽, 폭포 등 경관이 수려하다. 대둔산 태고사, 서대산 서대사, 진악산 보석사 등 금산팔경이 유명하다. (충남 금산)

장 곡 심산유곡과 천연림을 배경으로 산책로, 수련원, 자연관찰원 등 각종 수양시설이 있다. 주변에 제2석굴암, 팔공산, 동화사, 은해사 등이 있다. (경북 군위)

금원산 덕유산과 가야산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가섭사지 마애삼존불, 상동석조관음입상, 농산리석불입상 등 뛰어난 불상이 눈길을 끈다. (경남 거창)

덕유산 덕유산국립공원 무주구천동 입구에 위치해 폭포와 계곡, 울창한 수목이 일대 장관을 이룬다. 안국사, 백련사 등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전북 무주)

제암산 사계가 뚜렷한 제암산은 모든 산을 압도하는 황제의 산으로 불린다. 주변에 가 볼만한 곳으로 송광사 선암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남 장흥)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전통사찰음식 무료강좌·시식회



◇사찰음식연구소가 운주문화축제에서 가진 공개강좌.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는 개원 6주년을 맞아 16일~19일까지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 3층 대서양관에서 전통사찰음식 무료공개강좌 및 시식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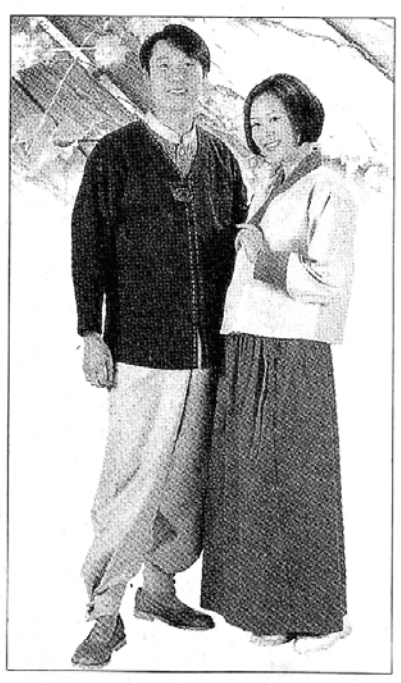
이번 공개강좌는 육체와 마음의 조화속에서 참다운 건강을 추구하는 전통사찰음식에 대한 이론을 비롯해 연근물김치, 호박김치, 연근지짐, 두부소박이, 표고버섯탕수이 등 전통사찰음식의 실기강좌와 시식회도 갖는다. (02)245-0904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매월 첫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입니다.'

민족의 멋 우리의 옷 예 맥 생활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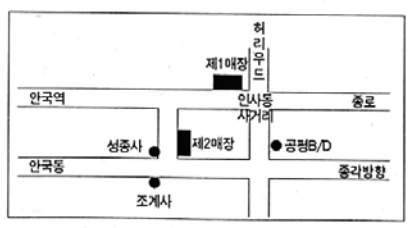


우리옷 "예맥"의 제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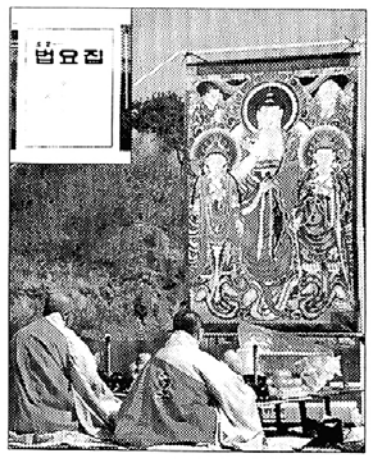
- 수준 높은 천연 염색 실크 제품
- 가벼운 소재와 전통미의 생활 한복 및 아동복
- 각종 연회 예복 제작
- 스님들의 간편복
- 신도님들의 단체복, 기도복 제작
- 기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본 사 : 조계종 포교원 앞 위치
직 영 매 장 : 인사동 4거리 위치
전국대리점모집 : 佛子로서 본찰 주지 스님 추천서 요
※ 판매책임자 구함(여 30세 이상 불자)

본 사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원당BD 202호)
(株)예맥 어패럴
전 화 : 737-0804~6 팩스 : 723-4599
제1매장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4번지
☎ (02)723-4600
제2매장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1 ☎ (02)738-3939



다중용 법요집 및 괘불



〈 괘 불 〉
- 규 격 : 높이 7자, 폭 4자 5치
- 특 징 : 방수완벽, 조립간편
- 가 격 : 90만원(괘불대 포함)

▶ 괘도내용 : 법회식순과 찬불가, 기초교리
감 수 : 암도 큰스님

佛教布教資料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厚岩洞 195-6
電 話 : (02)772-9052, FAX : (02)755-0479
(02)672-1333, 723-4599

불자 세상보기

지구촌 식량위기 초읽기

세계곡물비축 48일치 불과…기상재해 등 원인
한국은 3개월치 보유…무분별 농지전용 삼가야

엘니뇨가 몰고온 범 지구적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세계 식량위기가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증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엘니뇨와 연관된 지구촌 재앙은 이미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에 이르기까지 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남미 브라질에선 1천만명이 기아 위기에 빠졌으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선 5백만명이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다. 엘니뇨가 만든 이상 기후는 올해 전세계 37개국 수천만 주민을 굶주림에 빠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식량생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19억톤에 불과해, 37개국이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美 윌드워치 연구소도 세계곡물 비축량이 사상 최저 수준인 48일분으로 줄어들어 오는 2015년까지 약 8억 인구가 식량난에 허덕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식량난은 걷잡을 수 없는 국제 식량파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국제적 식량위기와 시장파동이 현실화할 경우 곡물자급률이 겨우 30%에도 못미치는 우리로서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되어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이와관련 최근들어 현저히 취약해지고 있는 농업생산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식량안보를 주안으로 한 전략적 곡물 수급계획을 정부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엘니뇨가 장기화하면 식량부족과 곡물파동도 만성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정의 주된 관심사를 식량안보와 환경농업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도시인근의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재배면적 감소도 개선해야 할 부분.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쌀 보리 감자 고구마 잡곡 등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이 지난 10년 동안 24%나 줄었다. 지난해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131만5천ha로 지난 88년 173만6천ha보다 42만1천ha가 줄었다. 생산량도 88년 729만9천t보다 15.8%가 감소한 614만3천t을 기록했다. 곡물 비축량은 8백만석으로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식량 자급률 1% 향상' 운동을 벌이고 있는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병국(52)회장은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면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장래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지금같은 IMF체제에선 식량자급이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 연합회는 ▲휴경지 일소로 식량증산 ▲이모작지 활용의 적극화 ▲외화절감을 위한 사료작물 심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한 톨의 곡식도 소중히"

〈불본행집경〉에는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기 전에는 일체 음식을 안 먹겠다"고 결심했으나, 부처님의 건강을 걱정한 정거천(淨居天)의 간청으로 하루에 삼(麻)씨 하나, 보리 하나를 잡숫고 8년간 수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수행자들은 이처럼 목숨을 연명할 정도로만 음식을 섭취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사회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열량의 음식이 필요하지만 승가의 청빈한 발우공양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현재 일부 실직자와 그 가족들은 IMF관리체제로 인해 세 끼 식사를 한·두 끼로 때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동포인 북한을 비롯 세계 각국의 빈민들이 하루 한 끼의 식사를 때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지혜로운 농경정책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실천해 그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불교사회연구소 양재혁 사무국장은 "쓰러져 가는 농업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식량 자급도를 높이는 일은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통일농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들었다

지난 9일 햄버거에서 O-157 대장균이 검출돼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지역 대형음식점에서는 불결한 음용수와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다 적발되었는가 하면, 초등학교 집단급식과 결혼 피로연 등 각종 행사에서 집단 식중독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여름철에 유행하는 콜레라 등의 각종 전염병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식물 유통과 보관, 조리과정의 청결, 개인위생의 철저한 관리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위생과 관련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위생 "깨끗함 즐기면 병이 적다"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 〈유교경〉

▨비구는 보름마다 목욕해야 하는바, 병 없는 비구는 응당 이를 받아들여 그냥 지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사분율〉

▨보살마하살은 입는 옷과 침구를 더럽게 안하고 깨끗하기를 즐기므로 병이 적으니라. 〈마하반야경〉

▨밥을 다 먹고 나면 치목(齒木, 이를 닦는 버들 가지)을 깨물고 맑은 물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근본유부비나율경〉

▨더러운 손으로 물그릇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응당 배워야 한다. 〈해탈계경〉

▨비구는 깔개와 발씻는 그릇, 발 닦는 수건, 물 담는 그릇에 이르기까지 모두 깨끗이 해야 한다. 〈사분율〉

▨만약 가래침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사람 없는 곳을 향해 뱉어야 하며, 병 있는 사람은 타기(唾器)를 사용하되, 모래나 돌 풀 흙 따위를 그릇 속에 넣어 넘치지 않게 하고, 자주 씻어서 냄새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근본살바다부율〉

▨비구는 마땅히 방사(房舍)를 치장하고 침대를 털며, 침구는 볕에 쬐고 방안의 거울을 치우며, 방을 청소할 때는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닦으며, 일정한 곳에 수건과 각건(脚巾, 발닦는 헝겊)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오분율〉

▨목은 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작은 벌레가 생겨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물은 거르지 않고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정법념처경〉

▨모든 대중은 모름지기 물을 걸러 마셔야 한다. 물을 거르고 나서 자세히 보아, 손바닥의 가는 금이 비쳐 보인 뒤에 써야 한다. 〈승기율〉

▨무릇 옷을 빨면 나쁜 냄새를 제거하고 서캐나 이도 생기지 않아서 몸에 가려움이 없게 된다. 〈근본살바다부율〉

▨보살은 깨끗함을 좋아하여 번뇌가 없으며, 의복이나 침대도 역시 깨끗하기에 병이 적다. 〈방광반야경〉

▨깨끗한 채소 위에 대소변을 하든가, 눈물이나 침을 떨구어서는 안된다. 또 먹는 물 속에 대소변을 하든가, 눈물이나 침을 떨구어서도 안된다. 〈비내야경〉

▨계절을 따라 5근(根,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4대가 뒤바뀌어 늘거나 줄거나 함으로써 몸에 병이 나게 된다. 〈금광명경〉

"인터넷으로 월드컵을 본다"

월드컵 정보에 목마른 축구팬은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통해 월드컵본선에 출전한 32강의 전력과 스타 선수의 이모저모, 재미 있는 뒷얘기 등을 볼 수 있다. 사진은 대한축구협회가 새로 만든 영문 홈페이지(www.kfa.or.kr).



◇월드컵 관련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	주요내용
www.france98.com	경기 공식 일정, 결과, 선수 정보, 개최 도시의 역사와 문화 등 관광에 필요한 기본정보.
www.fifa.com	국제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 월드컵역사, 경기규칙, 일정, 참가팀 소개.
www.wcup.com/uk/	역대 대회 기록, 결승전 득점 장면 등영상 제공.
www.worldmedia.fr/soccer	본선 진출 32개국 소개. 6월12일부터 결승전까지 모든 경기 인터넷 라디오로 중계
www.worldcup.sportnet.com	본선진출국 광가전 소식 및 경기내용 분석.
espn.sportszon.com	최신뉴스. 경기 일정. 팀별 최신뉴스.
www.sportsline.com	최신 뉴스. 팀 소개. 선수 사진. 인터넷 쇼핑몰.
www.cnnsi.com	최신 뉴스. 월드컵 역사. 경기 일정. 각 팀 소개.
www.kfa.or.kr	한국 축구의 역사. 주요대회 참가기록. 국가대표선수 신상명세. 한국축구 최신 뉴스.
www.worldcup.shinbiro.com	한국 및 외국팀 소식. 경기일정. 스타들의 홈페이지 안내. FIFA랭킹.

국가유공자 주택 무료수리

중견건설회사인 금성백조주택(회장 정성욱)이 지난 94년부터 대전지역의 국가유공자들 가운데 집이 낡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구옥을 5년째 무료로 개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 화제. 이 회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추천받은 국가유공자 가운데 가장 낡은 집에서 생활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가구를 선정해 집을 개량해 주고 있다.

실직자에 예식장 무료로

광주 남구 주월동 하나예식장(대표 이윤철)은 실직자와 장애인 등 가정환경이 불우한 사람에게 결혼예식을 무료로 치러주기로 하고 9일 광주시내 구청과 사회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무료 결혼식을 올릴 대상자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식장측은 구청, 동사무소, 복지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실직자, 장애자, 불우이웃 등을 추천받아 이들에게 신부화장에서부터 신랑·신부 예복대여, 피아노 축가 연주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신답초등교 효도 약속 10가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모님께 제 얼굴과 모습을 자주 보여 드리고 같이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에 대한 '효도 약속 10 가지'를 의워 실천하도록 이끄는 학교가 있다. 화제의 학교는 신답초등학교(교장 김정자). 신답은 학교 특색사업 중 가족 사랑 다지기의 하나로 정한 효도 약속 10 가지를 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외운다. 효도 약속 10 가지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말로 표현합니다 △부모님의 장점을 흉내내고 본받습니다 △부모님의 단점은 못 본 체하고 모른 척하며 못 들은 척합니다 △(남에게)부모님의 자랑을 합니다 △노후에 잘 돌봐 드릴 것을 미리 약속합니다 등이다. 이와 함께 어깨 두드려 드리기,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 드리기 등 생활에서 실천하는 효도를 조목 조목 강조하고 있다.

공익요원이 택시강도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택시운전사를 상대로 강도짓을 한 남양주시청 치수과 공익요원 허태환씨(20)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아파트 앞에서 서울 33아 9783호 택시를 탄뒤 도봉산 앞에 이르자 운전사 권모씨(42)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 현금 3만여원을 빼앗은 혐의다.

과외알선 속여 돈 갈취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7일 과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대학생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신모씨(31)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3월 모생활정보지를 통해 "은행 온라인 계좌로 4만원을 입금하면 과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지금까지 모두 1백3명으로부터 4백3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만약 사람이 술을 마시면 게으른 습성을 끌어내고 재물을 낭비하게 된다. 성내는 일이 늘어나서 온갖 다툼이 잦게 된다. 또 옷을 잃고 벌거숭이로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정행소집경〉

'죽음의 백색가루' 마약.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음식으로 술을 꼽고 그 병폐를 수없이 강조했다. 인류공동의 적인 마약을 없애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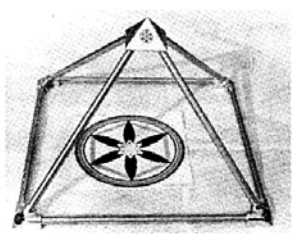
전세계 마약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마약특별총회가

세계인구 4.1% 마약 중독자
유엔 마약 총회 열어

8~10일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마약의 퇴치를 위해 각국 간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사법공조체제 강화, 마약거래로 생기는 돈의 세탁금지,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제조와 판매금지의 목표시한을 2008년까지로 정하는 등 국제협력체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세계의 마약 생산·밀매현황과 관련, 유엔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소비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3.3~4.1%에 달하는 1억6천2백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상품 "코스밋 피라밋"



피곤하거나 허약한 이들에게 기력을 보충해 주고 수험생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용 氣 발생기 '코스밋 피라밋'이 출시됐다. 동히란야 안에 자수정과 방울수정이 각각 부착돼 있어 氣와 에너지를 발생시켜 준다. 체질개선연구회. 가격은 40만원~60만원. (02)792-0960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 천일기도 三百日 전국 禪院長 · 祖室 · 方丈큰스님 특별초청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 선종본찰 (재)선학원 중앙선원은 김남천, 강도봉, 김석두 선사들을 비롯하여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들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되었습니다. 선학원은 3·1운동을 주도한 국운창출의 원찰이며 해방 이후에는 이효봉, 하동산, 정금오, 이청담 대선사께서 한국 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늘의 조계종 전통종단을 중흥케 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선학원이 한국선종불교의 聖地임은 自他가 아는 事實입니다.

이 時代의 佛教聖地인 禪學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의 王師, 無學大師께서 宮터로 잡은 창덕궁(지금의 비원)의 백토를 가지고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조성한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선학원의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은 현재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또한 선학원 중앙선원 동·하안거 방함록에 전국선원중 제일 먼저 설려 있든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教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教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에로써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三寶任께 발원하며 34년만의 선학원 단청불사를 계기로 삼아 한국 선종불교 중흥의 도량이 될 선학원 대작불사 서원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教聖地 歷史的 佛事에 善男善女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팔란과 고와 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아 래

특별초청 법어 松廣寺 曹溪叢林 方丈 梵日 普成大禪師

선종소의경전 금강경신림 산림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8년 윤5월 3일(양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주 최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 화주단

▣주 관 : 신도회 · 운영위원회 · 합창단 · 108보리심회 · 선정회 · 청년회

▣문 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TEL. 732-3327, 720-8583, 720-8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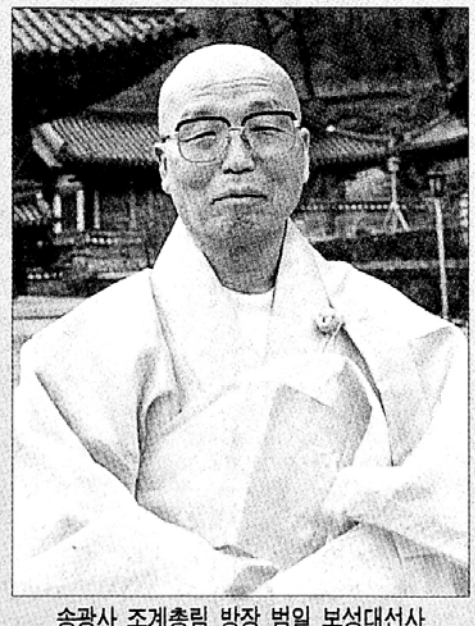
불기 2542년 음 윤5월 3일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장

千日기도 三百日 大法會

제4회 한국불교전통선(禪)중흥영산대설법회상

松廣寺 曹溪叢林 方丈 梵日 普成大禪師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범일 보성대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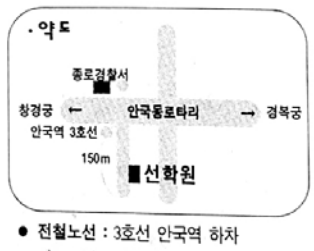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 (24년만의 불사) 완료
④ 선학원 선방 및 시민선실 내부공사 완료
⑤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시공중
⑥ 일주문 전통양식 건립불사

2차
⑦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三百日 전국선원장 · 조실 · 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教傳統禪中興靈山大說法會上 主催 제1회~제10회(매 백일간격으로)
⑦ 선학원 창건 사적비 새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⑧ 한국불교계 정화사 刊行 및 時代 佛教聖地 宣布法會

◆화 주 단
황자현심 손진여심 오만덕화 박보리성 권지애심 이보현심 박덕순화 이 광 덕
이관음행 박선해일 김복덕선 윤보광심 민길상심 송 경 헌 신 옥 수 김도월행
김마하연 유정혜성 송법성심 정선덕행 정본각성 이법왕자 이지혜장 고만덕성
이보원심 운영위원 및 합창단원

◆신 도 회
명예회장 염무영원
고문 양보타월 이연화심 이 경 희 김명심행 엄공덕화 정본각성
회장 이관음행
부회장 이반야행 최 복 식 유정혜성 황자재심
총무 신성지행 이법왕자
재무 손진여심 신월명심
감사 박선혜일
감사 권법연화
운영위원일동
합창단단장 유정혜성
총무 김진실행
108보리심회 회장 최 인 순
총무 박보리성
선정회 회장 이 성 응
부회장 박보리성
총무 이 상 희
총무 최 은 섭
운영위원일동
청년회장 이 상 훈



● 전철노선 : 3호선 안국역 하차
● 버스노선 :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8-1, 205, 543, 2, 8, 20, 153)

시론

중산층 줄고 있다



김 춘 남
〈용인대교수 · 사학〉

불과 일년 전만 해도 중산층임을 자처하던 어엿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회사부도다' '정리해고다' 하여 일자리를 잃고 '홈리스'가 되어 거리를 배회하는 딱한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른바 중산층이 그러할진대 저소득층이나 영세시민은 더 말해 무엇하랴.

부자는 불로소득 늘고 서민은 일자리 잃고

우리의 이같은 비참한 현실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일시적 · 일과성적인 것이라 한다면 고통과 충격이 이처럼 엄청나게 체감되지는 않을 것이다. 6 · 25 이후 그 어려웠던 50~60년대의 보릿고개 시절을 살아오면서도 오로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하나만으로 허리끈을 질끈 동여맨 채 경제건설에 매진해 오늘에 이르게 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성은 이 문제가 그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홈리스나 영세시민의 생계문제 해결도 우선 당장 시급한 문제겠지만, 심각한 문제의 본질은 다름 아닌 중산층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념상 매월 평균 2백~3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갖는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월급쟁이 등의 부류를 중산층(middle class)으로 규정한다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듯 싶다. 국민 일인당 GNP가 1백달러 남짓하던 60년대 불과 20% 정도로 추정됐던 중산층(물론 현재의 중산층과는 소득수준 면에서 많은 격차가 있겠지만)은 90년대 중반엔 50%를 넘어섰으며,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서민층까지 합하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하니,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 갖는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은 굳이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산층은 자본주의가 이뤄낸 최대의 결실이자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로서, 대체적으로 안정을 희구하고 보수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과 안정성을 가늠할 때 흔히 중산층의 건재 유무가 그 척도로써 거론되곤 한다.

그렇지만 IMF 관리체제가 들어서면서 금융자산을 가진 부유층은 고금리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중산층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 임금 삭감, 실업 등으로 자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환경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1년 이후 부유층 소득의 74% 내지 76%에 달했던 중산층 소득이 임금하락에 따라 올해는 68%, 내년에는 67.7%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부유층 소득의 35%까지 높아졌던 저소득층의 소득도 28.5%선으로 떨어짐으로써 소득격차가 지난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게다가 물가까지 높은 수준이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 될수록 계층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회통합에 적신호가 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전의 인도네시아 사태에서 보았듯이 경제위기는 곧바로 정치 · 사회적 기반을 깡그리 뒤흔들어 권력의 붕괴는 물론 급기야는 체제의 전복으로까지 비화하는 불씨를 안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같은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병행을 지론으로 피력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 총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선 중산층의 형성이 전제가 돼야함을 역설함으로써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논쟁'에 불을 댕겨 그 귀추가 자못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층 건재유무 따라 사회 · 경제안정 좌우

차제에 집권진영에서는 중산층 위기의 실상과 본질을 냉철히 직시하고 재인식하여 종전의 대증요법적인 안일한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어쩌면 중산층 문제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의 여부가 현행 국민정부의 사활은 물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열린마당

BBS · btn 살리기

불자들의 기대와 염원속에 설립된 불교방송과 불교TV가 개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불교방송은 광고수입 감소로, 불교TV는 케이블업계의 침체와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전파포교의 닻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최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도 불교방송후원회를 전국적 규모로 새롭게 조직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다. 이 두 방송국의 현재를 짚어보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후원회 활성화 불자동참 유도

혜담 〈스님 · 불교방송후원회장〉



불교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불자들에게 불교방송후원회의 동참을 유도해 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물론 후원회에는 스님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97년 6월 발족후 재단산하의 정식기구가 된 불교방송후원회에는 IMF 한파 전에는 매달 7~8백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모아졌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는 후원금이 5백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불교방송후원회는 서울의 7백개 사찰에 편지를 띄워 회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달 소식지를 발행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 결과 현재까지 가입된 후원회원은 2천명 정도, 대부분 회원들의 후원금은 5천원에서 1만원선이며 극소수이지만 1천만원을 내는 후원자도 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불교방송이 믿고 의지할 곳은 후원회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자들밖에 없다. 불교방송 개국 역시 불자들의 지원기금으로 이뤄졌고 불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었기에 불교방송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업계의 전반적인 침체와 맞물려 심각한 위기에 놓인 불교TV 후원에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각종 행사를 이용해 불교계의 공기인 이 두 방송국이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전 불자들의 것임을 재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 불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야 한다. 각 종단의 도움도 절실하다. 양 방송사를 살리기라는 오롯한 애정만을 가지고 각 종단과 사찰에서는 무주상보시의 정신으로 적극 후원해야 한다. 이렇게 사부대중이 합심한다면 이번의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양사통합 범종단적운영 '대안'

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회장〉



수차례 거론돼온 의견이지만 현재와 같이 두 방송국이 함께 어려운 상태에서는 통합해 범종단적 차원에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불교방송과 불교TV는 라디오와 영상매체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매스컴을 통한 불법 포교라는 데서는 목적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합병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시설관리에 투자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사찰과 종단에서 협찬하는 광고와 프로그램의 중복도 피할 수 있다. 두 방송국의 방송을 시 청취 하다보면 반복되는 사찰과 종단 프로그램을 자주 만난다. 또 현재 양 방송사에 소속돼 있는 이사들도 방송국이 통합돼 힘을 합친다면 재정기반이 훨씬 더 견실해 지리라 본다. 무엇보다 단일화된 불교방송 매체는 불자들의 후원이나 주식공모 등 재정확보를 위해서 양사를 다 후원해 달라는 반복되는 부탁이 아닌 하나로 명분화된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단법인과 주식회사로 회사체제가 다른 양 방송사가 쉽게 통합되기는 어려우리라 본다. 하지만 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단일매체로서 불자들 앞에 거듭난다면 비용절감과 프로그램의 질적 효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MF관리 체제에서 교계의 방송매체 뿐만 아니라 타 방송사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불교계는 교계방송을 사랑하는 신심있는 불자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기에 희망이 있다. 이들에게 부처님의 홍법포교에 앞장선 모습을 보여줄 때 방송도 회생할 수 있다.

천만불자 '1천원 후원' 전개

감승희 〈한국차생활문화원장〉



현대인들은 읽는 것에 비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 더 익숙해져 있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습관이 언제부터인가 생활 깊숙히 침투돼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각종 생활정보와 시사소식 등을 제공하는 TV와 라디오는 우리들에게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교의 포교를 위해 설립된 불교방송과 불교TV는 불자들에겐 더욱 더 절실한 매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자들의 신행과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방송과 불교TV가 현재 재정수입 등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두 방송국의 설립 당시 많은 불자들이 발심해 후원하고 격려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불자 한 가구당 '1천원 후원모금운동' 같은 대대적인 양 방송사 살리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 부처님께 매달 천원씩 올리는 불전이라 생각하며 양 방송사의 회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전 불자들이 합심해야 한다. 전국 사찰의 스님들도 법회나 주요 행사 때마다 두 방송국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와같은 '1천원 후원모금운동'은 단시간에 실시되는 캠페인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불교방송과 불교TV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한다.

우리 불자들은 국가와 사회, 불교계 등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양 방송사 살리기 후원운동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불자들의 저력을 과시해 주길 기대한다.

BBS · btn 운영현황

불교방송은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광고수익에 의존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월 10억여원에 달하던 광고수입도 IMF한파로 인해 월 3억원이 채 안되고 있다. 이것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3월30일 6국16부를 7팀으로 개편하고 29명을 정리해고 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6월8일 프로그램 개편을 실시해 월 2천만원이 소요되던 제작비를 절반으로 줄였다.

광고의존 90% 이상
IMF 이후 광고 급감
BBS btn
개국 5년 부채 46억원
감원 · 감봉 등 고육책

불교방송의 98년 예산은 131억원. 이중 42억원은 재단전입금인데 이사들의 무관심으로 누적적자가 불가피한 상태. 불교방송은 현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포교제작팀' 등을 활용해 사찰 및 종단의 협찬프로그램 제작과 사찰광고 유치 등 수익증대에 힘쓰고 있다.

불교TV도 방송국 설립 이후 5년동안 46억여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기에도 힘이 부친다. 98년 예산은 44억2천만원이나 예상수입이 37억8백만원이어서 올해도 7억여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올해 들어 직원 40여명의 감원, 봉급삭감, 80% 재방편성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재정난을 극복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된다.

재정확충을 모색하고 있는 불교TV는 4월 문화사업단을 발족해 삼베수의 판매와 납골당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7월15일~9월15일까지 2개월동안 5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는 제6차 주식공모를 실시한다.



◇불교방송과 불교TV는 경영난 극복의 일환으로 후원회원 모집과 주식공모를 실시한다. 96년 대구경북불교방송 설립후원법회 모습.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BBS 5천원이상 후원금 입금

btn 6차 주식공모 동참을

불교방송후원회는 매달 후원회 소식지와 함께 후원금 지로용지를 발송한다. 금액은 5천원 이상이며 지로용지는 불교방송에서 구할 수 있다. (02)705-5560

이번 6차 주식공모에서 발행되는 불교TV의 신주는 한주당 5천원이며 1인 최저 청약단위는 20주(10만원)로 청약금액은 제한이 없다.

주식청약 지로용지는 불교TV 본사와 전국 사찰 및 각 종단의 총무원 등에서 배부하며 접수는 불교TV 본사에서만 받는다. (02)3270-3300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 화 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어느날의 외로움 -

슬픔 한조각
바다위로
홀로 떠가는 부표처럼

외롭게 가슴에 머물고
소리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고독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소리 흔들리며

노 젖는 이
그림자 등 뒤로
소슬한 바람 맞는다



원장 이 영숙(본명)

大幸, 초 · 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윤달수의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윤달 수의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신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스님,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 난치병 치료 ◆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여래한방원장 시연스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천이백여년전 당나라 선도의술(仙道醫術)의 의성(醫聖) 주진형의 놀라운 비방약인 기적의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은 사향 · 호골(虎骨) · 인삼 · 박하수오 · 적화수오 · 원방풍 외 30여종의 약재로 만들었으며,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오장육부의 치료, 중풍 · 근육의 모든 통증 및 마비증 · 당뇨병 · 소화불량 · 심장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하며, 복용할수록 정수(精水)가 풍부하게 생겨서 왕성한 정력이 솟아남으로 회춘(回春)이 되고 피부도 윤택해진다.

■ 진 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 (053) 628-9145
(053) 655-3027

대구여래한방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 진산

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 진산식이 22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거행된다.

성덕스님은 무공스님의 후임으로 5월24일 제23대 동화사 주지로 부임했다.

향천사 반야바라밀종 타종

예산 향천사(주지 경담)는 9일 반야바라밀종 타종식을 봉행했다. 반야바라밀종은 신도들이 국태민안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6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 상원사 신종을 축소한 모형으로 제작됐다.

수원포교당 전통수륙재

용주사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은 7월 1일 중앙탑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고혼 천도수륙대재를 봉행한다.

전통수륙재를 재현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범패, 바라춤 등이 시연될 계획이다.

태고종

제적스님 재심 사정회의

총무원 사정원(원장 종원)은 지난 3월 25일 선암사 사태로 제적된 김명성 스님을 비롯한 5명의 승려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9일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사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심대로 김명성 김승범 강혜산 조성당 전지선 스님을 제적했다.

강원교구 30일 예수재



강원교구 종무원(원장 백운·사진)은 30일 오후 1시 원주 고수부지에서 생전예수재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1주일 전에 입제식을 가진 강원교구 산하 각 사찰의 회향식을 함께 봉행할 예정이다.

천태종

올 종단 예산 10% 삭감

중앙종회(의장 덕산)는 최근 종회의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8차 임시종회를 열고 올해 예산을 10%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천태종의 올해 예산은 49억 3천여만원에서 10% 감액한 44억 4천여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예산은 47억 7천여만원이었다.

진각종

위덕대에 자전거 기증

통리원(원장 성초)은 전국 10여개 심인당의 참여로 종립 위덕대 동아리에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20대를 전달했다. 이는 자전거타기 운동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조동종

중앙선원 개원 · 가사불사

총무원(원장 송정)은 11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 98회 임시 중앙종회(의장 법련)를 열고 중앙선원 개원 및 종단차원의 가사불사를 봉행키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총무원은 11일 가사불사 입제에 들어가 하반기 연수교육(7월말~8월초) 때 회향키로 하고 그 시기를 즈음해 중앙선원을 개원키로 했다. 또한 국난극복 기원법회를 각 교구별로 개최할 방침을 세웠다.

총화종

총무원 구리 수진사로 이전



중앙종회(의장 김화담)는 11일 총무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총무원 청사를 경기도 구리시 천마산 수진사(주지 남정, 총무원장)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4월17일 준공식을 가진 수진사는 6백평의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다. 〈사진〉

일붕선교종

일붕스님 부도탑 제막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선교종 창종주 일붕존자 부도탑 및 행적비 건립 봉안위원회(위원장 무찰 총무원장, 동명 중앙종회 의장)는 6월3일 경남 의령 일붕사에서 일붕스님 부도탑과 행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한편 10만불사 대법회도 함께 가졌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진각종 북한포교 '새전기'

北 조불련서 창교절 맞아 축하전문
북방포교연구소 설립 교류 강화
나진 선봉심인당 복지관 건립 추진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이 대북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14일 52돌을 맞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으로부터 축하메시지를 받은 진각종은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북포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각종은 조계종과 남북교류에 대한 연대와 연합을 구축하는 것을 물론 금년부터 매년 2억원의 통일기금을 적립하고, 북방포교연구소를 설립해 독자적인 대북노선을 걸을 계획이다. 또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조불련과의 실무접촉 대화를 통해 나진·선봉 심인당 건립 및 북한 불교복지관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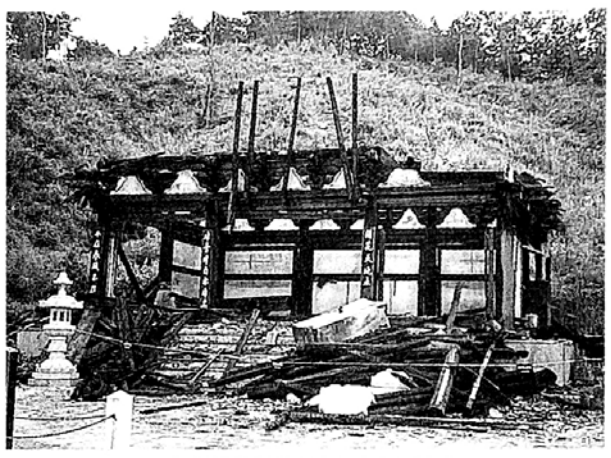
조선불교도연맹의 축하메시지는 그동안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을 비롯한 교계 몇몇 단체와 월주스님 총무원장 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온 사례는 있었으나 종단차원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는 처음있는 일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당국이 종교인들을 민간차원의 외교교섭에 활용하고 국제적 종교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을 활발하게 유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조계종 외 남북교류 협력의 파트너로서 진각종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메시지는 지난 3월 북경에서의 회담 이후 연기된 LA남북불교지도자 합동법회에 대한 북한의 대화재개 제의 의사도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

조불련은 중국불교협회를 통해 진각종에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전 민족이 대단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진각종이 앞으로 민족의 통일의지에 맞게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실천행에 선구자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한다"며 남북교류의 파트너쉽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은 "조불련은 진각종과 의복, 의식이 유사해 다른 종단과는 달리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통일대비 노력을 경주해 진각종이 통일한국불교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화재로 인해 전소된 노봉사 대웅전.

청원 노봉사 화재

대웅전 전소…4억원 피해

8일 새벽 1시 30분경 청주시 청원군 부용면 소재 노봉사(주지 원행)에서 화재가 발생, 대웅전(18평)이 전소돼 4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제를 처음 목격은 주지 원행스님은 "요사채에서 잠을 자던중 기와장 터지는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법당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말했다.

청주경찰서측은 "실화 방화 누전 등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재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고 밝혔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6일 정밀감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근 기자 〈jgkim@buddhapia.com〉



승가대 스님 스쿠버동우회 결성 스님들이 수중환경정화에 나선다. 중앙승가대학교 재학생 스님들로 이루어진 '중앙승가대학 천수천안 스쿠바 동우회'가 5일 울진 사동리조트에서 결성됐다. 회장 대원스님(복지학과 4년)은 "스쿠버라는 현대적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수중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청정국토를 지키는 것은 불국토 완성을 환해가는 부처님 뜻에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성식에는 재가불자모임인 '김현준 잠수교실 불교동우회'도 결성돼 앞으로 천수천안 스쿠바 동우회와 함께 수중환경 정화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박물관 청소업무만 위탁

문화부 검토안…중앙·경주박물관은 제외

문화관광부는 기획예산위원회가 문화부 소속기관 가운데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지정한 박물관 등 10개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 8일 예산청에 제출했다.

민간위탁 검토안에 따르면 박물관은 청소와 환경미화 분야만 민간에 용역을 주돼 국립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은 중요국보급 문화재 보유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제외하기로 했다. 또 궁·능원 관리업무는 청소와 환경미화 분야를 문화재보호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청소와 경비,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어 더 이상 민간에 넘길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검토안은 소속기관 업무를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하돼 건물 유지관리, 청소, 매표소관리 등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박물관업무는 방호 등 시설관리의 민간위탁이 현재로선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위는 정책결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위탁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전법도량 지정기념 수계 · 사리친견 법회

전북불교회관 26~28일

전북불교회관(원감 회일스님)은 전법도량 지정 기념으로 수계법회 사리친견법회 예수재 및 수륙재 등 다양한 행사를 결친다. 26~28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기도법회, 27일 특별영가 천도재, 28일 미륵십선수계법회 등을 각각 봉행한다.

또 25일부터 31일까지 전주풍남제 시장에서 보왕삼매론과 연꽃을 보시하며 포교활동을 펼쳤다.한편 전북불교회관은 7월15일 익산 미륵사지에서 예수재 및 수륙재 회향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전북도 · 열반종 완주 경복사지 발굴

사찰규모등 조사

열반종의 본산지로서 삼국시대의 대표적 사찰인 전북 완주군 경복사지(본지 173호 13면 보도)에 대한 고증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도와 열반종은 10일 "경복사지는 문헌자료나 현존유구로 보아 삼국시대에 창건돼 조선후기까지 법맥을 이어온 한국불교사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폐사지"라며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책정해 정밀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둘러본 유철 전북도 문화재전문위원은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평지가람이 아닌 산지가람이라는 점과 고려이전의 유구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경복사지로 단정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고덕산(경복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은 물론 아래의 화원마을 등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해 사찰의 정확한 위치와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79년 이 지역을 지표조사한 전북대박물관은 보고서에서 경복사가 열반종의 대표적 사찰이었던 만큼 웅장한 석탑이나 석등, 부도가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추후의 발굴작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특히 박물관측은 경복사가 백제의 가람이면서도 고구려의 보덕화상이 세운 사찰인만큼 고구려와 백제의 가람양식이 절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윤기석 기자

영산회 불우노인 · 실직자에 무료급식

청주 영산회(회장 월탄)는 28일부터 관내 불우노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활동을 펼친다.

영산회의 무료급식활동은 일요일 오전 11시 중앙공원에서 실시되며 회원사찰들이 번갈아 월2회(일요일) 정도 실시한다. 이와관련 김영환 영산회 사무국장은 "현재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타종교단체가 급식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일요일은 급식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며 "향후 급식활동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산회는 96년 청주·청원지역내 조계종 23개 사찰로 결성된 친목단체로써 사찰간의 정보교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펼쳐왔다.

김중근 기자

관음사 현수스님 입적

현수스님(고령 관음사 주지)이 8일 세수 41세 법랍 15세로 입적했다. 스님의 영결식은 관음사에서, 다비식은 대구 시립화장장에서 10일 봉행됐다. 스님은 86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92년 직지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절·염불·독경·참선·기도 (수련안내)

⊙ 참선기초수행법, 와선호흡법, 행선염불, 금강경봉독법, 특별기도법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①숨이 차고 헐떡대며 절하는 것은 마음이 크게 동요된 것으로 정신 집중 안되고 폐와 심장 등의 신체에 무리가 오는 어리석은 수행이다. 들숨과 날숨을 절 동작에 정확히 대입하여 자연 단전 호흡되면 삼천배를 하여도 숨차지 않고 힘들지 않으며 절삼매 이루고 강력한 기운의 집중과 방출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당뇨, 치매, 중풍은 예방되고 치유된다.
②염주들고 숫자세고 시계보면서 절하는 것은 바보같은 수행이다. 호흡과 동작에 숫자를 대입하면 자동으로 헤아려지며 정신 집중이 좋아져 생각이 또렷또렷해지고 기억력이 상당히 향상된다.
③합장하고 절할때, 일어설때 우주의 밝은 기운이 몸에 쌓이는데 염불하면서 절하거나 입벌리고 절하면 기운이 빠져나가 몸이 흔들리고 힘이들며 몸살나게 되니 허 입천장에 말아붙여 단전에 쌓인 기운을 유통시켜야 생기가 나게 된다.
④요가, 선체조, 기공체조, 단전행공, 명상체조보다 동작과 호흡의 일치가 전혀 무리없이 쉽게 잘되며 장소 구애 안받고 돈낭비, 시간낭비 않으며 지극한 신심이 증대되고, 단기간에 효과 발휘하는 최고의 건강법이며 만인류는 필히 실천해야할 수행법이다.

※ 서있는 상태부터 숨을 내쉬도록 가르치는 지도자는 호흡법을 전혀 모르고 어리석은 스승이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수행하라.

⊙ 염불 制 철야 정진

올바른 자세가 계속 유지됨으로 졸립지 않고 피곤하고 지겹고 피롭지 않으며 갈수록 정신은 맑아지고 자동으로 염불되고 자동으로 단전 호흡되어 힘이 넘치게 되는 가장 쉽고 언제나 실천 가능한 수행법이다.

※ 염불을 통해 허를 완벽하게 이완시키면 중풍, 치매, 고혈압이 예방치유되며 스트레스는 즉각 해소된다.

⊙ 신비의 도인 건강법

피로회복(20분), 소화불량(3분), 불면증(즉시), 화병(1달), 무좀(3회), 변비(순간), 비만, 고혈압(100일) 특히 당뇨병은 합병증 상태서도 쉽게 치유된다.

● 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기본수행법 수련
● 매주 토요일 저녁9시 ~일요일 아침 8시 철야용맹정진
● 예약수련, 넉넉한 복장, 수련회비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 (0338) 71-7745 (수행상담시간 오후 5시~8시)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메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빗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 (통신도 가능)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새싹불자 포교 "내일 밝다"

어린이지도자 연수교육 참여율 급증

어린이지도자 교육단체들이 개최하고 있는 연수교육에 교사와 법사스님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는 등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한 열기가 뜨겁다. 이는 IMF체제 이후 어린이 포교가 시들해질 것이라는 연수회 주최측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는 현상이어서 교계에 신선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스님)가 6~7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 제25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에는 전국 97개지역 8백50여명의 어린이지도자가 참석해 최대의 참가율을 기록했다.

이번 연수회에는 스님들이 25%나 참가했으며, 특히 매년 4~5명에 머물렀던 비구스님들도 50여명이나 참가해 어린이 포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계종포교사단과 천태종,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선재연구모임 등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조계종포교사단(단장 성타스님)은 20~21일 화성 신흥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관심있는 1백여명의 포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포교사단은 워크숍을 이수한 포교사 4~5명을 소단위로 조직해 포교현장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구인사에서 종단산하 55개사찰 1백3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전국어린이 지도교사 연수회를 갖는다.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제21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를 27·28일 양일간 구룡사에서 개최한다. 포교회는 연수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 절'이 되도록 스님과 선생님들이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민다. (02)738-7360

선재연구모임(회장 덕진스님)은 7월 4·5일 개운사에서 제1회 선재청소년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에서는 △불경속의 청소년 △공동체놀이 △과학 등 강연도 열어 청소년 법회·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우·강지연 기자 〈wwkim@buddhapia.com〉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6~7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어린이포교 확대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를 가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반대'

종교계 "민간활동 침해" 정부에 폐지 촉구

7월부터 발효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불교등 종교계가 이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구세군 등 35개 종교단체는 최근 '공동모금법의 폐지및 유보'를 청와대와 국회·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는 7월이전에 공동모금법의 폐지 내지 시행유보를 결정하고 △복지부는 공동모금법 시행을 일단 유보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모금의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모금법은 모금회의 예산과 사업계획 승인권, 임직원 해임권등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개입·관리·지도·감독하게 규정해 민간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많고 민간주도 모금의 활성화라는 당초 입법취지도 살리기 어렵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공동모금 활동이 전개되면 현재 종교계의 자선사업기금이나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 수준을 감소시킬 우려가 크며 공동모금법이 무료급식소나 지역아동시설 등 민간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모금법은 정부주도로 사회복지기금사업법에 따라 연말연시에 벌여온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연중 모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작년 3월 국회에서 통과돼 7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재경 기자

길음복지관 실직자 찾아나선다

건강검진·세탁·의복대여 등 서비스

서울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15일부터 연말까지 실직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이동 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 '이동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절실하지만, 마음먹고 복지관을 찾아오기 힘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현장 복지서비스로, IMF관리체제로 인해 양산된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타 복지관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 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미용서비스(주1회), 건강검진·세탁·의복대여·취업정보제공서비스 등. 복지관은 주1회 이상 건강검진 보조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과 미용사, 인터넷 전문가, 세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노숙자들에게 의복을 제공할 후원자나 후원업체를 기다리고 있다.

박은아 사회복지사는 "노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세탁·의료서비스는 여름철 위생에 취약한 노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길음복지관은 실직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주부들에게 부업거리(수작업이 필요한 의류, 앨범, 문구류 등 포장 등)를 제공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02) 985-0161 김재경 기자

"청정국토 만들자" 포스터-글짓기로 청소년들 다짐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는 13일 조계사에서 제4회 '98 청소년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과 환경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청정국토본부 총재인 월주스님은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현상, 산성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지구가 통채로 병들어 가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착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환경보전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번 환경공모전에 참가한 학교수는 모두 1백50개교이며 출품작은 총 4천5백여점. 이중 4백5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에는 은석초등학교 3학년 정신영군(포스터 부문) 등 6명의 초·중·고등학생(지도자상은 동대부고 권진영교사 등 3명)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조계사에서 전시된 수상작들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온누리가 깨끗해져요〉란 단행본 책자로 출간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장기수 후원회 7월4일 출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전국불교운동연합·불교인권위원회·청년여래회(이하 불교장기수후원회 준비위)는 7월4일 (가칭)불교장기수후원회를 출범키로 하고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립취지와 향후 사업계획을 밝혔다.

불교장기수후원회 준비위는 "모진 굴욕과 고난을 받은 장기수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업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사업이며 자비사상을 실현하는 길"이며 "이산가족 상봉과 더불어 남북간 화해를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창립 이후 장기수들의 영치금 지원과 자료조사, 숙소건립, 미출소 장기수 석방사업, 월간 소식지 발간사업 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장기수와의 등반모임 등 장기수들과 일반시민이 함께 하는 대화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종교-노사정, 21일 실직자-북동포돕기

100m-1천원 '남산대행진'

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대종단의 지도자와 신자,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이 남한의 실직자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남산길을 걷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참가종단을 비롯해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본부, 한국YMCA연맹 등은 21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장충단공원에서 남산 팔각정까지 오르는 '새로운 천년을 위한 평화대행진'을 개최한다.

행진코스는 3km로 참가자들이 1백m를 걸을 때마다 후원자로부터 1천원을 받아 기금을 마련하는 '워커톤(Walk-A-Thone)'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호국보훈의 달 값진희생 추모하고 빛난공훈 예우하자

목탁소리

꺼져가는 미8군 법우회

오 종 욱 〈취재1부 기자〉

지난 17년 동안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영내에서 유일하게 한국불교 신행의 참 모습을 보여왔던 '미8군 법우회'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10여개월 동안 한 차례의 법회도 봉행되지 않았고 현재 법우회 회원으로 남아있는 회원들이 한 명도 없다.

이에 대해 이협우법사(호국원 광사)는 "미군의 전체적인 예산 삭감 때문에 예전에 비해 지원금이 없어졌고, 미8군 당국의 불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법사는 지난해 10월 미8군 사령부로부터 어렵게 얻어낸 불교단체 '인가'를 지키기 위해 당시 5명의 회원이 남아있던 법우회 지도법사로 나섰다.

현재 미8군 사령부의 불교에 대한 이해도는 깊지 않은 것 같다. 이법사의 경우, 영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신분증 발급조차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미8군에는 2명의 군종장교가 있지만 모두 기독교계이며 불교계는 한 명도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법우회 회원들은 카투사와 같은 한국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회원들의 지도법사도 한국인이지만 미8군 영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미8군의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우회 활동을 위해 매번 밟아야 하는 행정 속에서 미군측과 문제가 있을 때 대등하게 대처하기는 힘들다. 미8군 법우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법우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꺼져가는 미8군 법우회의 불꽃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8군 사령부는 법사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불교계 군종장교를 영입하는 한편 자유로운 영내 수행·포교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육군 군종감실과 국방부 군종실 등은 언어소통이 원할한 지도법사를 파견해 미8군과의 유연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gobaoou@buddhapia.com〉

뉴스 & 뉴스

전국법사연합회 창립

한국불교전국법사연합회는 30일 오후 7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전국법사연합회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한다.

한국불교전국법사연합회는 법사 5대 헌장을 제정해 시대에 맞는 대승불교 운동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충청·강원에 전법도량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포교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거점사찰 1곳, 시범사찰 4곳 등 모두 5곳의 전법도량을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교원은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충청권과 강원권에 대한 지역조사와 전법도량 신청접수를 받아 8월중 전법도량을 지정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통일정책 워크숍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월주)는 23일 조계사에서 '북한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3차 통일을 준비하는 불교정책 워크숍을 연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동국대 문명대 교수가 '북한 문화재 현황 및 보존 실태'에 대해 발표한다. 도필선 기자

김포학사 공기 6개월 연장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지하)는 8일 제41차 이사회를 열고, 김포학사 신축공기 6개월 연장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인상분·A/V시스템 방송설비 및 하수관로 매설공사 등 60여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은자 기자

염불만일회 지회 순회법회

전국염불만일회는 오는 18일 오후 7시 제주시 홍법정사에서 제주모임법회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지회 순회법회를 봉행한다. 8월 5일 성지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순회법회는 마산창원 21일, 부산경남 22일, 대구경북 25일 등으로 이뤄진다. 이은자 기자

서울역서 실직자돕기 모금

종교인과 연예인, 기업인, 학자가 15일 서울역광장에서 실직자 돕기 캠페인과 위로공연을 펼쳤다.

자비사(주지 삼중) 주관으로 현인·명국환씨 등 원로연예인 10여명이 출연, 실직자를 위로하고 성금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김재경 기자

옥천암 진입도로 개설 요청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도용)는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소재 옥천암 진입도로(1.2km)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8일 전북도청에 제출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최 봉 수(동국대교수) ·주 명 철(동국대교수) ·정 병 조(동국대교수) ·오 국 근(동국대교수) ·박 종(불성개발연구원장) ·차 차 석(동국대교수) ·김 영 배(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 휘 옥(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암도스님(교육원장) ·권 탄 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권 기 종(동국대교수) ·혜원스님(동국대교수) ·윤 열 수(동국대교수)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 정 섭(금강선원이사장)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8년 6월 15일~ 98년 7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8년 8월 1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八公山 桐華寺 第 23代 住持 晉山式

삼보에 일심 귀명의 예를 올립니다.

신록이 장관인 천지녹음의 향연 속에 교계 여러 대덕 큰스님과 내외귀빈을 모시고 동화사 제 23대 주지 性 德 和尙의 진산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합니다.

청정한 인연속에서 21C 한국불교의 발전과 중흥을 앞서 이끌며 찬연한 법화를 꽃피워 갈 천년 대본찰 팔공산 동화사의 금번 진산 법석에 다망한 공사간에도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2년 6월

◆ 아 래 ◆

⊙ 일시 : 불기 2542(1998)년 6월 22일(음 5월 28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동화사 대웅전
⊙ 문의 및 연락처 : (053)982-0101~2 (F)985-4405

大韓佛敎 曹溪宗 第 9 敎區 本寺

八公山 桐華寺 住持 晉山式 奉行委員會

방송 소식

고궁·박물관 FM방송 내년 7월부터 실시

내년 7월부터 반경 1~2㎞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FM 상업방송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 김창곤 전파관리국장은 7일 "외국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고궁, 박물관, 전시장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FM 방송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btn '날마다 좋은날' 2일부터 김용씨 진행



前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 전문위원 김용씨가 지난 2일부터 불교TV의 생방송 인기프로 '날마다 좋은날'(오전 10:20~50)의 진행을 맡게 됐다.

김용씨는 "방송과 불법을 동시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화제의 진행자 BBS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씨

"생활속 작은행복 찾아줍니다"

"그동안 박봉을 쪼개 모은 돈으로 포장마차를 시작한 당신. 나도 이제 어엿한 사장이라고 웃어보이던 당신. 실직의 절망을 슬기롭게 이겨낸 당신이 있기에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평범한 이웃들이 보내온 사연속에서 찾아내 청취자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는 불교방송의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담당PD 김상준).



◇불교방송의 인기프로 '행복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황청원씨인.

차분하고 편안한 화술로 청취자에 훈훈한 감동줘

차분한 음성과 감성적인 화술로 인기를 받고 있는 황청원씨(시인)의 진행으로 월~일요일 오전 11시 10분부터 12시까지 생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IMF로 절망감과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던져준다.

8일부터 방송된 이 프로는 청취자들이 행복했던 순간을 전화로 이야기 하는 '나의 작은 행복 이야기'와 요즘 어깨가 축 늘어진 가장들에게 아내가 사랑의 편지로 격려해 주는 '여보 힘내세요' 등의 코너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추억속의 친구들에게 사연을 띄우는 '추억의 앨범'과 행복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복의 현장', 명사들의 행복론을 들어보는 '행복 초대석' 등의 순서는 평소 놓치기 쉬운 생활속에서의 작은 행복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해 준다. 매주 일요일 베스트 편지를 선정해 황청원씨가 답장을 해주는 '답장을 드립니다'도 이 프로의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 황청원씨는 "손질되거나 과장된 느낌이 아닌 청취자들이 찻집에서 편안히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프로에서 들은 좋은 말 한마디로 청취자들이 하루종일 행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신행수기 당선작

나한도량에서 맺은 인연③ · 끝

〈천태종 총무원장상〉

나한전 10일 정진 배우자 인연 만나 "이젠 포교하며 살 터"

출가를 권유하는 스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님이 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급생의 내 인연이 아닌 듯하여 다음 주말 철야기도 할 때 더 열심히 정진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내친김에 회사에 여름휴가를 신청하고 10일동안 거조암에서 기도에 전념했다.

나한님 한분 한분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를 한지 3일째. 나반존자께서 웃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잘못 보았나 싶어 다시 보아도 나반존자님이 하얀수염을 아래 위로 움직이며 웃고 계시는 것이었다. 환희심에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내려와 내 방사에서 잠시 잠들었다.

그런데 꿈에서 나반존자께서 호통을 치시는 것이다.

"중생구제 하자는데 참 말 안듣는다"고 섭섭해 하시면서 "참 네 놈도 지독한 놈이구나. 졌다" 하신다. 그러더니 환히 미소를 지으시며 "음력 8월에 너의 인연이 있다. 가을 추수할 때 경사가 있으리라. 그 인연과 잘 살되 너의 약속은 꼭 지키라"며 우렁차게 울리는 목소리로 크게 웃으시며 사라지셨다.



그림 · 이준석

"존자님, 존자님" 부르다 잠에서 깨어났다. 너무 기뻤다. 그대로 법당에 올라가 108배 절을 하고 내려왔다.

그날이 있은 나흘 뒤, 일요일이라 아침 일찍부터 신도들이 많이 올라왔다. 종무소에서 몇몇 신도들과 차담을 나누던 중 사무장보살이 갑자기 "우리 거조암에서 7일째 살면서 기도하고 있는 총각처사인데 중매 좀 해라"고 나를 소개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도들이 서로 중매하겠다고 나섰다. 놀랍게도 지금 연락할테니 오늘 중에 보라고 서두르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농담처럼 다음에 보자고 미루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보자는 성화에 그 자리에서 세명과 선을 보게 됐다. 전화연락으로 대구, 포항, 영천에 사는 아가씨 세명을 절 종무소에서 만났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나한님도 너무하시지, 신통묘술을 부리시는 것일까. 한마디로 정신이 없었다.

그날 오후 울산 집으로 돌아왔다. 막 대문에 들어서려는데 옆집 할머니가 무턱대고 따라오라고 하신다. 가까운 곳에서 아가씨와 선보기로 약속을 해두었다고 하셨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이러한가 하고 웃음이 나왔다. 약속장소에서 할머니와 함께 그녀를 만나 차한잔을 하고 헤어졌다.

집에 들아와 곰곰히 생각하니 가슴이 뛰고 정신이 멍멍하다. 그러면서 기도 가피를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면 난 어떡해야 하나 싶었다. 말법시대에는 부처님 대신 나한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더니 정말 그런가. 또 나한님이 신통묘술로 내 근기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많은 생각이 이어지는 릴레처럼 스쳐간다. 그리고 나한님께 인연이 누구냐고 묻고 싶었다.

8월 둘째주 토요일 거조암에 올라갔다. 철야기도를 마치고 일요일 새벽 잠이 들었다. 다시 꿈 속에 나한님께서 모습을 보이시며 "이제 인연 있으니 행복하라" 하신다. 도대체 인연이 누구일까.

울산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는데 우편함에 우표가 붙지 않은 예쁜 편지봉투가 꽂혀 있었다. '누굴까' 하며 방에 들어와 펼쳐보니 네번째 선을 본 울산 아가씨였다. 나를 만나고 나서 3일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쓰여 있었다. 결혼하자는 프로포즈였다. 나한님이 정해주신 인연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웃음이 나왔다.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맺은 인연과 이 해가 지물기 전에 부부가 된다. 12월21일. 새출발 선에서 나한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법·포교하며 살리라. 또 배우자와 더불어 열심히 불법공부하여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한님의 가피를 전하련다.

김재화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만가지 '덕' 모이는 모습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⑨ 卍



◇부처님뒤 광배 가운데 범어 옴자가 쓰여 있고 둘레를 우만자와 좌만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축서사. 9세기경.

만(卍)자는 불교나 절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이 卍자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모두 십(十)자의 변형으로 된 것이다.

卍자는 萬자 万자, 또는 길상해운(吉祥海雲) 길상희선(吉祥喜旋)이라고도 쓰는데 만가지 덕(일체의 공덕)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뜻한다.

卍자는 부처님의 32상중의 하나로 부처님의 가슴, 수족, 두발, 허리에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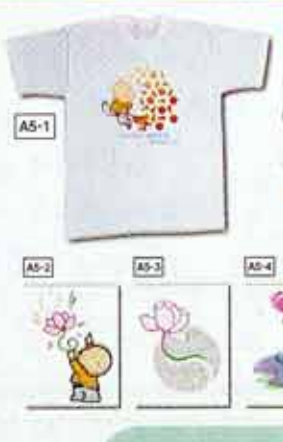
卍자는 예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었는데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우만자와 왼쪽으로 도는 좌만자로 나뉘어지며 또 좌우 만자의 각 끝부분이 다시 꺾인 모양이 있다. 이러한 만자의 모습은 앗시리아 그리스 로마 인도 중국 등 고대 문명이 찬란하였던 곳에서 흔히 발견된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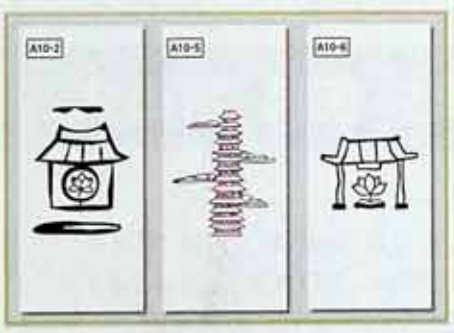
◇라파엘로 作 '성체논의'(부분). 이처럼의 건물을 장엄한 卍자 문양이 두드러진다. 1509년. 바티칸미술관 소장.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품을 일목 시공후 문각한 경보 대장경판 다양한 느낌을 주기위해 목판형, 철통형, 골동품형 등 4종의 경판을 마련했습니다.
재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가격 : 1개 ₩ 100,000
A6-3 목판형
경판보관함


불교 티셔츠
선천한 종지의 맑은 세상 비율기, 연꽃니를 등 본지에서 제작한 종지 캐릭터 및 연등 문양으로 디자인한 단 티셔츠. 여름 수련대회및 각종 행사품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사진 이름 및 단체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A5-1
가격 : 아동용 ₩ 5,500
성인용 ₩ 6,500
9도 칼라 인쇄
A5-2 A5-3 A5-4
★ 원하시는 문구와 그림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금속 수공예 액자
지장보살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참의 발보심 등부터니중생을 위한 지혜 건강 재보 수명의 수승한 진리 등의 길을 증진시키는 다라니를 법으로 전했어 길상으로 된 테두리와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 불보살의 가피력이 항상 함께 합니다.
· 늘 마음에 새기면 깊은곳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되며 행실이 돈독해 집니다.
· 길흉하는 분에게 선물하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 현대적 감각에 맞아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가격 : ₩ 45,000
A6-1
* 금액사항 : 수공예 작품이므로 사정 수문시 공문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미술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질 : 100% 청동 / 종류 : 브론즈주형, 골동품형, 개금형 / 크기 : 40.5 ㎝
가격 : ₩ 350,000 (크림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A4-1 A4-2 A4-3
골동품형 개금형 브론즈크림형


기도포
대(大) : 가격 ₩ 1,600 기장 84㎝ 폭 39㎝
중(中) : 가격 ₩ 1,500 기장 76㎝ 폭 39㎝
재질 : 면
A10-2 A10-5 A10-6

부다피아 쇼핑몰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접할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요.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 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부다피아 쇼핑몰 사이트 · http://mall.buddhapia.co.kr


내부그림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보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경이로운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실린 묘법연화경는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는데, 이 경전을 믿으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온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비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3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A11-1
색상 : 진녹, 적,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재질 : 기모지 / 특징 : 색이 변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다포
가격 ₩ 900 기장 50㎝ 폭 39㎝
재질 : 면
A11-1 A11-2
* 원하시는 그림및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기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가지름은 일정치 않으며 자연 대나무 결이 아주라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로고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문구를 써서 드립니다. 단 로고 인쇄에 10개 이상.
크기 : 9(세로).5~7(지름)㎝ / 가격 : 낱개 ₩ 8,000
A7-1


단주 염쇠고리
다양한 컬러 디자인
가격 : 낱개 ₩ 3,000
A9-1

반야심경 종 차걸이
얽은 종소리가 울는 이의 하품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A9-3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정통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 별도의 배송 방법 문의 바랍니다.


A9-2

불교시계


사각형 벽걸이 시계
회원경 직전계, 보림살레로 경전문구 디자인 100개 이상 주문시 원하시는 경전 및 문구를 넣어 드립니다
가격 : ₩ 13,000


A3-1
사각 그림 벽시계
색상 : 청색, 흰색
크기 : 200(가로) 320(세로) 45(두께)㎜
특징 : 취향부분 회원칼슘계도 및 칼실지 경전문구 디자인
가격 : ₩ 11,000


A3-2
원형탁상형 알람시계
(벽걸이겸용)
색상 : 군청, 노랑, 빨강
크기 : 180(가로) 180(세로) 45(두께)㎜
특징 : 심플한 프임의 다양한 칼라의 칼 모양의인터심경 전문 및 천자 내부디자인
가격 : ₩ 10,000


묘법연화경 책자
A2-1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위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 6.2 (세로)㎝ , 547쪽 / 가격 : ₩ 4,000